

# 아트마켓 가이드

performing  
a r t s  
m a r k e t  
g u i d e

performing  
a r t s  
m a r k e t  
g u i d e



# 아트마켓 가이드

performing  
a r t s  
m a r k e t  
g u i d e

performing

a r t s

m a r k e t

g u i d e

## CONTENTS

### 아트마켓 활용

#### 1. 아트마켓 이해의 시작

아트마켓이란?	8
아트마켓의 개최 유형	11

#### 2. 아트마켓 기본 알기

아트마켓 프로그램	14
아트마켓 참가자	17

#### 3. 아트마켓 참가하기:준비에서 사후관리까지

마켓 참가를 위한 사전 점검	20
마켓 참가 전	23
마켓 기간 중	31
마켓 행사 후	35

[리뷰] 마켓과 축제를 적극 활용하라	36
----------------------	----

### 권역별 아트마켓 정보

#### 1. 공연예술마켓

##### 공연예술마켓 | 아시아/오세아니아

서울아트마켓 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40
호주아트마켓 APAM, 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	42
상하이국제공연예술제 SPAF, Shanghai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44
인도네시아 아트마켓 Indonesia Performing Arts Mart	45
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 TPAMIY, 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	46
컨버스아시아нс ConversAsians	48
중국 국제 문화 산업 박람회 ICIF, China International Cultural Industry Fair	50
후아산 리빙 아츠 페스티벌 Huashan Living Arts Festival	51

[리뷰] 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 2013	52
----------------------	----

**공연예술마켓 | 유럽**

인터내셔널 탄츠메세 Internationale Tanzmesse NRW	56
피라타레가 Fira Tàrrega	58
컴앤씨: 카탈로니아국제공연예술마켓 COME&SEE: Catal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59
바르셀로나 그렉 축제 Grec Festival de Barcelona	60
아비뇽 오프 축제 Festival d'Avignon Off	61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62
시비우 국제 연극제 Sibiu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64
<b>[리뷰] 피라타레가 2012</b>	66
<b>[리뷰] 시비우 국제 연극제 2012</b>	69

**공연예술마켓 | 북미**

시나르 CINARS,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Arts de la Scène	74
미국공연기획자협회 총회 APAP Conference	76
청소년국제공연예술 총회 IPAY,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or Youth	78
중서부예술연맹 총회 Midwest Arts Conference	79
남부예술연맹 총회 Performing Arts Exchange	81
서부예술연맹 연례회의 WAA, Western Arts Alliance Annual Conference	83

**공연예술마켓 | 중남미**

비아마켓 VIA, Ventana Internacional de Artes Escénicas	86
보고타아트마켓 Rueda de Negocios de Música y Artes Escénicas	87
우루과이 국제공연예술축제 FIDAE, Festival Internacional de Artes Escénicas	88
아르헨티나 문화 산업 마켓 MIKA, Mercado de Industrias Culturales Argentinas	89

## 2. 국제음악마켓

### 국제음악마켓 | 아시아/오세아니아

호주아시아 월드뮤직엑스포 AWME, The Australasian World Music Expo	92
뉴질랜드 뮤직 엑스포 Sounds Aotearoa NZ Music Expo	94
뮤직매터스 Music Matters	95

### 국제음악마켓 | 유럽

위멕스 WOMEX, World Music Expo	98
바벨 매드 뮤직 Babel Med Music	101
미뎀 Midem, The World's Music Market	103
재즈어헤드! Jazzahead!	105
바르셀로나 뮤직마켓 MMVV, Mercat de Música Viva de Vic	107
에쓰노 스웨덴 월드 뮤직 캠프 Ethno Sweden World Music Camp	108
클래시컬 넥스트 Classical Next	109
베를린 뮤직 위크 Berlin Music Week	111
메디멕스 MEDIMEX	112

<b>[리뷰] 클래식 넥스트 2013</b>	113
--------------------------	-----

### 국제음악마켓 | 미주(북미/중남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뮤직 SXSW Music, South by SouthWest Music	118
브라질 뮤직페어 Feira Música Brasil	120
포르토 뮤지칼 Porto Musical	121
과달라하라 국제 음악마켓 FIM, Feria Internacional de la Música	122

### 3. 공연예술네트워크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124
IETM,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국제공연예술협의회	126
ISPA,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전미공연예술네트워크	128
NPN,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중남미기획자연합회	129
La RED, La RED de Promotores Culturales de Latinoamérica y El Caribe	
유럽월드뮤직축제포럼	130
EFWMF, The European Forum of Worldwide Music Festival	

### 색인





performing  
a r t s  
m a r k e t  
g u i d e

# 아트마켓 이해의 시작

## 아트마켓이란?

### 아트마켓의 개념

아트마켓은 문화산업과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급자(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수요자(프로모터, 제작자, 극장, 축제 감독 등 프리젠티)에게 판매하거나, 수요자가 원하는 작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장으로 일종의 견본시(見本市)라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공연예술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주체를 관객과 예술가로 본다면, 아트마켓의 수요와 공급은 기획(제작자)와 예술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전자를 소매시장이라 한다면, 후자는 사전유통구조인 도매시장인 셈이다. 하지만, 일반 견본시와 달리 아트마켓은 상품만을 사고파는 관점의 경제적 효용성 추구를 넘어 예술 단체와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와 정보를 담고, 소통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아트마켓에서는 공연예술작품에 대한 쇼케이스, 부스전시 등을 통한 실물거래가 직접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며, 아카데미, 포럼 등을 통한 국내외 공연예술의 실질적인 정보교환과 관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다.

### 세계의 아트마켓

세계에는 어떠한 아트마켓이 존재할까?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북미 등 세계 곳곳에는 아트마켓이라는 이름을 걸고 또는 다른 이름으로 아트마켓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공연예술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국내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자국의 작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마켓으로 캐나다의 시나르(CINARS,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Arts de la Scène)가 있다. 시나르(CINARS)는 1984년 창설되어 몬트리올에서 매 짝수 년에 열리고 있으며 60개국에서 극장, 축제 관계자, 기획자, 매니저, 정책 담당자들만 1천여 명이 참가하고 150개의 전시부스와 30여 편의 공식 쇼케이스 프로그램이 소개되는 대표적인 공연예술 견본시이다. 자국의 작품 외 미국, 러시아, 멕시코, 영국 등 타 국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해외 쇼케이스를 프로그램 한다.

북미권역의 가장 대표적인 마켓으로는 미국공연기획자협회(APAP, Association of Performing Arts Presenters)이 있다. 공연 기획의 전문적 영역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1월 뉴욕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하며, 컨퍼런스, 네트워킹 미팅, 300개 이상의 부스와 1,000편 이상의 쇼케이스가 뉴욕 전역의 공연장에서 열려 세계최대의 아트마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외에도 중남미, 중국, 대만, 일본, 한국, 호주, 유럽 등 전 세계의 주요 프리젠티가 참가하는 국제적 마켓으로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미국의 또 하나의 마켓으로는 서부예술동맹 연례회의인 WAA(Western Arts Alliance) Annual Conference가 있다. WAA는 미국 서부의 공연예술관계자들 700명 이상의 회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등의 해외 쇼케이스를 프로그램하며, 미국 서부시장에 대한 공연예술정보를 위한 주요한 마켓으로 최근 인식되고 있다.

중남미권역에서의 주요한 마켓으로는 콜롬비아 보고타 아트마켓(Rueda de Negocios de Música y Artes Escénicas)이 있다. 보고타 마켓은

11월에 개최하며, 델리게이트와 참가자와의 정확한 매칭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의 정치적 변동 등에 따라 격년제의 개최여부가 변경되기도 한다.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서울아트마켓(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외 일본의 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TPAMIY, 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 격년제로 6월에 열리는 싱가포르의 컨버스아시안스(ConversAsians/구 Asian Arts Mart(AAM)), 매해 10월에 개최되는 중국 상하이국제공연예술제(SPAF, Shanghai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를 찾아볼 수 있다. 호주의 호주아트마켓(APAM, 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 또한 주목할 만한 아트마켓이다. 1994년 창설되어 매 짝수년 2월 개최된다. 초기 캔버라에서 개최되었던 마켓을 아들레이드 페스티벌과 아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는 축제적 공간으로 옮겨 2010년 까지 개최하였다. 2014년부터 브리즈번으로 옮겨 개최될 예정이다. 호주아트마켓(APAM)은 철저하게 호주 자국의 공연예술작품에 대한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호주 작품만을 쇼케이스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공연예술의 일반적인 마켓 외 장르별로 특화된 마켓도 존재한다. 무용 전문 마켓으로 독일의 인터내셔널 탄츠메세(Internationale Tanzmesse NRW)이 있으며, 음악 전문 마켓으로는 프랑스의 바벨 메드뮤직(Babel Med Music), 브라질의 바이아 문화마켓(Mercado Cultural da Bahia)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음악 마켓인 위멕스(WOMEX)는 1994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시작한 세계 최고의 월드뮤직 박람회이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속음악을 비롯, 재즈, 포크, 전통 음악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페스티벌과 아트센터의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음반사와 배급자,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들에게 다른 어느 행사보다 더 효율적이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중음악을 포함한 음악마켓으로 프랑스의 미뎀(MIDEM)이 음악 산업 및 방송과 관련하여 주요 마켓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1987년 창설되어 최근에 소셜네트워크인 트위터(Twitter)를 성공리에 런칭한 바 있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뮤직(SXSW Music, South by SouthWest Music)과 인터랙티브(SXSW Interactive) 역시 각각 마켓으로서의 역할과 축제의 기능을 겸비하면서, 위멕스(WOMEX), 미뎀(MIDEM)과 함께 3대 음악마켓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트마켓은 마켓의 성격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에 크고 작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트마켓은 기본적으로 자국 공연예술작품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마켓의 첫 번째 기능으로 두고, 자국공연중심의 쇼케이스와 부스전시를 운영한다. 자국의 작품만을 집중적으로 홍보 마케팅 하기 위해 해외델리게이트를 유치하고, 자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작품만을 쇼케이스하는 호주의 호주아트마켓(APAM)과 같은 마켓부터 세계 공연예술시장의 중심을 지향하며, 타 국가의 쇼케이스를 공모, 선정하여 프로그램 면에서 국제적인 성격의 마켓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마켓이 있다. 미국공연기획자협회 총회(APAP), 음악마켓인 위멕스(WOMEX)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캐나다의 시나르(CINARS)도 최근 들어 해외 쇼케이스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

## 아트마켓의 변화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요청

*“아시아 공연예술은 더 이상 프로덕션을 ‘사고파는’, ‘소핑만을 위한’  
전통적 마켓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요구한다”*

*싱가포르 아시안아트마켓 2007*

2010년 이후 주요 국제공연예술마켓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기존 공연예술작품(Production)을 ‘사고파는’(Buying and Selling) 형식의 유통시장(Market)의 기능에서 창작 아이디어 및 정보 교환, 공연예술분야 별 전문가 네트워킹, 제작 전 작품(Pre-Production) 프리젠틱 등이 포괄 적으로 소개되는 공연예술 ‘플랫폼(Platform)’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공연예술시장의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 변화 및 전통 적인 ‘사고파는’ 마켓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가치 중심이 ‘거래’에서 ‘창작’ 혹은 ‘협력’ 등으로 이동함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다.

## 아트마켓 개최유형

### 견본시 성격의 아트마켓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아트마켓으로 전시형 이벤트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견본시(見本市)라고도 한다. 미국의 APAP, 캐나다의 CINARS, 서울아트마켓, 호주아트마켓 등 대부분의 마켓들이 견본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연예술작품을 상품의 대상으로 함에 따라 홍보 및 판매행위뿐만 아니라, 예술단체와 기획자 간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부스전시, 쇼케이스, 학술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축제 연계 아트마켓

이 유형은 기존의 공연예술축제와 협력하여 마켓참가 프리젠티들에게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보다 많은 세계의 기획자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넓혀준다. 축제 기간 중 아트마켓을 운영 하며,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한다.

### 아트마켓 기능 수행 축제

전통이 깊은 축제는 자연스럽게 수요자(프리젠티, 프로그래머 등)와 공급자(공연단체)가 만나는 장을 이루며, 아트마켓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과 '아비뇽 오프 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 네트워크 총회

네트워크 총회는 공연예술작품의 직접적인 판매와 유통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 및 전문가 간 네트워킹이 중심이 되며, 행사 내 부분적으로 아트마켓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네트워크 총회는 학술행사, 공연,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가에서 프리젠티, 프로모터 까지 공연예술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세계공연예술의 신조류를 파악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는데 유용하다. 대표적으로는 현대공연예술 네트워크(IETM)의 봄, 가을 정기총회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공연예술협의회(SPA)의 1월 뉴욕 정기총회와 6월 지역 총회가 있으며, 중남미기획자연합회(La Red)총회는 회원 축제와 연계하여 열린다.

#### 주요 국제회의

- 국제공연예술협의회 ISPA |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IETM | International Networks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 중남미기획자연합회 La RED | La Red de Promotores Culturales de Latinoamérica y El Caribe
-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협회 AAPPAC |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ers
- 아시아공연예술축제연맹 AAPAF | Association of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s
- 유네스코 산하 국제공연예술 분과 연맹 총회 : ITI(연극), CID Unesco(무용) 등.



performing  
arts  
market  
guide

# 아트마켓 기본 알기

## 아트마켓 프로그램

각 마켓별로 차이점은 있으나, 전통적으로 아트마켓은 '부스 전시', '쇼케이스', '학술행사', '비즈니스 상담회', '네트워킹 이벤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전통적인 방식이 아트마켓 행사장에서 효과적인 작품의 프로모션 활동을 위해 조직화 된 것이라면 오늘날 마켓은 '창작과 유통', '국제협업'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예술가 프리젠테이션, 예술가와의 대화, 네트워킹 회의, 제작 전 작품 프리젠테이션, 국제협력파트너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있다.

### 부스전시 Booth Exhibition

아트마켓 개최 장소를 중심으로 공연단체들이 홍보를 위해 부스를 설치하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아트마켓 개최자가 공간과 부스를 제공하고, 참가 공연단체가 부스를 임차하여 아트마켓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된다.



2013 MEDIMEX 부스전경



2013 WOMEX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부스

photo by Jacob Crawford

### 쇼케이스 공연 Showcase Programs

아트마켓 참가 공연 단체들이 전막공연을 축약하여 소개하는 건본 공연(통상 20-30분 내외) 프로그램으로 아트마켓별로 규모는 다르나 보통 20개에서 40개 내외의 쇼케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쇼케이스 공연장은 부스 전시공간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며, 국내/해외 쇼케이스로 구분된다. 부스전시와 더불어 아트마켓의 가장 핵심적 프로그램이다.



2013 서울아트마켓 팜스초이스 쇼케이스  
(가곡실격 나흘밤)



2013 서울아트마켓 팜스초이스 쇼케이스  
(하얀 눈썹 호랑이)



##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Presentation Programs

시청각 프리젠테이션(A/V Presentation)은 부스전시와 쇼케이스의 기능을 프리젠테이션의 형태로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공연단체 및 작품활동에 대한 내용을 시청각 포트폴리오 형태로 소개하게 된다. 피치 세션(Pitch Session)이라고도 불리는데, 작품 소개뿐만 아니라 기획 및 구성 단계(work-in-progress)에 있는 공연이나 축제의 프로젝트 아이디어 등을 소개하기도 한다. 또한 예술가가 직접 시연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아트마켓의 LIP(Looking for International Partners), 시나르(CINARS)의 Presentation of Projects in Development, 호주 APAM Pitch Session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Ice Hot 2012 한-핀 커넥션 PT



2013 서울아트마켓 LIP PT 세션

### LIP(Looking for International Partners)

LIP는 2005년 서울아트마켓에서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창작에서 유통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창조적인 협업(Creative Cooperation)의 실질적인 파트너를 찾기 위해 기획되었다.

## 네트워킹 이벤트 Networking Events

개·폐막 리셉션이나 조찬·중식·컵테일파티, VIP 리셉션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아트마켓 관련 자원기관 혹은 유관단체의 스폰서십 프로그램 형태로 구성된다. 실질적으로 네트워킹 미팅이나 회의의 형식을 띄면서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교섭을 위한 창구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서울아트마켓에서는 스피드 데이팅, 팸스나이트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2013 서울아트마켓 팸스나이트



2013 서울아트마켓 스피드데이팅

## 학술행사 (강연회 및 세미나)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워크숍 등 세계 공연예술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국가의 문화적 정서 및 교육 환경에 따라 강의식 또는 토론식의 학술행사로 진행되며, 아트마켓 참가자 대부분이 관련 업계의 실무자들이므로 학회식의 담론 형성 보다는 관련 실무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트마켓이 '만남'을 중심으로 한 '회의' 형태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학술행사, 회의 등의 형태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 IETM 아테네 총회 세션



2013 서울아트마켓 포커스 세션

## 연계 행사

주로 자국의 주요 공연예술축제와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아트마켓 개최 효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은 에딘버러 국제예술제,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축제와 연계하여, 격년제로 British Showcase를 개최하여 자국의 공연예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서울아트마켓의 경우 10월 동시기에 열리는 서울공연예술제와 서울세계무용축제와 연계, 또는 협력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또한 공연예술 국제교류 효과 배가를 위해 공연예술 관련 국제기구 정기총회, 국제회의 등을 아트마켓과 동시기에 유치하기도 한다.



2009 바벨메드뮤직연계행사 EFWMF

## 아트마켓 참가자

아트마켓에는 예술가(예술가 및 예술단체)와 프리젠티(극장 및 축제 프로그램 담당자), 프로모터(공연예술 기획사 및 에이전트, 공연예술단체 기획자), 프로듀서(공연제작자), 행정개(문화재단 및 협회 소속 담당자), 기타공연예술관계자(학계, 언론) 등 이 참여하여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이 때 작품을 소개하는 주체로서 예술가(Artist) 및 부스전시자(Exhibitor)가 아닌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프리젠티, 프로모터, 프로듀서 등을 마켓에서 주로 델리게이트(Delegate)라고 부른다. '델리게이트(Delegate)'란 대리인, 대표자를 뜻하는 말로, 아트마켓에서는 소속 단체나 기관을 대표해서 등록된 참가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델리게이트 분류 Delegate

**프리젠티(Presenter)** 창작, 교육,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와 관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축제나 공연장의 예술 감독 또는 프로그래머

**프로모터(Promoter)** 공연 투어의 기획, 조직을 전담하는 개인 또는 기획사 종사자. 현지 대관, 공연 수익, 홍보, 투어, 스폰서십 전반에 대한 책임자

**프로듀서(Producer)** 작품이 공연되는 데 있어 제반 사항을 총괄.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극본가 등의 제작 인력뿐만 아니라 배우, 무용수 등의 예술가 및 기술 인력을 섭외, 총괄. 특히, 제작 및 상연에 관련된 모든 예산 조달 및 관리에 대한 총 책임을 짐

**행정가(Administrator)** 정부산하기관, 재단 등 문화예술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 종사자. 각국의 예술 지원 정책, 해외 진출 시의 지원금 등에 대한 펀드레이징 정보 취득 가능

**예술가(Artist)** 델리게이트로 분류되는 예술가는 마켓에 작품 소개를 위해 참가가 아닌 참관자로서의 등록을 의미

**저널리스트(Journalist)** 컨설턴트(Consultant) 학계(Academy) 연구원(Researcher) 마켓에서 지식이나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의 참가자



performing  
a r t s  
m a r k e t  
g u i d e

# 아트마켓 참가하기 준비에서 사후관리까지

## 마켓 참가를 위한 사전 점검

### 왜 아트마켓에 참가하며, 어떤 마켓에 참가할 것인가?

해외공연예술축제와 해외 유수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꿈꾸는 단체에게 아트마켓은 해외진출의 주요한 창구 중의 하나이다. 아트마켓 참가가 해외진출의 직행티켓은 아니지만, 해외 유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기간 많은 공연예술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임에 따라, 철저한 준비 후 전략적으로 마켓에 참가한다면 해외진출의 중요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한국공연예술단체들의 시나르(CINARS), 위멕스(WOMEX) 등의 쇼케이스로 참가 후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많은 한국 단체들이 서울아트마켓(PAMS)에 참가해 해외진출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 아트마켓 참가 목적과 비전 설정

먼저 아트마켓 참가 목적과 비전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작품을 중점적으로 홍보 및 교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아트마켓의 참가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순한 경험의 확대를 넘어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목표와 함께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 기획단계에서는 해외공연의 목적과 목표 설정, 작품 분석, 단체의 조직, 재정 분석, 시장 분석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 이후에 아트마켓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 아트마켓에 참가하여 그 다음 단계의 질문과 해답을 성취할 수 있다.

#### Tip. 해외마켓 참가 전 서울아트마켓의 적극적인 활용!

마켓 참가 경험이 전혀 없는 국제교류 초보자라면 해외마켓에 나가기 전 국내에서 열리는 서울아트마켓에서 첫 경험을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서울아트마켓은 한국공연예술작품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공연예술관계자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 2주에 5일간 장을 펼친다. 서울아트마켓의 펍스 초이스(PAMS Choice)는 공식 쇼케이스 작품으로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운영되며, 작품의 해외 진출 시, 공식지원(기금, 번역지원, 홍보마케팅)을 통해 작품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서울아트마켓은 아시아/유럽/북미/중남미를 중심으로 ASEF, IETM, ISPA, LA RED 등의 주요공연예술연합 회와의 협력을 통해 거점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직접지원(마켓 참가지원, 쇼케이스 참가 지원 등), 간접지원(번역지원,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해 한국 작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아트마켓 기간 중 공식 쇼케이스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시장의 흐름과 경향을 보여주는 학술행사, 작품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공동파트너를 모색하는 LIP(Looking for International Partners), 국내외 프리젠테와의 직접 만남을 주선하는 스피드데이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소개,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모색할 수 있다.

### 참가할 아트마켓의 선별 예술적 비전과 비즈니스 성격에 맞는 전략 거점 파악

경향에 맞는 아트마켓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작품의 경향에 맞는 아트마켓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작품의 포트폴리오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경향성을 띤 축제 기획자나 극장 관계자, 제작자, 에이전시 등의 기획자의 참관 여부와 비즈니스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인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아트마켓 참가 목표 설정

아트마켓 참가의 일차 목표는 해외진출 교섭이다. 마켓개최국가, 권역 또는 마켓에 다수 참가하는 델리게이트(프리젠터, 프로모터)들의 성향과 관심사를 분석 한 후 가능한 해외진출 교섭 건수에 대한 가상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작과 유통의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마켓에서 공연계약 성사뿐만 아니라 세계공연예술시장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작품 창작 아이디어의 교류와 예술가의 개발, 레지던시, 국제공동제작 등의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젝트 개발 등의 보다 다각화된 목표 설정을 통해 단체와 작품의 예술적 비전과 비즈니스 목표를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트마켓 참가 방식 결정

해외진출을 위한 아트마켓의 참가 방식은 일반 개인 참가, 부스 등록, 쇼케이스 참가까지 다양한 통로가 있으며 단체의 해외진출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참가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개인참가

개인참가 등록을 통해 아트마켓에 참가할 수 있으며, 쇼케이스 관람 및 부스 전시 참관, 학술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게 된다. 몇몇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공식 등록 외 별도 등록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부스참가

해외유통을 위해 작품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는 부스전시를 신청하여 참가할 수 있다. 부스 및 부대설비 임대를 위하여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몇몇 마켓의 경우는 자국의 예술단체를 대상으로만 부스 전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 쇼케이스 참가

보다 적극적으로 마켓에 참가하고자 하는 단체는 마켓 내 쇼케이스에 참가신청할 수 있다. 쇼케이스는 마켓 주최 국가의 작품을 프로모션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국의 예술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으나, 해외작품 쇼케이스를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마켓도 있다.

### Tip.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마켓참가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해외진출지원과 관련하여 국내공연예술단체 및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마켓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진출을 위한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아트마켓 참가를 고려중이라면, 센터의 마켓참가지원에 주목하자.

#### ● 개인참가자 지원

해외공연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단체 및 기획사의 기획자가 해외 마켓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항공비, 숙박비, 등록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 쇼케이스 지원

국내공연예술단체가 해외마켓의 쇼케이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항공비, 화물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마켓에 단체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서 선정되는 단체를 지원한다.(마켓별 상이)

#### ● 홍보마케팅 지원

한국공연예술의 해외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권역별 주요 마켓에 참가, 부스를 운영한다. 개인 및 쇼케이스 마켓참가지원 선정단체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스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켓 참가 전 주요 프리젠테이션에게 발송하는 사전 뉴스레터 발송 시에도 참가 내용이 함께 삽입된다.



## 마켓 참가 전

마켓 참가의 방식을 개인참가, 부스전시, 쇼케이스 참가 등으로 결정하고 나면, 참가 등록을 위한 등록일정, 등록비용, 등록과정은 모두 다르다. 때문에 참가방식을 결정하고 나면 그에 따라 참가하고자 하는 마켓의 각종 등록일정 및 등록방식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등록은 보통 해당마켓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별도의 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m)을 지정한 이메일주소나 우편주소로 송부하여 등록을 접수하게 된다.

### 참가 등록 시기 및 등록비용

마켓 등록 기간과 등록비용은 참가방식에 따라 다르다. 쇼케이스를 작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미리 선정하는 경우, 행사 1년 전부터 최소 5~6개월 전에 쇼케이스 참가 등록 지원을 마감한다. 부스의 참가 신청은 행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년 전부터 보통 2~3개월 전에 등록을 마감한다.

델리게이트로 개인참가하는 경우 등록 시기별로 등록비가 차이가 있다. 또한 아트마켓으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아 항공료와 숙박을 지원 받는 경우, 숙박만 지원 받는 경우, 등록비만 지원 받는 경우, 모두 자비로 참가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등록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적어도 6개월~3개월 전부터 계획에 착수하고 지원 및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Tip. 참가 등록 및 신청시 필요한 정보!

##### ● 개인참가자 일반적인 기입사항

Country(국적) / Sur Name(성) / Given Name(이름) / Position(직위) / rganization(기관명)  
/ E-Mail(전자우편) / Address(주소) / URL(홈페이지) / Profile(경력) / Photo(사진)

##### ● 부스전시 일반적인 체크사항

부스사이즈 / 등록 일정 / 등록비 / 마켓 제공사항(기본 부스 및 기타 테이블과 의자 등) / 부스 디스플레이를 위한 세부 규약과 추가비용 / 현지 디스플레이 업체 / 제출서류(등록신청서)

##### ● 쇼케이스 일반적인 체크사항

쇼케이스 공모 여부 / 등록 일정 / 선정 방식 / 공연 시간(전막공연/축약공연) / 무대 및 기술관련 사항 / 제출서류(등록신청서/작품소개서/아티스트경력서/DVD/CD/홍보패키지(언론보도자료, 리뷰 등) / 테크니컬 라이더 등)

#### Tip. 조기등록(Early-bird) 할인!

조기등록을 하면 등록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숙박예약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마켓에서 지정한 공식 호텔의 경우 할인가를 적용받아 예약할 수 있지만, 할인시기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 마켓 등록자 리서치 작업

**마켓에 참가하는 델리게이트에 대한 사전 리서치 작업이 마켓 참가의 성과를 좌우한다.**

델리게이트(Delegate List)를 분석해 보면, 연극, 무용, 음악 등의 장르별 구분, 국가별 구분, 또는 축제 기획자, 극장 관계자, 제작사, 에이전시 등 직종별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경향에 따라 전통, 컨템포러리 등의 예술적 경향성, 작품의 관객층에 따라 커뮤니티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등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 자료 검색 및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각 해당 인물의 소속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향후 추진예정사업 및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술단체 사전 홍보 및 델리게이트 사전 접촉

마켓 등록자 리서치 과정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단체나 작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부합하는 예비 파트너를 선정하고, 제안 내용을 구상하여, 마켓 실시 이전에 반드시 사전 접촉하고, 마켓 기간 중의 미팅 계획을 수립한다. 마켓 기간 중 국제진출을 위한 전략상, 반드시 만나야 할 참가자가 있다면, 사전 접촉을 통해 미팅 약속을 확보할 수도 있다. 마켓 실시 이전에 사전 접촉을 하지 않으면, 마켓에 참가하더라도 해당 예비 파트너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담보할 수 없다. 델리게이트(Delegate) 등록 마감일이 이루어지면, 확보한 마켓 참가자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단체 홍보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쇼케이스 참가자인 경우, 쇼케이스 작품에 대한 사전 인포메이션 및 쇼케이스 장소와 시간 공지, 부스 참가자인 경우 부스 위치와 단체 소개 등을 마켓 개최 이전에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기도 한다.

### Tip. 더아프로(TheApro)에서 국제교류동향과 인물정보를 사전에 열람하자!

더아프로(<http://www.theapro.kr>)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제공하는 공연예술 국제교류를 위한 전문사이트로, 공연예술 국제교류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국문과 영문으로 나뉘어서 제공되며, 영문사이트에서는 한국의 공연예술계 소식이 영어로 번역되어 서비스된다.

특히 마켓에 참가하기 전 더아프로의 동향, 집중조명, 피플, 뉴스, 라이브러리 등을 통해 만나고자 하는 권역의 시장 동향, 극장, 축제 그리고 델리게이트 정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다.

## [예시] 마켓 참가 사진 뉴스레터

**Meet Korean Performing Arts at CINARS 2012**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KAMS) PAMS MCST

---

**Booth Exhibition**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KAMS) at stand no. 201  
**Nov.15(Thu) ~ 17(Sat), Fairmont The Queen Elizabeth-Grand Salon**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KAMS), established in 2006, is a non-profit public body under the umbrella of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th aims to develop a supporting system for more efficient arts management and to provide arts organizations with multifaceted assistance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exchang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formation and consulting.

**Website:** [www.koarts.or.kr](http://www.koarts.or.kr) / [www.pams.or.kr](http://www.pams.or.kr)  
**Contact to:** **Meek Arts** | [meek@koarts.or.kr](mailto:meek@koarts.or.kr) / +82 (0) 709 2275  
**Yena KAMS** | [yena@koarts.or.kr](mailto:yena@koarts.or.kr) / +82 (0) 709 2270

---

**Korean Delegates**

○ AsiaNow

**AsiaNow** is a company founded in 2005 to creatively develop, produce and present innovative and exciting Asian contemporary physical theatre, dance and interdisciplinary arts. The company runs international artist's residency and workshop programs, does international co-productions and is also strongly involved in creative development, consultation and performing arts management.

**Website:** [www.asianow.kr](http://www.asianow.kr)  
**Contact to:** **HeeJin LEE, International Tour Manager** | [asianowproducer@gmail.com](mailto:asianowproducer@gmail.com)  
**SungM KIM, Creative Producer** | [asianow70@gmail.com](mailto:asianow70@gmail.com)

## [예시] 부스 및 쇼케이스 안내 사전 메일

Dear Ms. Jenny Wilson,

This is Alice Lee writing on behalf of OMO Company, which is one of the Presenting Performing Arts Company. We are pleased to invite you to our new performance. As a showcase for PAMS, we are going to present our new production "Sharp Focus" at AC Theater from February 16th. We are strongly hoping to give public performance and participate in festivals overseas in the future, so please come see our performance and contact us if you have any interest. If you are able to attend the show, please provide us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as soon as possible so we will reserve tickets for you.

**PAMS 2013 : Visit us @ Booth L636**

**PAMS 2013 : Showcase @ OMO Company presents[Sharp Focus]**

- **Performance Schedule** 16 Feb (Wed) 19:30pm (\* PAMS Choice)
- **Venue** AC Theater
- **Performance Length** 1 hour

We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plan to attend our performance as it will be an excellent showcase for PAMS 2013.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AC Theater!

Best Regards,  
 Alice Lee

## 제안서와 포트폴리오 준비

초청제안을 위한 실무교섭 자료는 공연예술단체의 제안서와 프로덕션을 소개하는 포트폴리오이다. 이 자료들을 주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쇼 케이스와 부스에서의 홍보 및 실무교섭시 사용한다.

### 제안서 · 포트폴리오 포함 내용

- 공연단체 소개
- 공연작품 소개
- 공연리뷰 : 국내 · 외 리뷰
- 공연규모 : 공연출연 및 스태프 인원
- 무대기술 요구사항(기술명세서) : 무대 사이즈와 특별한 기술 사항, 특별히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없다면 추후 협의 중 기술 세부 사항을 제공
- 제작진 및 출연진 약력
- 공연단체 경력 : 해외공연 경력 기술
- 공연 사진자료 : 300dpi 의 큰 사이즈의 사진 파일
- 공연 영상자료 : Full-version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영문자료

### Tip. 홍보자료 만들기

"홍보나 마케팅 자료에 반드시 문화적 컨텍스트, 배경을 짚어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홍보자료들을 보면 '혁신했다(Reno vate), 전형적이지 않다(untypical)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 문화나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피상적으로 들린다. 어떤 전통과 문화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당 단체를, 그리고 단체가 말하는 스타일과 혁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진도 중요하다. 지역 매체에 노출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Week1 y@예술경영 제99호, (2010. 10. 21) <내가 감동할 때 관객들도 감동한다 '빌 브래건 링컨센터 퍼블릭 프로그래밍 디렉터, 글로벌 페스티벌 공동 프로듀서 인터뷰 (김소연) > 中

#### ● 작품 소개

작품 소개에서는 작품 의도, 제작 의도, 작품의 스토리나 구성, 관객 및 기자에게 어필 가능한 예술적 측면 및 주요 감상 포인트 등을 기재한다. 이 때, 추상적인 단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간결하게 표현한다. 작품의 원작자, 연출자 혹은 안무가, 배우, 스태프 등을 기재한다. 작품이 이미 공연된 경우, 중요 공연장 및 축제를 중심으로 공연경력 및 공연 관련 수상 경력 등을 통해 작품의 객관적 인지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작품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반드시 추가한다. 공연시간, 출연자 수, 원작, 연출가, 무용가, 공연가능 시기, 적절한 공연장 크기, 작품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답할 수 있는 담당자 정보 등도 기재한다.

#### ● 단체 소개 및 단체 프로필

단체소개는 단체의 역사와 단체가 추구하는 예술세계를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공연했던 주요 작품의 공연 경력과 수상 경력을 언급한다. 미사여구를 최대한 절제하고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공연 경력과 수상 경력을 중심으로 단체 연혁을 기재하는 요약본과 단체의 세부 소개 및 전체 공연

경력을 기재하는 단체소개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작성한다. 공연 경력의 기재 시에는 최근 공연 순으로 정리하고 연도, 참가행사명 및 공연장소를 반드시 명기한다. 작품 소개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성향과 예술적 비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보는 부분이므로 성실하고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단체를 이끄는 예술감독이나 안무가 등 인지도 있는 주요 인물을 기재함으로써, 단체 자체에 대한 신뢰도 및 예술적 완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때, 단체에서 활동하는 주요 예술감독, 연출가, 안무가, 지휘자 등에 프로필을 별도로 준비한다.

#### ● 기술명세서(테크니컬 라이더)

무대 크기나 규모, 무대 특성, 조명플랜, 음향장비, 그 외 무대장치에 필요한 사항, 무대 셋업 소요 시간 및 리허설 소요시간 등 공연 기획자가 작품이 자신들의 공연장에 적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이 때,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예술적 성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은 반드시 별도로 명기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와 계획 수립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 상연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영문으로 상세 매뉴얼화 함으로써 공연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진행을 가속화 시키는 한편, 공연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

#### ● 동영상 및 음원

공연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체 버전과 5~10분 분량의 편집 버전을 제작하며, 음악 장르의 경우 CD와 함께 제작한다. 동영상은 인쇄물로 제작한 작품소개 자료와 함께 배포하여 작품에 대한 정보를 극대화 하는 한편, 작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 공연예술은 시간과 공간의 현상성이 생명이므로, 영상이나 DVD가 공연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동영상 제작 시에는 단순 촬영 기록본으로 DVD나 CD를 제작할 것이 아니라, 작품의 예술적 비전과 홍보마케팅 방향성을 염두하여 신중히 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작품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관을 제공할 수 있다. 편집 버전(Editing Version)인 경우 작품의 성격과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중심으로 10분 내외가 적절하다. 그러나 편집 기술을 너무 현란하게 사용하면 작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핵심적인 장면을 잘 선택하여 편집하도록 한다. 이외에 작품에 이미 관심을 가진 공연기획자를 중심으로 공연을 기록한 전체 동영상(Full Version)은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한다.

#### ● 작품 및 멤버 사진

공연작품의 특성을 한 눈에 보여주는 사진으로 고화질 이미지(300dpi이상)를 준비한다. 작품의 이미지는 기획자로 하여금 관객과의 소통 방식, 작품의 예술적 비전 등을 총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작품이 지향하는 예술적 방향이나 비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제작하고 선택하도록 한다.

#### ● 기사 스크랩 자료

평상시 국내외 언론에 노출된 단체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되, 가급적 지명도 있는 언론매체(가능하다면 영문 매체)의 기사의 원본 복사물이나 스캔 이미지 파일, 기사 중 헤드라인 또는 단체 소개 관련한 주요 기사 인용구를 준비한다. 작품별로 기사나 평론 자료를 스크랩하며, 최신의 것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오래된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 언론에 소개된 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복사하여 해외 관계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국내 관객 및 언론에 호응을 얻은 작품이라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인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언론에 소개된 글을 압축한 인용구를 작품 소개 글의 시작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 영문 보도자료

작품의 기본 성격 및 해외 공연 정보 등을 중심으로 작품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도 자료 형식으로 작성한다. 인쇄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시의적으로 홍보할 만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이미 공연된 작품의 경우, 홍보할 만한 공연티켓 판매 소식 등을 정리하여 작품과 관련된 인쇄물과 함께 공식 보도자료 형식으로 작성하여 홍보물에 포함시킨다.

● 인쇄물 : 작품 카달로그

단체에서 제작한 여러 작품을 종합적으로 나열하여 구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단체의 경우,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면, 작품 사진이 충분히 포함된 작품 프로그램집 제작이 효과적이다. 단체의 예술적 성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함께, 단체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읽는 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작품 사진 선택, 작품 안내 작성에 있어 작품의 포인트 및 특징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인쇄물 : 간단한 영문 리플릿

홍보패킷이나 작품 카달로그를 제작할 예산이 부족하거나 간단한 영문 리플릿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를 대비한다.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경우, 3-4단 접지 형태의 리플릿으로 제작한다. 패킷보다 운반 및 배포가 용이하여, 해외 홍보에 유용하다.

● 홍보 패킷

세일즈 또는 프레스 패킷이라고도 불리는데, 위의 자료들 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하나의 패킷에 넣어 배포하면 좋다. 종이 폴더, 종이봉투, 비닐 봉투 등 다양한 패키지로 활용 가능하며, 이는 공연기획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로 제작된다. 공연기획자가 받아 보기 편하며, 운반하기 편하도록 실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특히 너무 무겁게 제작되거나 운반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델리게이트가 1차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재선택할 때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패킷을 자체 제작하기 힘든 경우 기성품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자체 제작된 패킷보다 인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 [참조] 기술명세서 구성요소

### 1. General Description(일반정보)

- 공연개요, 담당자 기본정보, 크레딧, 작업시간 등

### 2. Stage(무대 관련 요구사항)

- 무대형태 /무대 사이즈/ 극장 리깅 시스템(Rigging System)
- 극장막(Drapery) 및 장치막(Drop)관련 : 색상, 개수, 주름(fullness) 여부
- 무대 바닥 관련 사항 : 출연자의 출입에 관한 사항
- 기타 무대 관련 요구 사항 : 무용 고무판(Dance floor) 색상, 사양 등
- 특별 관리 요구사항 : 물, 불, 특수 화학물질 등 국가별 취급 허가 사항

### 3. Scenery(무대 세트 관련 요구사항)

- 무대 세트의 위치, 크기, 재질 등
- 상부기계 사용 계획(Line set schedule)

Line set No. (상부기계번호)	Fly piece (세트)	Distance from (~부터의 거리)	Trims (공연 중 작동여부)	비고

- 무대 도면 및 이미지 첨부

### 4. Props(무대 소품 관련 요구 사항)

- 필요소품 및 개수 등

### 5. Lighting(조명 관련 요구사항)

- General(일반 사항) : 필요한 전원 용량, 전압, 플러그 형태, 정상작동 가능한 케이블, 어댑터, 플러그 등의 요구 사항을 기재
- Lighting Console(조명 콘솔 관련) : 모델명, 사양, 개수 위치 등
- Dimming and distribution(디머 관련 사항)
- Units(조명기) : 조명기 사양, 개수, 액세서리 등
- Colors(컬러) : 필드 관련 사항
- 젤 : 종류, 색상, 개수 등
- 고보 : 패턴 종류, 개수 등
- Special effect(특수효과) : Hazer 등
- Miscellaneous(기타 사항) : 케이블, 컬러 스크롤러 등
- Lighting plan(조명 계획도)

### 6. 음향(Audio)

- General(일반 사항) / Console(콘솔 관련 사항) / Processing Play back(재생기관련)
- Amplifiers(앰프 관련 사항) / Speakers(스피커 관련 사항)
- Microphones(마이크 관련 사항) / Misc cable and adaptors /기타

### 7.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s) : Intercom System(인터컴 관련 사항)

- 인터컴 : 종류, 수량, 위치, 유선, 무선, 헤드셋, 핸드프리, 스피커타입 등
- 큐라이트 수량, 위치, 무전기 분장실, SM Desk, ORC Pit , 무대 위 등의 비디오 및 오디오 모니터, CCTV 사항

### 8. 영상(Video System)

- General(일반 사항) / Input and Preview / 영상관련 장비의 목록 및 타입(NTSC, PAL) / 스크린이나 모니터의 종류 위치 / Control and Monitor(모니터 관련) / Distribution(분배 관련) / Projection(프로젝터 관련) / Misc(기타 사항)

**9. 의상(Wardrobe)**

· General(일반 사항) / 의상실 개수, 보유 물품 항목 등 의상 스케치 혹은 이미지

**10. Dress Room, Production Office(분장실, 사무실)**

· 최소 분장실의 크기별 개수 / 분장실의 냉 온수, 샤워실(온수), 전기, 수건, 비누, 락커룸, 귀중품보관 등 / 스태프를 위한 분장실 / 인터넷, 팩스 / 프로덕션 사무실 국제전화, 인터넷, 팩스, 복사, 회의탁자 등

**11. 스태프 요구사항**

· Theatre crew

필요 분야	Load in 공연 중	장비 반입시 Load out	Show call 장비 반출 시

· 무대 상하부 조작인원, 조명, 무대, 의상, 가발, 분장실 도우미, 세탁, 안내인, 보디가드 등  
· 요구사항 : 성실성, 전문성, 복장(검은옷), 출퇴근시간, 해고권한 등 필요한 요구사항을 요청

**12. 기타**

- Security(안전보장) / 장비 분실 도난의 책임 /출연자 및 스태프의 안전보장
- 안전한 주차 공간의 확보 / Hospitality(케이타링) / 공연 전 후 필요한 야식 및 간식, 분장실의 음료수 및 커피, 차 등 / Photography / Recording(사진 촬영/녹화 관련 사항)
- 공연의 사진촬영 및 리허설 촬영 및 상업성 촬영에 관한 규정 / Wardrobe / hair(의상, 헤어 관련) /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드라이 크리닝 등에 관한 요구사항
- Required documents(필요 서류)
- 주최측 명단
- 공연장 스태프 명단
- 공연장 정보(도면 및 장비 목록)
- 공연장 주변 및 숙소 주변 정보 : 안마사, 병원, 물리치료사, 슈퍼마켓, 옷가게, 전기재료상, 건축 자재, 약국, 주유소 등

[출처]〈서울아트마켓1차 워크숍 2006〉 자료집,(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필자] 최웅집 〈공연예술 국제교류 기술 행정 -테크니컬 리더 작성법〉



## 마켓 기간 중

### 부스를 통한 전시 및 판촉활동(Booth)

#### 부스전시 참가

단체와 프로덕션에 대한 상세 홍보와 교섭이 가능한 인력이 운영에 참여해야 하며, 멜리게이트들의 부스 방문 목적은 단순관람, 정보수집, 실제 교섭 미팅 등 다양하므로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당장의 교섭성과가 없더라도 방문객 DB 구축과 대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은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와 자산이 되며, 마켓에서의 홍보는 단순히 단체와 자신의 프로덕션만을 판촉하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 공연예술계와 세계 공연계의 흐름에 대한 풍요로운 토론과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

멜리게이트가 부스에 체류하는 시간은 넉넉지 않으므로, 가능한 멜리게이트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질문과 상담의 내용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사전 접촉을 통해 모든 미팅은 가능한 부스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주체 기관 및 단체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다른 부스 방문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도록 한다. 국가관으로 운영되는 부스의 경우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기금기관 및 주요 프리젠티가 부스에 상주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체 국가의 주요한 공연예술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부스전시 참관

부스를 별도 임대하지 않았다면, 타 부스 방문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역관으로 운영되는 부스의 경우 그 국가 및 지역의 주요한 공연예술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부스내에서 마켓에 참가한 국가 및 지역의 프리젠티와의 미팅이 가능하다.

#### Tip. 부스에서의 미팅과 네트워크!

- 홍보물, 영상,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부스전시 공간을 특색 있게 꾸미고, 홍보물과 함께 기념품을 배포해도 좋다.
- 부스 방문자의 비표를 살펴보고, 예술단체 및 유관관계가 없는 참가자의 경우 간단한 공연소개 리플릿을, 작품구매에 관심이 있는 프리젠티, 프로모터라면 홍보패킷을 전달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상대가 원하는 작품 스타일을 파악한다.
- 작품에 깊은 관심을 보일 경우에는 준비해둔 전체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 기금적 부스 방문자들에게 명함을 요청하고, 주요 방문자는 상담내용을 기록해두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좋다.
- 부스전시 중에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홍보물만 배포하지 말고, 반드시 작품과 투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공연단체 관계자(예술 감독, 해외담당 매니저 등)가 상주하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 쇼케이스(Showcase)

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견본공연의 형태로 주로 30분 미만의 공연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쇼케이스는 축약형, 미완성 공연이라기보다는 짧은 시간동안 공연 전막의 주요 컨셉과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구성과 연출(설명 삽입 등)이 가해지는, 별도의 완성된 공연이라 할 수 있다.

쇼케이스에 방문한 참가자들에게 공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사장 내에 포트폴리오를 비치하고, 초청 실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담당자가 로비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쇼케이스 공연 이후 전막 공연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다면, 쇼케이스에 흥미를 지니고 있는 마켓 참가자들에게 공연 일정을 안내하여 공연 전막을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초청 실무 교섭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거나 단체의 네트워크에 중요한 해외 파트너일 경우, 쇼케이스에 관심을 보였다면 이후 공연에 초청하여 실무교섭을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2013 WOMEX 슝 쇼케이스  
photo by Jacob Crawford



2013 WOMEX 짐바나이 쇼케이스  
photo by Jacob Crawford

### Tip. 해외아트마켓에서의 쇼케이스 공연과 해외 투어 연결하기!

쇼케이스는 1회 공연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30분의 쇼케이스만을 위해 항공비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자칫 소모적일 수 있다. 쇼케이스에 선정되었다면 참가마켓 전후 기간으로 동일 국가(권역) 내 투어를 조직하는 것이 좋다. 역으로 사전에 계획된 해외투어일정이 마켓기간과 동일하다면, 적극적으로 마켓에 참가 하는 것이 좋다.

### Tip. 서울아트마켓의 오프 쇼케이스 팸스링크 PAMS Link 적극 활용하기!

해외프린터가 많이 참석하는 서울아트마켓의 공식쇼케이스(팸스 초이스)에 선정되지 못했다면, 동일한 기간에 공연을 기획해 오프 쇼케이스로 참가할 수 있다. 짧은 쇼케이스에 비해, 전막 공연이라는 장점을 심분 활용할 수 있다.

## 강연회, 세미나 및 네트워크 행사

마켓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강연회와 세미나 등이 함께 개최된다.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로 자국 공연예술계에 대한 폭넓은 소개와 공연예술 국제교류와 관련한 현안문제를 다룬다. 공연예술의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단체와 예술가의 경우, 국제교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아트마켓을 부스전시 및 쇼케이스의 장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마켓은 네트워크의 장으로 잠재적 협력자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따라서 소규모의 라운드 테이블, 런치미팅, 칵테일 파티, 클로징파티 등 다양한 네트워크 이벤트가 있다. 사전 예약이 필수인 경우가 많은데, 망설이지 말고 모든 네트워킹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를 탐색하며,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파티에서 만난 주요한 프리젠터가 있다면, 대화의 마지막 순간에 개별 미팅을 잡도록 하자.

### Tip. 학술행사장에서 프리젠터를 만나라!

수백 명이 참가하는 마켓에서 정작 만나고 싶은 프리젠터의 얼굴 한번 스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학술행사장으로 가라. 주요한 초청인사 및 자국의 주요 공연예술 관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Tip. 네트워킹 이벤트에서는 가벼운 대화를!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명함부터 건네는 건 NO!

부스에서의 면담이 직접적인 비즈니스 관련 대화라면, 네트워킹 이벤트에서는 직접적인 업무 이야기 보다는 서로의 기관 및 단체, 관심사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 개별미팅 Business Meeting

쇼케이스와 부스 관람, 정보교환을 통한 인적 교류 활동을 마친 참가자들 사이에서 호감을 가진 공연단체와 작품에 대한 초청 가능성을 타진하는 교섭 초기 단계의 미팅이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보다 구체적인 초청 조건과 작품 및 단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해외 참가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전에 자료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초청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 즉 초청의사를 표한 단체에 관한 정보, 신인도, 초청 목적 등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해외 페스티벌 및 아트센터의 경우도 상업예술과는 달리, 전액 초청의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공연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예산범위(공공지원금 확보를 통한 항공료 자비부담 등)를 알려 주어 초청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 Tip.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

마켓에서의 최우선의 목표는 만나고 싶은 프리젠테어, 프로듀서와의 개별 미팅이지만, 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원하는 만남이 수월하지는 않다. 사전 접촉을 통해 미팅을 조차하지 못했다면, 마켓에서 운영하는 참가자들 간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우편박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관련부스(국가관)에 개인 연락처와 함께 미팅용건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아트마켓 홍보물을 활용한 단체홍보 Advertising Material

### 아트마켓 프로그램 지면 광고

마켓 초청자, 등록자 전원에게 배포되는 프로그램 광고를 통한 홍보로서 마켓과 동일시기, 인접시기에 공연이 개최되는 단체일 경우 아트마켓 프로그램 광고 지면을 통한 단체/공연 홍보가 가능하다.

### 마켓 Material 활용

마켓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가방, 메모지 등)에 단체 광고로서 마켓측은 행사재원 확보, 단체측은 독점적 광고 기회를 취득 할 수 있다.



2013 WOMEX 프로그램 내  
Jazzahead! 지면 광고



2004 캐나다 CINARS  
Cantabile 마켓 기념품 광고

## 마켓 행사 후

### DB 정리 및 마켓 참가 리포트 작성

아트마켓에서 만난 수많은 인사의 명함을 자신의 단체의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DB화 한다. 이 때, 마켓 참가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마켓에서 미팅을 가진 주요 인사와의 면담 내용, 관련 정보 등을 기록하여 DB와 함께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Follow up 편지

초청 교섭 초기단계에서 성과를 이룬 단체들은 실질적인 초청 교섭 실무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마켓 종료 후, 작품과 만남에 대한 환기를 위해 Follow up 편지를 보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품의 초청에 대한 의사의 확인, 작품 정보에 대한 교류, 아티스트의 특성과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작품을 소개하고 초청을 성사할 수 있도록 한다.

### 후속 홍보작업

마켓에서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단체 활동을 홍보한다.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초청 제안이나 다른 프로젝트를 모색할 수 있다. 단체의 신작 발표 시, 해외 투어 시, 공연일정과 장소를 명기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예시] Follow up 편지

Dear Mr. Hondo Yasuyo,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It was very nice to meet you in PAMS 2013.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dance of our showcase "New Dance is yours" in PAMS Choice on Oct, 12, 2013. I hope you enjoyed the work, and Thank you for requesting further information of our new piece. Here is some of information of this new piece including tour schedule, and I'm sending you the sample of DVDs for your reference.

"New Dance is yours" has been performed abroad in 10 cities in 7 countries so far. (US, Brazil, Chile, Russia, Japan, Taiwan, France) The work was created from the study to focus on the physicality and the power and energy through social approach. Music was commissioned and original score was composed by Vietnamese-French An Ton-That, and it was inspired by Korean history in modern times. The piece was invited to perform in Moscow in June 2013, and It have plan to visiting Tokyo next year in June. So, If you have further inquiry or ideas what would you like to do with this piece, please let us know, we can discuss further on. By the way, I could not hear when is your festival for next year? Please let me know, I also would like to know about your festival further.

Thank you so much,

Sincerely yours,  
Kim, Chuls

## '마켓과 축제를 적극 활용하라'

### ▲ 국내 지원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라

해외의 마켓이나 페스티벌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언어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성과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내 단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용이 할 것이다. (예: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등)

### ▲ 단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라

세계무대로의 진출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영문 자료(보도자료, 사진, 동영상 또는 음반, 테크니컬 라이더 등)이다. 해외의 기획자 또는 극장 담당자들은 1차적으로 위와 같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 1차 자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에 국내 지원기관 또는 해외 에이전트의 추천이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훨씬 크다. 단체의 영문자료는 단체의 첫 인상과 같다. 국내에서 활동할 때에도 가능하다면한·영문 혼용으로 팜플릿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

### ▲ 국제교류를 위한 담당자의 훈련 또는 섭외

해외의 기획자 또는 극장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첫째는 영어가 기본이며, 둘째는 기본적인 대인 친화력이고, 세 번째는 적극성이라고 하겠다. 외국인들도 감정이 있고 영어에도 예의를 갖춘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영어의 수준은 간단한 생활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영문 이메일을 주고받는 정도면 일단 충분하다. 그 이상은 필요시에 그때그때 학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 ▲ 기술팀 선정의 중요성

해외진출도 쉽지는 않지만, 첫 진출 이후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때 부딪히는 것이 바로 기술팀과의 원활한 협조 부분이다. 대부분의 해외 공연은 단체의 기술팀과 현지 극장 기술팀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기술 사항 점검 및 상호 협조로써 그 실마가 시작된다. 하지만 단체의 기술팀이 현지 극장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고, 게다가 상호협조가 아니라 불평, 불만으로 일국진다면 어떻게 만든 해외공연의 기회는 무산되거나 단발성으로 그칠 수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비밀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 ▲ 해외 에이전트의 발굴 및 활용

올림픽과 월드컵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해외의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양의 작은 나라로 밖에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섭외하여 단체를 홍보하고 기회를 만들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숲 안에 있으면 숲의 크기나 형태를 제대로 볼 수 없다.”

##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월드뮤직 단체를 위한 축제 감독/진출단체의 Tips

### 국내 축제 및 마켓을 적극 활용하라

해외마켓 및 축제에 참가하는 것만이 해외시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국내에 소개되는 해외 월드뮤직 관계자들 및 아티스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 감각을 구축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축제 참가는 해외에서 단체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정현(울산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 해외진출 목적 설정을 명확히 하라

단체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목적없는 무분별한 진출은 단체와 음악활동에 대한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단체 스스로의 냉정하고도 분석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계획된 해외진출만이 장기적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인재진(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예술감독)

### 진출하고자 하는 마켓, 축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는 기본

마켓 참가 및 해외 시장 개발은 시각적, 경제적 출혈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출혈을 최소화하는 사전 조사는 해외진출의 기본이라 하겠다. 또한 마켓의 인지도와 규모가 개별 참가단체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음악)의 성격에 따라 접근 가능한 마켓과 진출 대상 축제는 다를 수 있다. 각 단체가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과오를 줄이기 위한 단체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서미숙(문화마을 들소리 기획실장)



월드뮤직 잡지 2009년 3월호 Songline에 수록된 한국음악 소개 글

[출처] Weekly@예술경영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발행) 제17호(2009년 2월 26일)  
(리뷰 : 월드뮤직 국제교류 아카데미) '마켓과 축제를 적극 활용하라' 일부발췌  
[필자] 남대건 온스테이지 대표 및 한국창작음악연구회 '다의' 운영위원장

※ 각 마켓 정보는 2013년 12월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회 일정 외 세부 정보들은 변동가능하므로, 반드시 각 행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예술마켓 | 아시아/오세아니아

### 서울아트마켓

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 호주아트마켓

APAM, 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

### 상하이국제공연예술제

SPAF, Shanghai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 인도네시아 아트마켓

Indonesia Performing Arts Mart

### 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

TPAMiY, 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

### 컨버스아시아스

ConversAsians

### 중국 국제 문화 산업 박람회

ICIF, China International Cultural Industry Fair

### 후아산 리빙 아트 페스티벌

Huashan Living Arts Festival

## 서울아트마켓

PAMS(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 개최지

대한민국 서울

### 개최시기

매년 10월

### 창설년도

2005년

### 일정

2014년 10월 7일~11일

### 장소

국립극장 외

### 주최

서울아트마켓추진위원회

### 주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중앙극장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협력(2013년 기준)

서울세계무용축제

서울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전국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퍼스티벌봄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한국공연예술센터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예술회관련협회

대만공연예술연합

말레이시아 국립문화예술부

말레이시아 공연예술 에이전시

스페인 무역청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센터 외

서울아트마켓(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은 공연예술의 활발한 창작과 제작, 합리적인 유통과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해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개최하는 공연예술아트마켓이다. 우수공연예술작품의 PAMS Choice 쇼케이스, 단체와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전시, 학술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의 공연예술 흐름과 경향을 소개함은 물론 세계공연예술시장과 흐름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창작과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프로그램

#### 포커스세션

권역 포커스(2014년 아시아 중화권)

#### 쇼케이스

팜스초이스 PAMS Choice / 해외 쇼케이스

#### 부스전시

국내외 공연예술단체 및 기관 참가

#### 학술행사

포커스세션/리운드테이블

#### 네트워킹

LIP(국제협력파트너찾기)/스피드데이팅/팜스나이트

#### 부대행사

개막식 및 개막 리셉션, 폐막식 및 폐막 리셉션

### 규모

(2013년 기준)

#### 쇼케이스/부스

15개 공식쇼케이스 / 88개 단체 부스참가

#### 참가자

1,766명(51개국/해외 324명/국내1,442명)

### 참가방법

#### 개인참가

구분	조기등록(8월)	일반등록(9~10월)	현장등록(행사중)
개인(전일)	50,000원	70,000원	100,000원
개인(일일)	해당없음		
단체(전일)	8월말부터	30,000원	해당없음

### 참가방법

#### 부스등록

등록일정	사이즈	등록비	개인(전일)
매년8월	2*2(M)	300,000원내외	2인 등록비 포함

### Contact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교육동 12층  
 +82-2-708-2275/6/8  
 pams@pams.or.kr

참가방법	쇼케이스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방문접수는 날짜지정)
공모기간	매년 3월~4월경
등록비	없음
제출서류	지원신청서(4부)
(우편접수)	공연동영상, 음원 파일(CD 또는 DVD)(각4부) 지원신청서 전자파일 및 사진파일(3~5장)(각1부) 공연 프로그램, 기사, 리뷰 등 사업성과 자료(각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각1부)
선정방	PAMS Choice 선정위원회 10편 내외 선정
결과발표	매년 4월경(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 서울아트마켓 개최 현황(2008년~2013년)

구분	2008(4회)	2009(5회)	2010(6회)	2011(7회)	2012(8회)	2013(9회)
행사기간	10.7-10 4일간	10.12-16 5일간	10.11-15일 5일간	10.10-14일 5일간	10.8-12일 5일간	10.7-11 5일간
행사장소	세종문화회관 명동아트센터 KT아트홀	국립극장 남산예술센터	국립극장 국립극단	국립극장 국립극단	국립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세종문화회관 국립극단 국립극장
PAMS Choice 선정작수	16	15	13	13	13	10
Booth참가수	78	85	84	87	89	86
총 참가자수	총1,840명	총1,505명	총1,576명	총1,623명	총1,641명	총1,766명
국내 참가자수	1,696명	1,359명	1,381명	1,359명	1,418명	1,442명
해외 참가자수 (국가수)	144명 (42개국)	146명 (44개국)	195명 (56개국)	264명 (57개국)	223명 (53개국)	324명 (50개국)
PAMS Choice 선정작품 해외진출건수	78건 (2005-2008 선정작품 76개)	106건 (2005-2009 선정작품 91개)	110건 (2005-2010 선정작품 104개)	116건 (2005-2011 선정작품 117개)	125건 (2005-2012 선정작품 130개)	성과집계중 (2005-2012 선정작품 140개)
포커스권역	중남미	북미	노르딕	아시아	동유럽	아시아

**개최지**

호주 브리즈번

**개최시기**

씩수년 2월경

**창설년도**

1994년

**일정**

2014년 2월 18일~22일

**장소**

브리즈번 파워하우스

퀸슬랜드 공연예술 센터

쥬디스라이트 현대예술센터 등

**주최**

호주예술위원회

브리즈번 파워하우스

**후원**

브리즈번시의회

**협력**

퀸슬랜드 현대예술센터(QPAC)

쥬디스라이트 현대예술센터

퀸슬랜드 예술부

퀸슬랜드 관광부 등

## 호주아트마켓

APAM(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

호주아트마켓은 현대공연예술의 생동감 넘치는 문화, 에너지,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반영하는 호주지역의 주목할 만한 국제 공연예술 견본 시장이다. 1회(1994)와 2회(1996)까지는 호주 연극제(National Festival of Australian Theatre)와 연계하여 행정수도인 캔버라(Canberra)에서 열렸으나 1998년부터 장소를 아델레이드로 옮겨 개최하고 있으며, 아델레이드 뱅크 페스티벌, 프린지페스티벌과 연계함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2014년부터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옮겨가 2014, 2016, 2018년 행사를 브리즈번 파워하우스(Brisbane Powrhouse)의 주최로 개최하게 되었다. 개최지를 옮기면서 그 지역의 쥬디스 라이트 현대 예술 센터, 퀸슬랜드 테크놀로지 대학, 퀸슬랜드 콘서바토orium 등과 함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것이다. 더욱이 2014년 행사는 브리즈번 파워하우스의 세계 극장 페스티벌과 함께 열려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예술작품들이 공연된다.

**프로그램**

(2014년 기준)

25min excerpt	25분의 단막 공연
쇼케이스	호주 단체 쇼케이스 공연
교류행사	키노트 발제, 아침, 점심-세션, 라운드테이블 등
특별공연	야외에서의 대형 공연, 하이브리드 공연작품 등
Pitch	새 프로젝트와 작품 개발단계 프리젠테이션

**규모**

(2012년 기준)

Spotlight	33개 작품
Searchlight	Work-in-Progress 작품 프리젠테이션, 17개 프로젝트
부스전시	22개
참가자	37개국 약 620명(해외 200명, 호주 420명)

**참가방법****개인참가**

(2013년 기준)

구분	조기등록	일반등록	비고
개인(전일)	AUD\$650	AUD\$790	* 모든 등록비는 10% GST포함 * 2013년 5월경 등록정보오픈
1인추가(같은소속)	AUD\$590	해당없음	

**Contact**

PO Box 364  
 New Farm QLD 4005  
 Australia  
 Tel. + 61-7-3358-8622  
 Fax. + 61-7-3358-8611

**참가방법**      **부스등록**      (2013년 기준)

신청마감      2013년 9월 20일  
 선정발표      2013년 10월 1일

구분	조기등록	비고	
2.5x2m 부스	AUD\$660	등록비 미포함	※10% GST포함 ※ 2013년 6월경 등록정보오픈
이동식(mobile)부스의 형태로 두 개, 세 개로 결합 가능			

**참가방법**      **쇼케이스(Spotlight)**      (2013년 기준)

※호주 및 뉴질랜드팀만 참가가능

신청마감      2013년 7월 22일  
 작품선정      무용, 하이브리드, 대형/사이트스페이스/야외 공연  
 연극, 음악극/오페라/카바레  
 피지컬 씨어터/써커스/인형극 등

**참가방법**      피치세션(Searchlight)

신청마감      2013년 7월 22일

## 상하이국제공연예술제

SPAF(Shanghai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 개최지

중국 상하이

### 개최시기

매년 10월

### 창설년도

1999년

### 일정(2013년 기준)

2013년 10월 18일~11월 18일

### 장소

중국 상하이 문화광장

### 주관

상하이 정부

중국 문화부

### Contact

24th Floor, Yihai Building,  
No.211 Kangding Road,  
Shanghai

+ 86-21-6272-0346

info@artsbird.com

www.artsbird.com

상하이국제공연예술축제(SPAF, Shanghai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는 중국에서는 유일한 종합 예술 국제 페스티벌이다. 1999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얼마 전 14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그 동안 클래식하면서도 혁신적인, 훌륭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음악, 춤, 연극 등의 다양한 예술 공연뿐만이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의 장기 자랑 대회, 일일 연설 등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또한 주의할 만한 점이다. 이 축제의 주요 테마는 바로 толеранс(tolerance)와 다양성인데, 5개 대륙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참가국을 제각각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중국 국제 공연예술 축제는 점점 더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중국의 국제문화 교류의 상징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 프로그램

(2013년 기준)

#### 쇼케이스

음악, 춤, 드라마 등 55개의 공연

#### 네트워크

세계연극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atre Research, IFTR/FRIT) 컨퍼런스

### 규모

(2013년 기준)

#### 쇼케이스

1회째부터 총 1,000여개의 공연

#### 네트워크

9개 포럼

#### 참가자

1회째부터 총 1,800만명의 관객 동원

### 참가방법

#### 개인참가/부스등록

### 신청방법

공식 사이트(www.artsbird.com)에서 각 공연의 티켓 개별 구매

### 참가방법

#### 쇼케이스

축제 사무국에서 별도 초청

## 인도네시아 아트마켓

Indonesia Performing Arts Mart

### 개최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개최시기

출수년 11월

### 창설년도

2003년

### 일정

2013년 11월 11~16일

### 장소

코뮤니타스 살리하라

현대예술센터

### 주최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

### 주관

인도네시아아트마켓조직위원회

### 후원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

인도네시아 아트마켓은 인도네시아 자국의 풍부한 공연예술전통과 표현 방식을 선보이고자 하는 국제마켓이다. 인도네시아는 2만 2천만이 넘는 인구, 931여개의 부족, 731개의 지역언어가 혼재된 다문화국가이다. 이러한 다양한 자연과 문화 환경은 각각 고유한 전통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트마켓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창설년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로 개최했고, 2007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트마켓은 다변하고 있는 세계공연예술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아시아 공연예술의 핵심지역(Melting Pot)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컨퍼런스, 토론, 워크숍, 쇼케이스 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트마켓의 실행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he Republic of Indonesia)이다.

### 프로그램

공연 쇼케이스 / 리셉션  
학술행사 - 세미나, 워크숍

규모 (2009년 기준)

쇼케이스/부스 40편 쇼케이스

참가자 200여명

참가방법 개인참가 (2013년 기준)

구분	일반등록	비고
Full(숙박포함)	\$ 500.00	※2013년 7월~신청
Daily	\$ 200.00	

### 참가방법

쇼케이스  
※사무국으로 직접 등록하며 개별문의  
※쇼케이스 등록 이후 실행위원회에서 직접 선정

### Contact

+62-822-11431796

irossarts@outlook.com

www.ipam-indonesia.org

## 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

TPAMIY(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

### 개최지

일본 요코하마

### 개최시기

매년 2월

### 창설년도

1995년

### 일정

2014년 2월 8일~16일

### 장소

요코하마창조센터(YCC)

가나가와예술극장

뱅크아트1929(Bank Art 1929)

요코하마Red Brick Warehouse

### 주관

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실행위원회

### 공동주최

재팬파운데이션

가나가와 예술재단

일본센터(Japan Center)

요코하마예술재단

PARC

### Contact

+81-3-5724-4660

info@parc-jc.org

www.tpam.or.jp

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TPAMIY, 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는 1995년 1회 개최를 시작한 이래 올해 14회를 맞는 일본의 국제 공연예술마켓이다. 매년 9월에 개최되다가 2006년에 휴지기를 가진 후 2007년부터 3월 개최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 개최지를 동경에서 요코하마로 이동, 전통적 성격의 마켓보다는 만남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두고, 명칭을 동경아트마켓(TPAM)에서 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 TPAMIY(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로 변경하였다. TPAM Direction이라는 형태로 초청 프로듀서가 선정한 일본 작품의 쇼케이스와 인터내셔널 쇼케이스, 세미나, 비주얼 프리젠테이션, 부스 전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2006년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부스전시, 쇼케이스, 프리젠테이션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프로그램

TPAM디렉션	공식쇼케이스, 3인의 선임 프로듀서에 의한 선정
TPAM디렉션플러스	TPAM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외 민간/정부기관들이 주최하는 쇼케이스
TPAM쇼케이스	비공식쇼케이스, 자유참가작
해외쇼케이스	해외단체 초청 쇼케이스, TPAM 사무국 선정
네트워킹프로그램	TPAM Exchange/Speed Networking/Discussion/Ice-Breakers/Joint Project

### 규모

(2013년 기준)

TPAM디렉션	7편 일본 작품
해외쇼케이스	6편(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부스	24개 부스 운영
참가자	총 259명 참가(32개국, 일본 205명/해외 54명)

### 참가방법 개인참가

구분	조기등록	일반등록
개인(전일)	¥7,500	¥9,000
개인(일일)	해당없음	¥3,500



###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서울아트마켓은 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구, 동경아트마켓)와 함께 아시아 공연예술의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2006년 쇼케이스, 프리젠테이션, 홍보부스 등 프로그램 교환 협약(MOU)을 체결하여, PAMS Choice에 선정된 작품의 쇼케이스 및 한일 프리젠테이션의 교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구분	년도	단체명	작품명
	2007년	안애순무용단	원(안무 : 안애순)
	2008년	극단 물리	레이디맥베스(연출 : 한태숙)
쇼케이스	2009년	공연창작집단 뛰다	하루이야기(연출 : 배요섭)
	2011년	정금형	유압진동기(연출 : 정금형)
	2012년	극단 놀땅	1등 28번지, 차숙이네(연출 : 최진아)

## 컨버스아시아스

ConversAsians

### 개최지

싱가포르

### 개최시기

작수년 5월

### 창설년도

2001년

※창설시명칭:아시안아트마트

### 일정

2014년 5월 중(미정)

### 장소

에스플러네이드

### 주최/주관

에스플러네이드

### 후원

OSIM

### 협력

싱가포르아트페스티벌 외

### Contact

Esplanade

Theatres on the Bay

+65-68288377

conversasians

@esplanade.com

www.conversasians.com.sg

컨버스아시아스(ConverAsians)는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가 주최하여 2001년부터 개최된 아시안 아트 마트(Asian Arts Mart, AAM)가 컨버스아시아스(ConversAsians)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그 형태를 바꿔 개최하는 행사이다. 컨버스아시아스(ConverAsians)는 기존의 '작품'을 사고파는 마켓의 형태를 벗어나, 예술가를 중심으로 창작의 근본에서부터 그들의 작업여정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 예술창작과정에 대한 교환과 작품 시연, 마스터클래스, 인터뷰, 토론 등을 주축으로 저명한 예술가들의 혁신적 작업과 독특한 스타일의 예술적 특징을 살피고, 현재 아시아 공연예술 시장에 대해 조망한다. 2012년 컨버스아시아스는 첫 개최 후 10년 차를 맞아 인류의 가치들을 축복하는 의미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공연계에서의 협력과 공동창작에 대한 논의를 했다.

### 프로그램

마스터클래스	초청아티스트 작품세계 및 방법론에 공유/워크숍
예술가와의 대화	작품 소개, 예술가의 창작세계에 대한 질문과 조망
공연 및 토론	작품 쇼케이스, 작품세계설명, 모더레이터와 대화/토론
프리젠테이션	초청아티스트 관련 작품/활동/계획 프리젠테이션

### 규모

아티스트	11명의 아시아권 저명 아티스트	(2012년 기준)
참가자	총 245명(총 16개국)	(2010년 기준)

### 참가방법

#### 개인참가

(2010년 기준)

등록방법	구분	조기등록	일반등록
온라인등록	개인(전일)	S\$670	S\$810
	개인(하루)	해당없음	S\$270

### 참가방법

#### 쇼케이스(Spotlight)

※ ConversAsians 사무국에서 별도 초청

##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작품명
쇼케이스	2007년	들소리	
		극단노들	
	2005년	푸잔국악그룹 그림	
		와유	한국-인도네시아 합작
	2007년	트러스트무용단	
		공연창작집단 뛰다	
		노리단	
	2010년	극단 물리	싱가포르아트페스티벌 초청

## 중국 국제 문화 산업 박람회

ICIF(China International Cultural Industry Fair)

### 개최지

중국 셴젠

### 개최시기

매년 5월

### 창설년도

2004년

### 일정

2014년 5월 15일~19일

### 장소

셴젠 컨벤션 전시 센터

### 주관

중국 문화부

중국 통상부

중국 국제 무역 증진 의회

광둥시 정부 외

### Contact

10/F Olympic Building,

Economic Daily

Road,Futian District,

Shenzhen, P.R. China

Post Code: 518034

+86-755-83522416

icif518@gmail.com

www.cnicif.com

중국 국제 문화 산업 박람회(ICIF, China International Cultural Industry Fair)는 중국의 유일한 국내, 국외적으로 문화 산업을 통합하여 다루는 박람회로, 지금까지 9회의 세션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박람회는 유럽, 아시아,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아트 파리(Art Paris), 브로드웨이(Broadway), 캐나다 태양의 서커스(Canada Cirque du Soleil) 등이 ICIF에 참여해 유익한 결과를 거뒀다. 2014년에 10회를 맞이 하여 2000여명의 전시자들이 참여하는 10년간 가장 눈에 띄는 행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0회 ICIF는 9개의 주제로 나뉘어진 전시 홀들에서 문화 산업 홀,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홀, 영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게임 홀 등 특성화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 프로모션을 위한 컨퍼런스, 그리고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해외의 다양한 바이어들을 초대한다.

### 프로그램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의 부스 전시

**포럼** 문화산업 포럼

**네트워킹** 매치메이킹 등

**시상식**

### 규모

(2013년 기준)

**참가자** 전시자 2000여명  
16,347명의 해외 참가자 93개국

### 참가방법

#### 개인참가

**신청방법** 해외 참가일 경우 해외 바이어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주최측에서 검토  
ICIF에게서 해외바이어 자격을 확정 받고 난 후 ICIF의 초대장을 신청할 수 있음

#### 부스 참가

9개의 홀 구역에 따라 가격 상이 사이트 참고  
1000~15000RMB/m<sup>2</sup>

## 후아산 리빙 아트 페스티벌

Huashan Living Arts Festival

### 개최지

대만 후아산

### 개최시기

매년 10월

### 창설년도

2010년

### 일정

2013년 10월 6일~11월 4일

### 장소

후아산 1914 크레이티브 파크

### 주최

대만 공연예술연합회  
(Performing Arts Alliance)

### 후원

대만 문화부

### Contact

www.hlaf.com.tw  
www.paap.org.tw  
+88-6227071336

후아산 리빙 아트 페스티벌은 2010년을 시작으로 대만 공연예술의 국제교류 플랫폼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후아산 리빙 아트 페스티벌은 옛 양조장 건물을 타이페이 최대의 문화 공원으로 조성한 후아산 1914 크레이티브 파크를 중심으로 공연, 전시, 야외 공연, 포럼, 쇼케이스, 워크숍 등 대만 국내외 공연예술 관계자들을 위한 행사 외에도 일반 관객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프로그램

#### 공연

센터 스테이지  
뉴 옛지 스테이지 야외 공연  
발표회

#### 전시

전시 행사

#### 포럼

공연예술 포럼  
워크숍 등

### 규모

(2012년 기준)

#### 공연

27개 예술단체 및 아티스트

#### 참가자

누적 350,000여명  
1,30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

### 참가방법

#### 개인참가

#### 신청방법

온라인 등록 및 일정별 참가 방식 상이

#### 등록비

무료~공연 티켓 가격으로 예매

## 리뷰 [해외동향] 2013 요코하마 공연예술미팅(TPAMIY)

### TPAMIY의 젊은 실험

TPAMIY(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는 1995년에 설립된 국제공연예술 아트마켓이다. 도쿄에서 시작된 'Tokyo Performing Arts Market'이 2011년 요코하마로 이전하였고 이름도 '마켓'에서 '미팅'으로 바뀌면서 '요코하마 공연예술미팅'으로 개칭했지만 브랜드화된 TPAM이라는 명칭은 유지해오고 있다.

금년 TPAM 기간은 약 10여일이었다(2013. 2. 9~17) 40여개의 공연과 쇼케이스, 그 외에도 거의 매일 컨퍼런스, 스피치미팅, 토론과 회의가 개최되었다. TPAM은 그동안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견본시'의 명분을 버리고 정보교환, 상호학습,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는 '미팅'이라는 간판으로 바뀌 달았다. 그 전과 프로그램 구조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 같으면 상당한 규모로 치러졌을 부스전시는 30여개 단체로 축소되어 행사 말미에 오픈되었고, 그 대신 다양한 만남과 회의, 그리고 공연관람과 작가와의 대화가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민간전문가들의 교류에 국고가 꾸준히 지원된다는 점이 반가웠다. 참가자들은 공연작품을 사고파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을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친구를 만들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연동향을 파악하기에 분주해 보였다.



YCC(요코하마 창작센터, Yokohama Creativity Center)

이번 TPAM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두 가지인데, 2011년부터 진행된 일본 공연예술계의 세대교체의 징후가 뚜렷해졌다는 점과, 후쿠시마 지진이 예술계에 미친 진폭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이었다. 2011년 요코하마로 개최도시를 옮기면서 쇼케이스 중심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에 'TPAM Direc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보통 3명의 젊은 프로듀서나 감독을 선임해 자신이 제작하거나 선택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다. 이들이 선정한 10개의 작품이 TPAM 프로그램의 상당 페이지를 채우는데, 무엇보다도 이 젊은 제작자들의

뚜렷한 개성과 성향이 드러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서울아트마켓에서도 'PAMS Choic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분야별로 그 해의 작품을 선정해 쇼케이스를 보여주지만 이는 추천된 작품을 심사해서 선별하는 쪽이다. TPAM Direction에서 선정된 디렉터들은 스스로 작품선택에 대한 주도권과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독특했다.

주로 30대의 젊은 감독이 선임되어 몇 개의 작품을 선택하거나 제작하는데 이를 통해 '젊은 감독'들이 성장하고 육성된다는 점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는 젊은 연출가나 안무가와 같은 예술가를 육성하는 것과는 다르다. 특정분야의 예술가가 아니라 다원적이고 탈장르화 되어가는 컨템포러리 공연을 발굴해 내고 제작할 수 있는 프로듀서들, 나아가서는 미래의 일본 공연예술계의 주요한 예술감독들이 성장하

는 인큐베이티언 것이다. 3명의 디렉터 중 유카코 오구라는 3년 째, 카츠히로 오히라는 2년째 이 디렉선 프로그램을 맡아오고 있다. 이들은 3작품 정도를 TPAM에서 올리고 있는데, 젊은 감독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쏟을 수 있는 규모로 보였다. 수십 개의 작품을 올리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페스티벌이나 지역주민의 대중적 기호에 맞춰야 하는 아트센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예술적 지향과 능력을 집중하고 발휘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다 보니 선택한 작품의 경향도 아주 뚜렷해지고 있다고 한다. 유카코 오구라의 경우 전통적 무대공간을 벗어난 형식의 퍼포먼스, 텍스트의 완결된 서사보다는 우연적이고 사건성을 강조하는 <추가 커튼콜(Extra Curtain Call)>, <악어는 어디에?(Where is crocodile?)>과 같은 작품을 선보였다. 카츠히로 오히라는 장소특정성을 기억의 이미지와 접목시키는 <보 야 트 오 수 루(Bo Ya tt O Su Ru)>라는 작품과 관객 한명을 전신마비환자로 초대해 체험케 하며 관객성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차이트게버(Zeitgeber)>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뱅크아트 스튜디오 2층에서 열린 개막식



TPAM Exchange-스피드 네트워킹

## 신진 공연예술 그룹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예술

젊은 그룹들의 약진은 'ON-PAM(Open Network for Performing Arts Management)'이라는 네트워크 모임에서도 뚜렷했다. 일본 전국에서 공연페스티벌이나 제작을 하는 디렉터 13명이 주축이 되어 발족식과 공식미팅을 TPAM의 공식행사로 개최했다. 오픈네트워크라는 용어는 리더가 있는 조직구조나 일시적으로 조직되어 프로젝트가 끝나면 흩어지는 컨소시엄을 지양하고 서로 다른 활동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멤버들이 모여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이루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명칭이다. 회원들은 매년 회원비를 내고 일 년에 몇 번의 정기위원회를 열고 활동결과를 리포트로 낸다. 위원회 구성은 문화정책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커뮤니티기반활동 협력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회의 세 가지 성격이 구성원들의 경향과 특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우선 민간에서 현장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향의 그룹이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활동을 해온 이들이니 만큼 서로의 분야에 관용성이 높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감한 예술적 화제 보다는 정책적 사안들을 공유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예술과 관련된 극장법, 예술위원회, 펀딩시스템 더 나아가 예술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이슈에 참여적으로 활약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이라는 넓은 영역이 과연 정체성이 다른 이들의 결속력에 충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점과 정책개발이라는 사안이 어떻게 구성원간의 구체적인 논의대상이 될 것인가가 이 그룹을 지속하는 데에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이 구성원들의 차별점은 국제네트워크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토에서 국제공연예술 페스티벌을 맡고 있는 'Kyoto Experiment' 프로그램 디렉터인 유스케 하시모토, 한국의 공연창작집단 뛰다와 몇 년째 교류활동을 해온 'Bird Theater'의 케이 사이토, 탈장르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듀서 집단인 'Precog'의 아카네 나카무라 등이 주축 멤버다. 이들은 주요 국제페스티벌과 공연예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이를 오픈네트워크의 멤버들과 공유하면서 일본공연예술의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다. 외국어 능력도 대부분 갖추고 있어 이미 TPAM에서도 대부분의 주요한 회의와 미팅들을 주도해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활동이 활발해져 가고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로 후쿠시마 지진이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심지어 오픈네트워크의 출범의 계기에도 각자의 개별적인 작업에 매몰되지 말고 같이 모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해보자는 공감대가 배경에 있었다고 한다. 그 사회적인 역할이 네트워크 모임으로 이어지고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였다. 어느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징후가 포착되기는 했다.

[출처] Weekly@예술경영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발행) 제204호(2013년 3월 7일)

〈해외동향 : TPAM의 젊은 실현〉 일부발췌

[필자] 오세형 아시아문화개발원 콘텐츠총괄운영팀장



## 공연예술마켓 | 유럽

### **인터내셔널 탄츠메세**

Internationale Tanzmesse NRW

### **피라 타레가**

Fira Tàrrega

### **컴앤씨 : 카탈로니아국제공연예술마켓**

COME&SEE : Catal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 **바르셀로나 그렉 축제**

Festival Grec de Barcelona

### **아비뇽 오프 축제**

Festival d'Avignon Off

###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 **시비우 국제 연극제**

Sibiu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 인터내셔널 탄츠메세

Internationale Tanzmesse NRW

### 개최지

독일 뒤셀도르프

### 개최시기

작수년 8월

### 창설년도

1994년

### 일정

2014년 8월 27일~30일

### 장소

tanzhaus nrw

Capitol Theater

Dusseldorfer Schauspielhaus

Fabrik Heeder

### 주최

인터내셔널 탄츠메세

### 주관

NRW landesbuero Tanz

### 협력

Landeshauptstadt-

Dusseldorf Kulturamt

Kunststiftung NRW 외

13개 기관

인터내셔널 탄츠메세(Internationale Tanzmesse NRW)는 1994년 독일 에센시에서 개최된 격년제 국제무용플랫폼이다. 1994년 첫 개최 당시 탄츠메세(Tanzmesse NRW)라는 이름으로 독일 무용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나, 두 번째 행사인 1997년부터 '국제무용플랫폼'을 표방하며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다. 2002년부터 독일 뒤셀도르프로 개최지를 변경하였다. 현재 독일을 포함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국제무용행사 중 하나이다. 쇼케이스, 부스 전시, 컨퍼런스 등이 개최되며, 전 세계 현대 무용 예술 관련 전문가, 기획자, 극장 예술 감독, 안무자, 컴퍼니 등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회가 이루어진다. 전막공연형식의 퍼포먼스(Performance) 프로그램과 작품 개발 단계 및 과정 중인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컨셉을 선보일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Open Studio)를 통해 공동제작, 협업 등의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6개 단체, 2004년 2개 단체, 2008년 1개 단체가 공식 쇼케이스에 참가한 바 있다.

### 프로그램

**Showcase** 전막공연, 극장 및 특정 공간 공연, 해외투어 가능작품

**Openstudio** 개발단계를 포함, 과정작품(Work-in-process)포함

**부스전시** 부스신청 공연단체 및 기관 등 부스전시

**워크숍** 안무가워크숍/무용수워크숍/일반인워크숍 등

**규모** (2012년 기준)

**쇼케이스** 60여개 댄스 컴퍼니를 공연

**부스전시** 500여개 회사들 130개 부스

**참가자** 1,413명(50여개국)

### 참가방법 개인참가

구분	조기등록(5월~8월)	일반등록
방문객(Visitor)	85유로	90유로

**Contact**

Internationale  
Tanzmesse NRW  
Im MediaPark 7  
D-50670  
Cologne, Germany  
+49-221-226-5752  
info@tanzmesse-nrw.com  
www.tanzmesse-nrw.com

**참가방법****부스전시**

(2012년 기준)

구분	크기	정보부스	세일즈부스
일반형	4sqm	530유로	630유로
중형	10sqm	1,380유로	1,580유로
대형	20sqm	2,590유로	3,420유로
특대형	1sqm당	175유로	185유로

**참가방법**

쇼케이스

**제출서류**

Performance 신청서, 공연 DVD, 테크니컬 라이더

Openstudio 신청서, 이전작업 DVD

프로그램 계획안

**제출기한**

2012년 9월 30일

**선정방식**

인터내셔널 탄츠메세 디렉터 내부심사

**지원내역**

※공연료(Fee) 없음, 선정시 부스전시 참가필수

※여행경비(Travel expenses)에 한해 사전 접수시에

100유로까지 지원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작품명
쇼케이스	2008	이선아	Performing Dream
		오마이 라이프 무브먼트씨어터	Transforming view
		최경실 무용단	Give me Water

## 피라 타레가

Fira Tàrraga

### 개최지

스페인 타레가

### 개최시기

매년 9월

### 창설년도

2007년 창설(마켓)

1981년 창설(축제)

### 일정

2014년 9월 11일~14일

### 장소

스페인 타레가시 전역

### 주관

타레가 시의회

카탈루니아 문화부

### 협력

cofae

### 후원

MORITZ

### Contact

+34-973-310-854

art@firatarrega.com

www.firatarrega.cat

피라 타레가(Fira Tàrraga)는 축제와 마켓을 겸하는 형태의 행사로, 신체극 및 거리극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1981년 창설되어 매년 9월에 스페인 타레가에서 개최되는 거리예술축제를 기반으로, 2007년부터 “Creative Land”라는 슬로건 하에 마켓이 시작되었다. 스페인, 유럽, 중남미 800여명의 프로모터가 행사에 참가한다. 2009년의 경우 4일의 행사기간 동안 23,000여석에 달하는 티켓 중 78%(약 18,000)가 유료로 판매되었으며, 프로모션용 티켓을 포함하면 전체 객석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정도의 대규모 축제이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인근에 캠프장이 오픈되어 장사진을 이루기도 한다. 피라 타레가는 거리극 중심의 특성에 걸맞게 전통적인 극장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작품을 발굴한다. 60개 내외의 공식 쇼케이스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스페인 및 유럽 초연작에 선정 가산점이 주어진다. 기획안 심사를 통한 공동 프로그래밍 편성도 가능하다. Creation labs 경연 신청을 받아 매해의 극단, 아티스트들을 선정한다.

### 프로그램

쇼케이스 공식쇼케이스(거리극 축제의 전막공연으로 공연)

부스전시 La Lotja!

### 규모

(2010년 기준)

쇼케이스 60여개(스페인 및 전세계 지역 쇼케이스 선정 작품)

참가자 800여명(300개 단체)

### 참가방법

### 개인참가

제출기한	2014년 1월 15일	지원신청비	없음
제출서류	작품기획안, DVD, 테크니컬 라이더, 연락처정보		
선정방식	운영위원회 및 예술감독 내부심사		

###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작품명
쇼케이스	2011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	자화상
	2012	극단 몸풀	리어카, 뒤집어지다

## 컴앤씨 : 카탈로니아국제공연예술마켓

COME&SEE(Catal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 개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 개회시기

작수년 7월

### 창설년도

2006년

### 일정

2014년 7월 중

### 장소

카탈로니아 국립극장(TNC)

### 주최

카탈로니아 극장연합회(CIATRE)

### 주관

아포르타다(aPortada)

### 후원

바르셀로나시의회 문화부  
(ICUB)

라몬 룰 인스티튜트(RLI)  
(Ramon Lull Institute)

### 협력

카탈란 문화산업인스티튜트(ICIC)

### Contact

Muntaner 246 1r 08021  
Barcelona Spain  
+34-933-18-26-50  
aportada@aportada.com  
http://www.comeandsee.cat

컴앤씨(COME&SEE, Catal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는 연극, 서커스, 무용, 인형극 축제이면서, 인터내셔널 프로그래머와 프로듀서를 위해 선보이는 새로운 스타일의 쇼케이스 행사이다. 컴앤씨는 카탈로니아(Catalonia) 지역의 연극, 서커스, 무용, 인형극을 중심으로 우수공연예술을 선보이고, 카탈로니아의 우수 공연예술의 세계 진출과 카탈로니아의 공연예술분야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CIATRE(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 Theatre Companies from Catalonia)가 2006년 창설하였다. 2006년의 성공적인 개최후, 2008년부터는 연극, 서커스, 인형극 뿐만 아니라 무용 분야도 포괄하여 개최했다. 컴앤씨는 2010년 카탈로니아국제공연예술마켓(Catal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이라는 명칭으로 선보였다. 2012년에는 바르셀로나 주요 공연장에서 GREC 2012, 바르셀로나 극장 페스티벌과 함께 개최되어 다양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공연했다.

### 프로그램

쇼케이스	공식쇼케이스
네트워킹	1:1 개별미팅 프로그램(Face to Face Meetings)
프레젠테이션	프로덕션, 프로젝트 발표

### 규모

(2010년 기준)

쇼케이스	30여개/30분 쇼케이스 공연
참가자	총 237명 (해외 95명, 스페인 142명(카탈로니아 지역 참가자 132명 포함))

### 참가방법

#### 개인참가

- ※온라인 참가등록
- ※2014년 참가 일정 미공지

### 참가방법

#### 쇼케이스

- ※카탈로니아 지역의 쇼케이스만 가능

## 바르셀로나 그렉 축제

Festival Grec de Barcelona

### 개최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 개최시기

매년 7~8월

### 창설년도

1976년

### 일정

2014년 7~8월

### 장소

문주위 산 위 야외극장을 비롯한 바르셀로나 전역

### 주최

바르셀로나 시청

바르셀로나 그렉 축제(Festival Grec de Barcelona)는 일년 내내 다양한 행사들이 끊이지 않는 바르셀로나에서도 도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축제로서, 연극, 춤, 노래, 오페라, 서커스 등 다양한 예술 공연들을 볼 수 있다. 그 이름을 축제의 중심지인 그렉 야외극장(Theatre Grec)에서부터 따 온 그렉 축제는 197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그렉 축제에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뛰어난 스페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축제에서 공연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하는 것과 스페인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그 해 가장 뛰어난 공연들을 선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그렉 축제는 스페인에서는 해외작품들의 주요 쇼케이스로서 최근 몇년간 영국, 일본,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타국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들을 소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2009년부터는 유럽의 다른 예술 축제들과 협력하여 아비뇽 축제, 아테네-에피다우로스 축제와 이스탄불 국제 영화제와 카드모스 네트워크(Kadmos Network)를 결성해 서로 정보 교환 등을 하고 있다.

### 프로그램

(2013년 기준)

#### 개막공연

소나르 국제음악축제(SÓNAR International Festival of Advanced Music and Multimedia Art)와의 합동 공연

#### 쇼케이스

연극(Theatre), 춤(Dance), 써커스(Circus), 음악(Music) 등

#### 컨퍼런스

세계연극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atre Research, IFTR/FRIT) 컨퍼런스

### 규모

#### 쇼케이스

58개 공식 쇼케이스

#### 컨퍼런스

16개 세션, 22개 그룹

#### 참가자

총 119,040명의 관람객

### Contact

Palau de la Virreina

Rambla, 99

Spain, Barcelona

www.bcn.cat/grec

@grecfestivalbcn

+33-316-10-00

### 참가방법

#### 개인참가

#### 신청방법

공식 사이트(www.bcn.cat/grec)에서 각 공연의 티켓 구매

### 참가방법

#### 쇼케이스

#### 신청방법

그렉 사무국에서 별도 초청

## 아비뇽 오프 축제

Festival d'Avignon Off

### 개최지

프랑스 아비뇽

### 개최시기

매년 7월

### 창설년도

1947년

### 일정

2013년 7월 8일 ~ 31일

### 장소

프랑스 아비뇽

### Contact

www.avignonleoff.com  
64, rue Thiers Bâtiment A  
84000 Avignon France  
+33-4-90-85-13-08

1947에 시작하여 매년 7월에 열린다. 정확한 일시는 매해 조금씩 달라진다. 공식적으로 아비뇽 축제라 불리는 아비뇽 오프 축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는 페스티벌로 같은 이름의 아비뇽 페스티벌 In이라는 축제와 구분되어진다.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이 두 축제는 같이 아비뇽 축제로 불리나 In은 축제 감독에 의해 선정되는데 반해, Off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 선택에 따라 다른 재미를 볼 수 있다. Off 페스티벌은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작품과 아티스트를 발굴하며 프랑스 및 유럽 내의 교류거점이 되는 장소이다. 공연, 전시, 토론, 미팅, 간담회 등으로 이루어진 부대 프로그램이 있으며, 장르 또한 현대창작극, 클래식연극, 원맨쇼코미디, 아동극, 무용 등 다양하다.

### 프로그램

공연 / 전시 / 토론 / 미팅 / 간담회

### 규모

(2012년 기준)

975개 공연단체, 1,161개의 공연작품, 104곳의 메뉴, 해외 25개국 참가, 프랑스 내 26개 지역

### 참가방법

#### 쇼케이스 참가방법

온라인 접수

### 참가방법

#### 쇼케이스

온라인 접수

※ 공연단체가 극장 대관 및 축제 프로그램 등록 진행

※ 아비뇽 오프 진출 매뉴얼

(재)예술경영진흥센터 자료실에서

「아비뇽 페스티벌 오프 A to Z」 열람 가능

###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작품명
쇼케이스	2011	그룹 포차	추격자
		판소리만들기 자	사천가

##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 개최지

영국 에든버러

### 개최시기

매년 8월

### 창설년도

1947년

### 일정

2014년 8월 1일~25일

### 장소

에든버러 전역

### 주최

프린지 축제 위원회

올해 67회를 맞이하는 유럽 최대 공연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The Edinburgh Festival Fringe)은 세계 각국의 프로모터 및 극장 관계자가 모여드는 국제적인 축제이자 아트마켓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매해 8월, 약 3주간 개최되며 유럽 및 세계 공연예술시장으로 향하는 전략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를 통해 해외 진출 활로 개척이 가능하다.

세계 2차대전의 여파 속에서 시작된 에든버러 축제는 '인류의 영혼이 꽃피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에든버러 축제는 세계의 문화 예술 축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손꼽혀 왔는데, 2006년부터 조나단 밀스 경(Sir Jonathan Mills)가 총책임자를 맡았으며, 2015년부터 퍼거스 리네한(Fergus Linehan)이 새롭게 축제를 이끌게 된다. 에든버러 축제의 독특한 점은 바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별다른 심사단이 없는 만큼 에든버러 축제는 다른 보수적인 예술제들에는 초청받지 못하는 실험적인 작품들을 보여주고 한다. 티켓을 끊고 봐야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작품들 외에도 수많은 거리 공연을 또한 유명한 볼거리이다.

### 프로그램

#### 개막공연

#### 페스티벌

쇼케이스, 프린지 오프닝 파티, Cavalcade(퍼레이드), 프린지 선데이, 프린지 어워드 등

### 규모

(2012년 기준)

#### 쇼케이스

총 2,695개의 공연작품, 42,096회 공연

#### 참가자

약 75,000명의 관객(1일 기준), 약22,000명의 아티스트, 60여개 국

### 참가방법

#### 개인참가

#### 신청방법

개별적으로 각 공연의 티켓 구매

### 참가방법

#### 쇼케이스

#### 신청방법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www.edfringe.com/participants)에서 신청



**Contact**

Edinburgh  
Festival Fringe  
180 High Street  
Edinburgh EH1 1QS  
United Kingdom  
+44-131-226-0026  
www.edfringe.com

**공모기간** 초기 등록 마감일 2014년 3월 19일  
일반 등록 마감일 2014년 4월 9일

**온라인접수처** participants@edfringe.com

**지원신청비** 295.20 유로(6회 이상의 공연, 할인가)  
393.60 유로(6회 이상은 공연, 정상가)  
204.00 유로(3회~5회 공연)  
96.00 유로(1~2회 공연)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작품명
쇼케이스	2007	하얀연극실험실	The Voice of Things- toilet paper
		사다리움직임연구소	보이책 Woyzeck
		들소리	Binari- Vitalising the Spirit
		SEO발레단	Somewhere Else
		(주)술강	스핀 오디세이 Spin Odyssey
	(주)세븐센스	피크닉 Break Out	
	2008	극단 초인	선녀와 나무꾼
		극단 POP	고물밴드 이야기... 어??
		극단 모시는사람들	동연
	2011	그룹 포차	추격자
판소리만들기 자		사천가	
2013	고래야		

## 시비우 국제 연극제

Sibiu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 개최지

루마니아 시비우

### 개최시기

매년 6월

### 창설년도

1994년

### 일정

2014년 6월 6일~15일

### 장소

루마니아 시비우 전역

### 주관

Radu Rock 국립극장

시비우 국제 연극제(Sibiu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은 관객 동원 면에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연례 아트마켓으로, 20년간 다양한 학술행사와 공연을 통해 창조적 환경과 공연예술의 인류학적 지평을 확장해나가는데 주력하며 진화해가고 있다. 루마니아 극장 제작 작품들을 비롯하여 거리 및 음악 공연도 함께 열리며, 플라멩코나 발레, 현대무용을 비롯한 댄스 뿐만 아니라 인형극, 조명예술, 판토마임, 페인팅 전시, 책 발간, 시각설비 등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매해 축제에서 새로운 연극에 대한 문집과 함께 주제 문집을 발간한다.

뿐만 아니라 시비우 국제 연극제는 축제 기간 중에 시비우 공연 예술 개방 시장(Sibiu Performing Arts Open Market, SPAOM)도 함께 개최한다. 이 SPAOM은 예술가들에게 자유로운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며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 프로그램

쇼케이스 극장/거리 공연, 공연예술마켓, 비주얼 아트 전시 등  
네트워크 10개 예술/연극학 단체 네트워킹 및 워크숍

### 규모

(2013년 기준)

쇼케이스 350개 행사, 참여국가 70여개  
네트워크 10개 그룹  
참가자 예술가 2,500여명, 관객 60,000여명(하루), 자원봉사자 200여명

### 참가방법

#### 개인참가

신청방법 사이트(www.eventim.ro)에서 각 공연의 티켓 구매

### 참가방법

#### 쇼케이스

신청방법 시비우 국제 연극제 초청 쇼케이스

### 참가방법

#### 자원봉사

신청방법 프로젝트 1200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

### 참가방법

#### 부스 참가

신청방법 SPAOM 공식 사이트에서 등록 양식에 맞춰 개별 신청  
www.sibiuartsmarket.ro

### Contact

Teatrul National Radu  
Stanca Sibiu  
Bvd. Corenliu  
Coposu nr. 2  
550245 Sibiu, România  
+40-269-210-092

##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작품명
쇼케이스	2012	사다리움직임연구소	보이책
	2013	공연창작집단 뒤다	하루이야기
		남정호	자화상, 틱주와 춤을

## 리뷰 [포커스] 스페인 피라 타레가(Fira Tàrraga)

### 피라 타레가에서 돈키호테를 만날 수 있을까?

####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는 남보다 멀다!

서울을 출발하여 파리에서 바르셀로나행 비행기로 갈아타자, 승객들은 태양에 그을린 갈색의 서양인들로 모두 바뀌어 있었다. 바르셀로나에서 버스를 타고 타레가를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태양 빛이 가득한 조금은 삭막한 지중해 기후의 들녘이 펼쳐졌다. 타레가는 바르셀로나 서쪽 약 120km 떨어진 카탈로니아주의 작은 지방도시다. 카탈로니아는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스페인 북동쪽의 자치주이며, 스페인어와 함께 이 지방의 고유 언어인 카탈루냐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어'는 스페인 통일을 주도한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 즉 마드리드의 언어이다. 이 두 언어는 어족은 같지만, 카탈루냐어를 스페인어의 방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발음뿐 아니라 단어의 쓰임 까지 달라,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면 서로 소통되지 않는다고 한다. 바스크 지방처럼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카탈로니아 지방도 독립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바르셀로나와 타레가의 가정집들에 걸려있는 카탈로니아 깃발에서 알 수 있었다.

#### 시골 마을은 축제의 공간으로

타레가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아직 조용한 시골마을이었다. 다음날 저녁, 개막 공연이 시내의 한 공원에서 열리며 축제가 시작되자, 관객들이 타레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축제기간동안 타레가의 골목들은 마치 이곳이 '명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파로 넘쳤다. 낮에는 타레가의 주민들과 밀리서 축제를 즐기러온 카탈로니아의 시민들이, 늦은 밤과 새벽은 젊은이들과 유럽을 유랑하는 히피들이 골목을 점령했다. 일상공간이 축제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을 목격하니 흥분이 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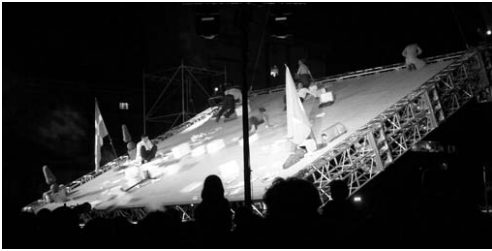


타레가의 축제기간의 밤

타레가에 도착하기 전, 피라 타레가는 전형적인 '거리예술축제'의 하나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사전에 프로그램북을 보며 관람계획을 세울 때, 'IN' 공연의 70% 이상이 유료 공연이었다. 유료공연 중 일부는 야외 가설극장이나 건물의 옥상 등 퍼블릭과 분리된 야외에서의 공연들이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작품이 실내의 극장 무대의

작품이었다. 실내 극장공연은 전형적인 연극 공연들이 많았지만, 서커스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과, 어느 현대공연예술축제에서 만날 것 같은 다원적인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실내 공연들은 70% 이상이 유료관객들로 채워진다고 한다. 거리에서 극장까지, 서커스에서 미디어 퍼포먼스까지 언뜻 백화점식 프로그래밍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다양함속에 프로그램들을 관통하는 방향은 보였다. 그 작품

이 어디서 왔건, 다수의 작품들 속에서 남부 유럽 특유의 '낙천성'과 인생에 대한 '긍정'과 '희망'이 보였다. 때로는 비통한 현실을 보여주지만, 인생을 비판하지 않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가 주는 'Sw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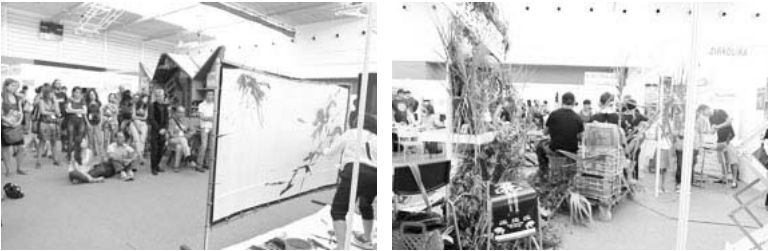


개막 공연

Sorrow'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극단 몸꼴의 '리어카 뒤집어지다'가 공식작품으로 성당 앞 광장에서 공연되었다. 거리의 서커스에 익숙한 관객들이 어찌 볼까 궁금했다. 관객들은 작품의 드라마가 충분히 전달됐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수많은 관객이 자리를 뜨지 않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진지하게 관람했다.

## 시민을 위한 축제, 전문가를 위한 마켓

지금까지는 한명의 여행자로서 또한 공연을 즐겨 찾는 열혈 관람객으로서 피라 타레가를 바라본 모습이다. 공연예술관계자로서 피라 타레가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피라 타레가는 1981년 축제로 시작되었고, 2007년부터 프로페셔널을 위한 마켓이 동반 개최되기 시작했다. 피라 타레가는 프로페셔널들에게 친절한 플랫폼이다. 프랑스의 거리극 축제와 비교하여 볼 때, 우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마켓행사를 통해 방문하는 프로페셔널들이 손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네트워크와 교섭을 위한 부스운영 및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가 제공된다.



피라 타레가의 부스 운영

국제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피라 타레가를 접근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우선은 해외의 작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입장과 국내의 작품을 이곳을 통해 진출시키려는 입장의 두 측면에서의 평가이다. 물론 전자의 측면은 이미 충족되었지만, 우리의 관심은 후자에 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시, 해외 진출을 전제로 한 교류의 측면에서 던진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스페인 공연예술계와 접촉이 가능한가?' 둘째 '유럽 거리예술계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남미를 포함한 범 스페인어권과 접촉이 가능한가?'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아직은 모름표라는 점, 아직은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축제로서 피라 타레가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구하는 축제이다. 동시에 개최되는 마켓 또한 시민들

에게 소구되는 작품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으려는 자들에게 맞춰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마켓의 '상품'의 콘텐츠를 결정하고, 이곳을 찾는 프로페셔널의 성향을 결정한다. 피라 타레가는 거리예술 중심의 마켓이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문제가 있다. 피라 타레가는 카탈로니아 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카탈로니아의 공연예술가들을 프로모션 하는 것이 마켓의 1차적인 목적이다. 거리예술에서 비인어 작품의



극단 몸풀의 <리어카 뒤집어치다>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많은 작품이 카탈루냐어로 공연되고,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 그리고 주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의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점이 있다. 정복전쟁의 시절 아메리카로 배가 출항하던 곳이 남부 세비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부 카스티야어가 남미 스페인어의 원류가 되었다고 한다.

## 경제위기로 활력을 잃다.

마켓 등락자 명단을 받아 들였을 때, 명단 속에 카탈로니아 이외 지역의 델리게이트가 매우 적다는 것에 놀랐다. 부스가 설치된 마켓에 마주앉아 작품을 문의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도 없었다. 물론 이는 지금 스페인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축제와 마켓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피라 타레가가 스페인과 남부유럽과 남미를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진출이라는 숙제와 교류라는 과제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마켓에 대한 요구수준을 매우 높게 두었을 때의 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다만 실체를 파악하고 이곳을 통해 어떤 교류가 가능한가를 판단하기위한 분석일 뿐이다. 공연예술에 있어 하나의 마켓이란 플랫폼이 광범위한 권역진출을 가능케 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 줄 수는 없다. 피라 타레가의 마켓 범위는 보는 각도에 따라 '한계'로 해석될 수도, 이 마켓이 갖는 '특수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적어도 한국의 거리 축제들이 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수입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직 우리의 거리예술 작품제작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페인의 돈키호테 같은 예술가와의 공동워크숍이나 공동작업의 파트너를 찾기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국제교류를 지나치게 '진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강박이 있지는 않았을까 한다. 문화의 개별성과 다양성이라는 밑거름을 통해 예술가들의 국제교류는 꽃피는 것일 테니 말이다. 타레가의 관객들이 낯선 몸풀의 공연을 진지하게 지켜봐준 것처럼, 피라 타레가가 우리의 거리예술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아직 조금 더 진지하게 여유를 갖고 지켜볼 일이다.

[출처] TheApro(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2년 9월 25일)  
 ([축제/마켓] 피라 타레가에서 돈키호테를 만날 수 있을까?)  
 [필자] 유병진 독립기획자

## 리뷰 [포커스] 시비우국제연극제(Sibiu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동유럽 최대의 공연예술축제

공연예술축제는 그 축제가 추구하는 목적(Mission)에 따라 프로그램과 축제가 열리는 도시 공간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진다. 아비뇽축제(Festival d'Avignon)는 현대 공연예술의 동시대 흐름을 보여 주기 위한 세계 초연의 작품이 올려지는 축제이고, 우리나라의 과천축제, 안산거리축제, 고양호수축제 등은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도시의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들이 열리는 동안, 도시는 예술로 새로운 생기로 가득 찬다. 이와 달리 홍콩국제예술제와 서울공연예술제 등은 극장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현대 공연예술작품을 관객과 만나게 하는 목적이 크므로, 도시공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예술의 흐름과 작품에 대한 지적 논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유럽, 루마니아의 작은 도시 시비우(Sibiu)에서 열리는 시비우국제연극제(Sibiu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는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 때문에 한마디로 축제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1996년 폭력(Violence)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올해로 19회를 맞은 시비우국제연극제는 동유럽을 대표하는 루마니아의 공연예술축제가 되었다. 매년 30개국 이상, 350개의 프로그램이 60여 개의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고, 예술 장르도 연극, 무용, 음악, 거리극, 영화, 전시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도서 발간, 워크숍, 비평가 학술모임, 그리고 동유럽 아트마켓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10일 동안 열리는 동유럽의 최대 공연예술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2012년 축제에 필자는 아시아나우(AsiaNow)와 작업하고 있는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보이책>(임도완 연출) 초청과 함께, 시비우공연예술아트마켓 컨퍼런스에서 세계아트마켓의 동향에 관한 발제로 참석하게 되어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 축제에 참석하였다.



시비우공연예술아트마켓



보이책 공연 커튼콜

시비우는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Bugarest)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역사적으로 독일과 헝가리의 지배를 받아 아직도 독일의 전통적 요소가 남아있다. 도시의 광장에 처음 들어 설 때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의 눈(Eye of The City)이라는 독특한 건축 외관으로 광장과 길가 쪽을 바라보는 각 건물의 지붕은 도시의 눈이라는 독특한 창문 구조였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길을 지나는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감시하는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였다.

## 다양성의 존중부터 동유럽과 세계의 징검다리 역할까지

시비우국제연극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그 키워드는(Key Word) 다양한 색깔의 프로그램과 관객이 존재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겠다. 축제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공연예술의 카니발적인 성격으로서의 축제(Festival as Carnival)로, 10일 동안 매일 도시의 광장을 중심으로 대형 야외 공연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의 거리에서 거리극,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올해에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거리극 단체인 클로즈-액트 씨어터(Close-Act Theatre)의 피-로(Pi-Leau)가 폐막공연으로, 폴란드의 씨어터 스테파 씨지(Teatr Strefa Ciszzy)의 쌀도 모탈레 v2(Salto Mortale v2) 등이 올려졌고,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독일, 브라질의 거리밴드, 무용, 마임, 광대극 등이 관객들과 함께 하였다. 축제의 공간적 구성에 있어서도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도심의 다양한 거리와 교회, 학교의 체육관,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들을 공연장으로 개조하여 도시 곳곳을 공연장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내중심의 유니온 홀(Union Hall) 공연장에서는 대중성이 짙은 연극과 뮤지컬, 영화 등을 보여주면서 축제의 관객을 전문 예술가 관련 관객뿐만이 아닌 일반 관객들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 시비우국제연극제의 특징은 동유럽의 연극세계와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작품 소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Festival as meeting point of international leading performance and Eastern European Theatre). 올해에는 <파우스트>(Faust)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연출가 실비우 푸카레테(Silviu Pucarete)의 <갈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 <파우스트>(Faust) 그리고 그가 감독한 영화 <팔릴룰라의 어떤 곳에서>(Somewhere in Palilula) 등 여러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그의 초현실적 연극세계를 잘 보여 주었다. 또한 시비우의 라두 스탄가 국립극장(Teatrul National Radu Stanca Sibiu)의 젊은 연출가 유리 코르돈스키(Yuri Kordonsky)의 <나의 젊음의 마지막 날>(The last day of my youth) 등 많은 루마니아의 연극작품도 함께 소개 되었다. 그 밖에도 동유럽의 작품이 많이 소개 되었는데, 폴란드의 아담 미츠크비츠 인스티튜트(Adam Mickiewicz Institute)와 제작 파트너로 씨어터 자르(Theatr Zar), 티알 바르사바(TR Warszawa) 극단 등의 작품이 소개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의 연극이 소개 되었고, 독일 연극을 대표하는 피터 슈타인(Peter Stein)의 <파우스트 판타지아>(Faust Fantasia), 막심 고르크키 씨어터 베를린(Maxim Gorki Theatre Berlin)의 <훔부르크의 프리드리히 왕자>(Prinz Friedrich von Homburg) 등 세편 이상의 독일 연극도 소개 되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올해 벨기에의 연출가의 얀 로위스(Jan Lauwers)와 루마니아의 실비우 푸카레테(Silviu Pucarete)의 주요 두 작품이상과, 그들이 감독한 영화,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술가를 집중 조명하여 초청된 예술가에 대한 예술세계에 대한 폭을 넓혀 주었다.



예술가와의 대화\_피터 슈타인  
(Peter Stein)



Jan Lauwer ©Scott Eastman 2012



<갈리버여행기>(Gullivers' Travels)  
©Scott Eastman 2012



축제의 세 번째 특징은 축제가 문화예술의 교육의 장으로 그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Festival as education place for arts and culture). 세계비평가협회와 공동협력으로 젊은비평가세미나(Young Critics' Seminar)를 개최하여 젊은 비평가 양성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축제자원봉사 제도는 루마니아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젊은 자원봉사들이 축제 전일 동안과 사전, 사후 모임을 통하여, 공연 예술축제에 대한 이해, 루마니아의 공연예술 그리고 도시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 하였다. 특히 유럽-일본문화재단(EU-Japan Foundation)의 지원으로 올해에는 이십여 명 이상의 일본 자원봉사자들이 축제에 참여 하여 루마니아와 일본의 공연예술과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한국과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교류 프로그램을 맺고 2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축제 기간 동안 활동하였다. 축제읽기(Festival Reading) 프로그램은 축제 기획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럽축제(EFA: European Festivals Association)의 전 감독이었던 휴고 드 그리프(Hugo de Greef)을 중심으로 유럽의 축제 경영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유럽 젊은 축제 기획자들에게 축제 기획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이 개최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컬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of New York)의 니키 울츠(Niky Wolcz)의 코메디아 델아르테 워크숍(Commedia dell'Arte Workshop), 폴란드의 크로토프스키 센터(Jerzy Grotowski Insititue)의 인투더사운드 워크숍(Into the Sound Workshop), 미국의 롱우드 대학교와 미시건-플린트 대학교(Longwood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Michigan \_Flint)의 보이싱 워크숍(Voice Workshop) 등이 있었다.

네 번째의 특징은 대화의 장으로 축제의 존재가치라고 할 수 있다(Festival as platform for conversation), 매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프레스 컨퍼런스(Press Conference)에선 전일 공연된 작품의 연출과 배우들이 참석하여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축제에 참가한 몇몇의 예술가들 집중 조명하여, 현대공연예술의 거장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자리도 마련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김윤철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세계연극비평가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Critics) 모임을 통해 연극 비평에 대한 세계를 공유하였다. 매일 오후 2시, 영국 리즈 메트로폴리탄 대학교(Leeds Metropolitan University)의 노엘 위츠(Noel Witts)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토크백 세미나(Talkback Seminar)는 축제에 참여한 연출, 배우, 프로듀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연되어진 작품 뒷이야기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나라의 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자리로 마련하였고, 이곳에서 나는 이야기를 정리하여 다음해에는 『문화적 대화』(Cultural Conversation)이라는 책자로 발간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비우국제연극제의 특징은 아트마켓으로의 기능과 동유럽 공연예술의 네트워크 장으로 존재이다(Festival as an Arts Market as well as Performing Arts Network for Eastern Europe). 지난 15년간 시비우국제연극제는 루마니아 연극을 세계 공연예술계에 소개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공연예술축제 범주 내에서의 아트마켓'이라는 새로운 형식 찾기를 시작하였다. 즉 아시아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존의 아트마켓과는 다른, 축제가 어떻게 효과적인 아트마켓이 될 수 있는 가를 아시아(일본, 한국)와 뉴질랜드의 아트마켓 전문가들과 발간반도의 공연예술네트워크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삼 일간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번 토론에서는 루마니아 예술의 해외 교류와 진출 소개 방식뿐만 아니라, 동유럽 공연예술축제의 네트워크 중심이 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였다. 예술지원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축제의 운영주체이면서 제작극장인, 라두 스탄카 국립극장(Teatrul National Radu Stanca Sibiu)은 해외와 공동협력방식을 통하여 루마니아 연극을 유럽의 국제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페스티벌과 연계시켜 루마니아 연극의 세계 시장진출 작업을 지속

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딘버러 국제축제(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와는 6년간 세 개 작품의 국제공동제작 협력을 맺고, 실비 푸카레테(Silviu Pucarete) 연출의 <파우스트>(Faust, 2010),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 2012) 등을 공동제작 하였고, 2012년 서울 공연예술제에 소개되는 <나, 로댕>(Eu Rodin, 2012)도 이 극장의 제작 작품으로 축제를 통한 공연제작과 시장진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거리공연 이태리 코믹밴드



거리공연 프랑스 요정들



거리공연 스페인 로다피니오

(Rodafonio)

## 동유럽식 축제에 대한 새로운 실험

시비우국제연극제는 대중과 함께하는 카니발 축제로서, 세계적인 공연을 초청하고 루마니아 연극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공연예술성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생과 축제의 차세대 관객을 개발하기 위한 예술교육의 장으로서, 또한 예술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과 대화할 수 있는 대담의 장으로서, 동유럽의 대표적인 축제인 시비우국제연극제는 예술작품을 유통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기능 등의 다양한 목적을 통해 이와 같이 여러 실험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가진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동안, 15년간 축제에 몸담아온 나에게 그간 계속되었던 질문들이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열리는 축제에 충분한 관객들은 있는가?' '열정으로 가득 찬 자원봉사자와 축제 스텝 그리고 일부의 예술가, 그들은 이 축제를 관객들과 함께 즐기고 참여 예술가는 충분히 존중 받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축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인력, 재정 그리고 관객의 규모보다, 축제를 만드는 이들의 열정과 정열이 불타오르다 어느 순간 소진(Burn Out)되는 위험의 지점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출처] TheApra(제)예술경영지원센터) (2012년 8월 1일)

《축제/마켓》 동유럽 최대의 공연예술축제)

[필자] 최석규 아시아나우(AsiaNow) 대표

## 공연예술마켓 | 북미

### 시나르

CINARS,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Arts de la Scène

### 미국공연기획자협회 총회

APAP Conference

### 청소년국제공연예술 총회

IPAY,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or Youth

### 중서부예술연맹 총회

Midwest Arts Conference

### 남부예술연맹 총회

Performing Arts Exchange

### 서부예술연맹 연례회의

WAA(Western Arts Alliance) Annual Conference

**개최지**

캐나다 몬트리올

**개최시기**

작수년 11월

**창설년도**

1987년

**일정**

2014년 11월 17일~22일

**주최**

CINARS

**협력**

퀘벡문화부

퀘벡시의회

캐나다 문화위원회

## 시나르

CINARS(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Arts de la Scène)

시나르(CINARS,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Arts de la Scène)는 2012년 개최 27주년을 맞은 국제 아트 마켓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제작자와 매니저, 그리고 에이전트 등 민간부문에 의해 추진되어 1987년 이래 현재까지 북미지역의 대표 공연예술마켓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나르의 설립 취지는 공연예술 분야의 문화작품 창작을 활성화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며 제작자와 공연기획사간의 사업적인 교류를 증진하며 몬트리올을 공연예술의 국제적인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시나르는 무용, 음악, 연극, 복합장르를 망라하는 모든 유형의 창작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행사 참가자와 워크숍 진행자 그리고 초청인들이 예술 창작물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주제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프로그램**

쇼케이스	공식쇼케이스, 오프-시나르
부스전시	공연단체 및 기관 외
학술행사	포럼 / 워크숍
프리젠테이션	Project in Development :개발단계의 프로젝트 발표 (공동제작파트너, 투어기회 모색 등)
네트워킹	In Focus Breakfast:권역국가 정보 소개 조찬 컨퍼런스
부대행사	전야리셉션, 개막식, 폐막식 등

**규모** (2012년 기준)

공식쇼케이스 총 27작품(캐나다 16 / 해외 7)

오프-시나르 총 76작품(복합 6, 무용 32, 음악 4, 연극 9)

**참가방법** **개인참가** (2012년 기준)

구분/일정	프리젠테이션		옵저버		
	전일	일일	전일	일일	
개인(1인)	조기등록	C\$450	해당없음	C\$450	해당없음
	일반등록	C\$500	C\$225	C\$500	C\$225
개인(1인추가)	조기등록	C\$350	해당없음	C\$350	해당없음
	일반등록	C\$400	C\$225	C\$400	C\$225

### Contact

Conference Internationale  
des arts de la scene  
69 rue sherbrooke Ouest  
Montreal(Quebec)  
H2X 1X2, CANADA  
+1-514-842-5866  
arts@cinars.org  
www.cinars.org

### 참가방법 부스등록 (2012년 기준)

구분	일정	기본등록비	추가인	당일등록
Booth (1인등록비포함)	조기등록	C\$795	C\$300	-
	일반등록	C\$845	C\$350	C\$225
Half-Booth (1인등록비포함)	조기등록	C\$595	C\$300	-
	일반등록	C\$675	C\$350	C\$225

참가방법	쇼케이스
공포기간	2014년 2월 14일
등록비	C\$120
프로그램	전막(90분) 또는 부분(25분) 공연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기획의도 및 작품설명 이전/이후 투어 관련사항, 테크니컬 라이터 공연사진 3매 공연 동영상(DVD), 프레스 킷 ※ 온라인 신청 ※ KAMS-CINARS와의 협약에 따라 한국단체는 등록비 면제(자세한 내용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선정방법	CINARS 장르별 심사위원 심사
지원내역	기술, 무대장비, 인력 ※ 선정 시 반드시 부스에 참가해야 함

###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비고
쇼케이스	2006년	한국창작음악연구회	공식 쇼케이스
	2008년	(사)문화마을들소리	공식 쇼케이스
	2010년	컴퍼니 공명	공식 쇼케이스
		사다리움직임연구소	OFF 쇼케이스
	2012년	최상철현대무용단	공식 쇼케이스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CINARS간 협약에 의해 한국공연단체의 CINARS 공식쇼케이스 참가지원 실시, 단체가 직접 CINARS에 참가신청, CINARS 선정위원의 선정심사를 통해 작품 선정, 쇼케이스와 관련하여 항공 및 화물, 숙박료 및 홍보 마케팅 등 지원(자세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미국공연기획자협회 총회

APAP Conference

### 개최지

미국 뉴욕

### 개최시기

매년 1월

### 창설년도

1957년

### 일정

2014년 1월 10일~14일

### 장소

뉴욕 힐튼호텔 외

### 주최

미국공연기획자협회

### 협력

언더더레이더 페스티벌

재팬 소사이어티

아시아 소사이어티 외

미국공연기획자협회 총회(APAP Conference)는 미국 공연 기획자 협회인 APAP(Association of Performing Arts Presenters)의 연례 회의로 매년 1월 뉴욕에서 열리며, 미국의 공공, 민간, 대학 운영 공연장 등 1,000여개에 이르는 회원사가 참여한다. 또한 미국 외에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의 주요 공연예술 전문가 4천여 명이 참가한다. 뉴욕 힐튼 호텔에서 오리엔테이션, 세션, 포럼, 라운드테이블, 미팅과 400여개 이상의 부스전시가 열리며, 2010년의 경우 APAP 컨퍼런스 기간 동안 총 588개, 1,167회 쇼케이스가 뉴욕 시내에서 개최되었다. 2014년 제 57회째를 맞는 북미 최대 규모의 공연 예술시장으로 전세계 공연예술단체들에게 북미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회원 구성의 포럼을 열어 점심 연회 행사에서 그 해의 공연계의 영향력 있는 회원에게 팬 테일러 상(Fan Taylor Award)을 수상하기도 한다. 미국공연기획자협회 컨퍼런스(APAP Conference)는 기간 동안 EXPO에서 부스 전시 신청을 회원들에게 받아 매해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매해 APAP 컨퍼런스 기간 동안 개최된 다양한 축제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며, APAP 컨퍼런스는 다양한 지역, 장르, 주제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집결하는 네트워크의 집결지 'Network of Networks' 라는 특징을 지닌다.

### 프로그램

컨퍼런스	기조연설 / 정기총회 등
부스전시	참가등록자 부스전시
학술행사	전문가개발 세션(Professional Development Session) 등
기타행사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리셉션, 점심연회

### 규모

(2010년 기준)

쇼케이스	총 588개, 1,167회 공연
부스전시	총 389개(유료참가부스 371개)
참가자	총 3,480명

### 참가방법

#### 개인참가

구분	조기등록	사전등록	일반등록	현장등록
전일패스	\$755	\$7845	\$910	\$1025
일일패스	\$545	\$545	\$545	\$545

※APAP회원만 등록 가능

### Contact

APAP  
1211 Connecticut Avenue NW  
Suite 200  
Washington, DC 20036  
+1-888-717-2727  
info@apapconference.org  
www.apapnyc.org

### 참가방법 부스전시

크기(세로x가로)	부스비용	부스 배너	비고
10x5	\$850	2	※기본제공부스 외의 사양은 홈페이지참조
10x5 corner	\$935	2	
5x10	\$880	2	
5x10 corner	\$990	2	
8x10	\$1,408	4	
8x10 corner	\$1,518	4	
10x10	\$1,760	4	
10x10 corner	\$1,870	4	

### 참가방법

쇼케이스  
※APAP 홈페이지 세부내용 참조

###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비고
쇼케이스	2007년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센터 스테이지 코리아 2007
		그룹 공명	
		댄스씨어터 온	
	2008년	유빈댄스	센터 스테이지 코리아 2008
		강은일해금플러스	
		문화마을 들소리	
	2009년	장은정무용단	재팬소사이어티(동북아 현대무용 쇼케이스)
		사다리움직임연구소	Under The Radar 페스티벌 선정
		김주홍과 노름마치	
		약당이반(채수정)	
	2010년	LDP무용단	재팬소사이어티(동북아 현대무용 쇼케이스)
		극단 서울공장	
2011년	판소리만들기 '자'		
	안애순무용단	재팬소사이어티(동북아 현대무용 쇼케이스)	

## 청소년국제공연예술 총회

IPAY(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or Youth)

### 개최지

미국 순회

### 개최시기

매년 1월

### 창설년도

1998년

### 일정

2014년 1월 22일~25일

### 개최지

미국 피츠버그

### 장소(2014년)

웨스턴 컨퍼런스 센터

### 주최

청소년국제공연예술

### 협력(2014년)

피츠버그 국제아동극페스티벌

피츠버그 문화 신탁

### Contact

1417 North 2nd Street  
 Studio 23A Philadelphia  
 PA 19122 USA  
 +1-267-519-3343  
 jane@ipayweb.org  
 www.ipayweb.org

청소년국제공연예술총회(IPAY,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or Youth)는 청소년, 아동을 위한 공연예술을 제작하는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프로듀서, 프로모터, 프리젠타가 모여 1979년 3월 시카고에서 첫 인터내셔널 쇼케이스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회원간 연례 행사이다. 1988년에 아동을 위한 국제공연예술연맹(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s for Children)이 창설되었고, 1998년부터 청소년국제공연예술총회(IPAY)라는 형식의 공식컨퍼런스로 개최되고 있다. 아이디어 교환, 정보교류, 교육, 비즈니스, 산업적 고양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미국을 중심으로 200여명의 프리젠타, 아티스트, 에이전트, 매니저가 참가한다. 2001년부터는 현장의 전문가가 모여 에이전시(Agency)형태로 조직을 재편하여 현재까지 청소년국제공연예술총회(IPAY)를 미국 전 지역을 순회 개최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연극, 음악, 무용, 서커스, 인형극 등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국제공연예술총회(IPAY)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20개의 작품을 쇼케이스로 선정한다.

### 프로그램 (2013년 기준)

쇼케이스	공식선정작쇼케이스(Official Showcase) 자유참가쇼케이스(Spotlights)
전문가	프로그램 커뮤니티 워크숍, 커뮤니티 토론 프로그램
부스전시	쇼케이스 부스
쇼케이스	20편
참가자	총 300여명(IPAY 회원사 포함)

### 참가방법 개인참가 (2013년 기준)

등록방법	온라인등록
등록비	무료(회원), 비회원(\$75)

### 참가방법 쇼케이스

제출서류	필수 : 온라인신청서, DVD, 테크니컬라이더, 홍보패킷 옵션 : 프리젠타 추천서, 사진, 스크립트 등
------	--

※ 공식 쇼케이스 심사에서 탈락 시 추첨을 통해 10분간의 쇼케이스 기회 또는 Spotlight Artist로 선정

구분/등록비	조기등록(전일)	일반등록(전일)	일일
IPAY회원	\$400	\$475	\$155
IPAY비회원	\$500	\$575	\$175



## 중서부예술연맹 총회

Midwest Arts Conference

### 개최지

미국 중서부지역 순회

### 개최시기

매년 9월

### 창설년도

1985년

### 일정

2014년 9월 17일~20일

### 개최지

미네폴리스, 미네소타주

### 장소

미네폴리스 컨벤션센터

### 주최

중서부예술연맹(Arts Midwest)

미국중부예술연맹

(Mid-America Arts Alliance)

중서부예술연맹 총회(Midwest Arts Conference)는 1985년에 창설된 중서부예술연맹(Arts Midwest)이 미국 중서부 지역의 비즈니스, 정보교류, 네트워킹을 위해 개최하는 연례행사이다. 중서부예술연맹(Midwest Arts)은 미국 중서부 지역 공연예술의 프로모팅과 프리젠틱, 자금 지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주요 지역으로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간, 미네소타, 다코타, 오하이오 및 위스콘신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주로 예술가, 매니저, 프리젠틱, 예술기관 등을 위한 컨퍼런스, 교육프로그램, 펀딩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서부예술연맹 총회(Midwest Arts Conference)는 연도별로 중서부 지역의 도시에서 순회 개최하며, 서부의 서부예술연맹 연례회의(WAA Annual Conference), 남부의 남부예술연맹 총회(Performing Arts Exchange)와 함께 지역공연예술총회네트워크(Network of Regional Performing Arts Conferences)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프로그램

#### 쇼케이스

공식쇼케이스/자유참가쇼케이스

#### 부스전시

부스전시 신청기관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정보 제공 및 비즈니스

중서부예술연맹(Midwest Arts)

#### 네트워킹

오픈닝 스피치, 조식 프로그램, 런치/브런치프로그램

#### 멘토프로그램

첫 참석회원을 위한 프로그램

New Colleague Connection (\*참가자가 멘토 신청)

### 규모

(2013년 기준)

#### 쇼케이스

200여회 공연

#### 부스전시

총 268여개 기관 전시

#### 참가자

총 1,001여명 개인 참가자(257여개의 기관, 268예술 단체)

### 참가방법

#### 개인참가

구분	조기등록	일반등록	비고
개인	\$300~500	\$300~500	*2014년도 미정

\* 전시참가 여부에 따라 등록비 차등

\* 5월 경 등록 시작

**Contact**

Arts Midwest  
 2908 Hennepin Avenue  
 Suite 200  
 Minneapolis MN 55408  
 +1-612-341-0755  
 midwestartsconference  
 @artsmidwest.org

**참가방법**

등록일정

등록비

**부스전시**

2013년 5월 23일 마감

\$550~\$1100(크기 및 회원등급에 따라 차이)

**참가방법**

공모기간

제출자료

**Spotlight Showcases : 공식쇼케이스**

2013년 4월 마감

신청서, 예술감독 이력 또는 단체 이력(2페이지 이내)  
 1년 내의 작품 리뷰 최소 1건 또는 인정할만한 프리  
 젠터의 추천서

최근의 투어 경력(최근 1년간 최소 3건 이상)

사진과 브로셔가 포함된 프레스 키트

테크니컬 라이더, 공연 실황 영상(DVD-스크린 타이틀  
 없이/음악의 경우 CD도 가능하나 가급적 DVD 권장)

패널에 의한 작품선정

선정방식

**참가방법**

등록기간

**독립쇼케이스 : 자유참가 비공식쇼케이스**

2013년 7월 10일 마감

## 남부예술연맹 총회

Performing Arts Exchange

### 개최지

미국 남부지역 순회

### 개최시기

매년 9월

### 창설년도

1975년

### 일정

2014년 9월 29일~10월 2일

### 개최지

미국 아틀란타

### 장소(2013년)

내슈빌 컨벤션 센터

### 주최/주관

사우스아트(South Arts)

### 협력

팝 히츠 브로드웨이

데일리 빈센트

kmp

APA 등

남부예술연맹 총회(PAE, Performing Arts Exchange)는 1975년 창설된 비영리 지역 예술기관인 South Arts(남부예술연맹, 구 Southern Arts Federation)에 의해 개최되는 연례행사이다. PAE는 예술가들과 작품에 대한 소개, 아이디어 교환, 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창설된 마켓이자 포럼이며, 미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되며, 미국 전역에서 참가한다. 미국 남부 지역 도시에서 순회 개최하며, 중부의 중서부예술연맹 총회(Midwest Arts Conference)는 서부의 서부예술연맹 연례회의(WAA Annual Conference)와 함께 지역공연예술컨퍼런스네트워크(Network of Regional Performing Arts Conferences)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밖에도 South Arts는 공공영역의 공연예술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관점을 교류하기 위해 예술가, 학자, 아카데미 등의 주요 참가자를 중심으로 Folklorists in the South(FITS)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 프로그램

#### 컨퍼런스

기조연설 / 정기총회 / 세미나

#### 쇼케이스

공식선정작쇼케이스(Juried Showcases)

독립쇼케이스(Independent Showcases)

비디오쇼케이스(Video Showcases)

#### 부스전시

공연단체 및 기관 외

#### 전문가 워크숍 (PD@PAE)

기초(Fundamentals), 기술(Skills), 이슈와 아이디어(Issues & Ideas)의 3개의 키워드로 전문가 워크숍(PD@PAE)

#### 네트워킹

오프닝리셉션, 네트워킹 프로그램, 폐막파티, 사이버카페

### 규모

(2013년 기준)

#### 공식쇼케이스

17여개

#### 부스전시

195여개 부스 참가자/기관

### 참가방법

### 개인참가

구분	조기등록	일반등록	현장등록
개인(전일)	\$425	\$500	\$550
개인(일일)	\$225	\$300	\$350
1인 추가	\$325	\$400	\$450

**Contact**

South Arts  
Suite 808  
Atlanta, Georgia 30309  
1800 Peachtree Street NW  
+1-404-874-7244  
pae.southarts.org

**참가방법**      **부스전시**

구분	크기 (가로x세로)	조기등록 7월 31일까지	일반등록 7월 31일부터
Full Booth	10X10	\$850	\$900
Half Booth	7X7	\$650	\$700
Prime Location Full Booth	10X10	\$1000	\$1050
Prime Location Half Booth	7X7	\$800	\$850
Bistro Furniture	-	\$100	\$100

**참가방법**      **공식쇼케이스(Juried Showcase)**

**공모기간**      2013년 2월 중순~3월 28일

**지원신청비**      \$95(선정작품 등록비 : \$650)

**등록방법**      참가신청서(온라인등록)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디지털 파일 형태의 홍보패킷  
(아티스트 경력서, 작품 경력서, 작품리뷰, 테크니컬라  
이더, 작품사진, DVD)

**선정방식**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서부예술연맹 연례회의

WAA(Western Arts Alliance) Annual Conference

### 개최지

미국 서부지역 순회

### 개최시기

매년 8월 말~9월 초

### 창설년도

1967년

### 일정

2014년 9월 3일~6일

### 개최지

미국 시애틀

### 주최

서부예술연맹(WAA)

1967년에 창설된 서부예술연맹(WAA, Western Arts Alliance)은 미국 서부 지역 공연예술의 프로모팅과 프리젠틱을 담당하는 투어와 공연예술 전문가들 간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협회이다. 미국 서부 지역의 예술가, 매니저, 프리젠틱, 예술관련 기관, 주정부 예술 기관들을 위한 연간 부킹 컨퍼런스와 연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WAA의 주요 프리젠틱들은 소규모, 개런티 \$5,000 이하를 선호한다. 따라서 공연자는 5인내외이고, 무대장치도 최소화된 공연들이 공식 쇼케이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르적으로는 음악을 가장 선호하고, 무용은 무대장치의 어려움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추세라고 한다. 서부예술연맹 연례회의(WAA Annual Conference)는 중부의 중서부예술동맹 총회(Midwest Arts Conference), 그리고 남부의 남부예술동맹 총회(Performing Arts Exchange)와 함께 지역공연예술컨퍼런스네트워크(Network of Regional Performing Arts Conferences)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프로그램

쇼케이스	Juried Showcase	공식선정작
(Performance &Discovery)	Independent Showcase	오프 사이트 쇼케이스
	Sponsored Showcase	컨퍼런스 스폰서 쇼케이스
	Showcase Soiree	쇼케이스의 밤
부스전시	부스전시 신청기관 (※WAA 회원만 등록 가능)	
학술행사	Plenary, 라운드테이블, 워크샵 등	
네트워킹	WAA's Next(신진 그룹을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 Dine Around(소규모 인원의 식사를 겸한 미팅) 등	

### 규모

(2013년 기준)

쇼케이스	공식 7개 작품(WAA 매해 7개작품 선정)
부스전시	총 200개
참가자	총 1,000여명 참가(200여개 단체)

### 참가방법

#### 개인참가

- ※등록은 1인 등록 기준이며, 2명까지 동일등록비
- ※같은단체/기관의 3인째 등록부터 30% 할인



performing  
arts  
market  
guide

## 공연예술마켓 | 중남미

### **비아마켓**

VIA, Ventana Internacional de Artes Escénicas

### **보고타 아트마켓**

Rueda de Negocios de Música y Artes Escénicas

### **우루과이 국제공연예술축제**

FIDAE, Festival Internacional de Artes Escénicas

### **아르헨티나 문화 산업 마켓**

MICA, Mercado de Industrias Culturales Argentinas

## 비아마켓

VIA(Ventana Internacional de Artes Escénicas)

### 개최지

콜롬비아 보고타

### 개최시기

작수년 4월

### 일정

2012년 3월 23일~4월 8일

### 창설년도

2002년

### 주관

The performing arts  
marketplace

보고타 이베로 아메리카노

국제연극제 비즈니스센터

Chamber of Commerce Redlat

콜롬비아 문화부

보고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Contact

festival

@festivaldeteatro.com.co

+57-1-2453500

www.festivaldeteatro.com.co

비아마켓(VIA, Ventana Internacional de Artes Escénicas)는 2002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창설된 마켓으로 보고타의 유명 축제인 보고타 이베로 아메리카노 국제연극제(Festival Iberoamerican de Teatro de Bogota)와 동반 개최 된다. Theater Communications Group(TCG), APAP 등과의 협력 관계로 주로 북미지역의 프리젠티 참여가 많다.

### 프로그램

(2010년 기준)

#### 쇼케이스

쇼케이스, 테이블미팅 등

### 규모

#### 참가자

총 100여명

(21개국 / 콜롬비아 7명, 중남미 20명, 북미 36명, 아시아 4명, 유럽 20명, 오세아니아 4명 등)



## 보고타 아트마켓

Rueda de Negocios de Música y Artes Escénicas

### 개최지

콜롬비아 보고타

### 개최시기

매년 11월

### 창설년도

2009년

### 일정

2012년 11월 3일~5일

### 주최

보고타 상공회의소

### 주관

레드 랫 콜롬비아

### Contact

industriasculturales@ccb.org.co

ruedadenegocios@redlat.org

www.ruedadenegociosculturales.com

www.festivaldeteatro.com.com

보고타 아트마켓(Rueda de Negocios de Música y Artes Escénicas)은 2009년 창설된 공연예술마켓으로 연극, 무용 등의 공연과 음악 분야를 아울러 개최된다. 2009년에는 음악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개최하였으며, 2010년부터 공연분야를 추가하였다. 보고타 아트마켓은 보고타 상공회의소(La Cámara de Comercio de Bogotá) 주최로 열리며, 레드 랫 콜롬비아(Red Lat Colombia)에서 주관한다. 레드 랫(Red Lat)은 중남미 지역의 주요 공연예술 기관 및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로서, 중남미기획자연합회(La RED)의 콜롬비아 대표 기관이다. 레드 랫(Red Lat)은 마니살레스 축제, 중남미뮤직마켓(7월, 메디진), 보고타 아트마켓(11월, 보고타)등 콜롬비아 및 중남미권역 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마켓에서 공동 프로그래밍과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고타 아트마켓의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40여개의 쇼케이스, 컨퍼런스와 워크숍으로 구성되어있다.

### 프로그램

주요행사 쇼케이스, 컨퍼런스, 워크숍

### 규모

(2010년 기준)

### 쇼케이스

48회 쇼케이스 및 프리젠테이션

124단체(무용 12단체, 연극 10단체, 음악 92단체)

### 참가자

LA RED120여명의 델리게이트(콜롬비아 및 해외)

## 우루과이 국제공연예술축제

FIDAE(Festival Internacional de Artes Escenicás)

### 개최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 개최시기

출수년 10월

### 창설년도

2011년

### 일정

2015년 예정

### 장소

Teatro Solis

Teatro El Galpón

Auditorio Nacional Adela 등

### 주관

국제 공연 예술 학회

(Instituto Nacional  
de Artes Escénicas)

국제 문화 행정부

(Dirección Nacional  
de Cultura)

### Contact

FIDAE-MEC,

Montevideo, Uruguay

+598-2916-43-71

fidae.comunica.dnc

@mec.gub.uy

http://fidae.gub.uy/

우루과이 국제공연예술축제(FIDAE, Festival Internacional de Artes Escenicás)는 우루과이의 교육 및 문화 행정부, 국제 문화 행정부와 국제 공연 예술 학회가 주최하며,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연극과 춤, 거리 연극, 세미나, 강의, 워크샵, 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개최된 이 축제는 "다른 세계, 다른 무대"라는 테마 아래에서 진행되었으며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질 높은 공연들과 그 구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 프로그램

#### 쇼케이스

연극, 무용, 음악 공연 등

#### 네트워크

워크샵, 패널 토론 등

### 규모

(2013년 기준)

#### 쇼케이스

총 10개 국가 참여, 30개 이상의 공연

### 참가방법

#### 개인참가

#### 신청방법

개별적으로 각 공연의 티켓을 RED UTS 사이트  
(www.reduts.com.py)에서 구매

### 참가방법

#### 쇼케이스

#### 신청내용

자문회를 대표하는 예술 종사자

#### 등록일정

축제가 열리는 해의 5월~6월

### 신청방법

프로젝트 1200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

#### 온라인 접수처

자세한 사항은 개최 여부가 확정된 뒤 공지

## 아르헨티나 문화 산업 마켓

MICA(Mercado de Industrias Culturales Argentinas)

### 개최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 개최시기

출수년 4월

### 창설년도

2011년

### 일정

2013년 4월 11일~14일

### 장소

부에노스 아이레스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 주관

아르헨티나 문화 행정부

### Contact

+54-11-4129-2474

mica@cultura.gov.ar

www.mica.gob.ar/contacto

아르헨티나 문화 산업 마켓(MICA)은 아르헨티나에서는 최초로 서로 다른 다양한 분야와 산업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협의와 정보 교환 및 상품 홍보를 하는 곳이다. 공연 예술, 시청각 미디어, 디자인, 출판, 음악과 비디오 게임 등이 이 마켓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행사는 아르헨티나의 문화 행정부, 외무부, 국제통상부, 노동부, 취업 및 사회보장 행정부, 관광부, 연방부, 공공 투자 행정 등 다양한 정부 부서가 협력하여 주최하고 있다.

2년 주기로 열리는 이 행사의 목표는 아르헨티나의 문화 산업을 증진시켜 국내뿐 만이 아닌 국외로도 진출시키는 것이다.

### 프로그램

#### 네트워크

사업 협상, 워크샵 및 컨퍼런스

### 규모

(2013년 기준)

#### 네트워크

14,300회의 사업 협상, 146 테이블

#### 참가자

방문객 88,000여명, 2,600여명의 사업가, 300여명의 국제 바이어와 게스트, 310명의 기자, 1,000여명의 노동자

### 참가방법

#### 개인참가

#### 신청방법

공식 사이트(www.mica.gob.ar)에서 개별 신청

### 참가방법

#### 비즈니스

#### 신청방법

공식 사이트(www.mica.gob.ar)에서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호주아시아 월드뮤직엑스포

AWME(Australasian World Music Expo)

### 개회지

호주 멜버른

### 개회시기

매년 11월

### 창설년도

2008년

### 일정

2013년 11월 14일~17일

### 장소

Playhouse

The Arts Centre

The HiFi

BMW Edge 등

### 주최

호주예술위원회

### 후원

호주연방정부

호주예술위원회

빅토리아예술위원회

크리에이티브 뉴질랜드

멜버른시

호주아시아 월드뮤직엑스포(AWME, Australasian World Music Expo)는 2008년 신설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의 월드뮤직마켓이다. 자국의 월드뮤직 아티스트, 단체, 프로모터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월드뮤직을 해외에 소개하는 한편, 해외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제 1회 행사는 호주 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거주하는 도시인 멜버른에서 빅토리아 아트센터(Victoria Art Center)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호주예술위원회가 주최하며, 호주정부(Australian Government), 아트 빅토리아(Arts Victoria), 멜버른시(City of Melbourne), 크리에이티브 뉴질랜드(Creative NZ) 등이 행사를 후원한다. 호주아시아 월드뮤직엑스포(AWME)는 호주 토속문화 지원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 등이 진행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쇼케이스와 포럼(Speakers Session), 기타 리셉션 행사들로 구성된다. 쇼케이스에는 AWME 쇼케이스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작품을 선정하는 공식 쇼케이스 등이 있는데, 2008년 제 1회에는 호주,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등 총 7개 국가가 참가하였다. 포럼은 초청된 주요 월드뮤직 관계자들이 해외 진출을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자리로서 자국 협회 관련 관계자들의 포럼 형태로 이루어진다.

### 프로그램

#### 컨퍼런스

AWME 발제 세션(AWME Speaker Sessions)

지역축제네트워크미팅, 아시아 퍼시픽 포럼

원주민 음악 및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 등

#### 쇼케이스

AWME 공식 쇼케이스

### 규모

(2012년 기준)

#### 컨퍼런스

총 2일간 19개 세션 개최

#### 쇼케이스

총 4일간 60여개 공연(56여명의 아티스트)

#### 참가자

### 참가방법

#### 개인참가

구분	전일 참가	컨퍼런스 참가
조기등록	AUS \$180	-
일반등록	AUS \$210	AUS \$70

※ 참여일정에 따라 Silver, Gold, Platinum 패스를 나누며 등록비 차이

### Contact

AWME  
218 Adderley St  
West Melbourne  
3003 Vic, Australia  
+61-3-9329-1533  
info@awme.com.au  
www.awme.com.au

### 참가방법

#### 신청방법1

### 쇼케이스

www.awme.com.au/artist-application-2011.html

홈페이지에서 신청

1단계 : AWME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2단계 : 음반 3장(동일한 음반), 테크니컬 라이더

무대 플랜 등 우편발송

주소 : AWME, 218 Adderley St

West Melbourne, 3003 Vic, Australia

#### 신청방법2

sonicbids.com/AWME

소닉비즈 AWME페이지에서 자료 등록 및 업로드

:단체소개, 음반소개, 음원(MP3포맷), 사진, 테크니컬

라이더, 악기 및 인원구성, 프레스 킷 등

#### 공모기간

2013년 12월 1일~

#### 지원신청비

USD\$10

#### 선정방식

음악시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과 5명의 음악 프

로그램 자문위원

#### 결과발표

2014년 8월 중순

###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비고
쇼케이스	2009년	노름마차	※ 학술행사(한국의 월드뮤직) 김동원, 황우창 발제
	2010년	키네틱 국악그룹 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음악마켓 및 공연예술마켓 참가지원사업

## 뉴질랜드뮤직엑스포

Sounds Aotearoa NZ Music Expo

### 개최지

뉴질랜드 웰링턴

### 개최시기

매년 2~3월

### 일정

2014년 2월 26일~28일

### 장소

맥스 기능 센터

### 주최

타라나키예술축제재단

유한회사 티히(Tihi Ltd)

### 협력

뉴질랜드 예술위원회

영국의회

공연예술네트워크(PANNZ)

타라나키 예술축제(TAFT)

위믹스(WOMEX)

### Contact

Sounds Aotearoa

C/O Tihi Ltd, PO Box 4

Taranaki Mail Centre

New Plymouth 4340

New Zealand

+64-6-759-8412

lisa@taft.co.nz

www.soundsaotearoa.com

뉴질랜드뮤직엑스포(Sounds Aotearoa NZ Music Expo)은 워매드뉴질랜드(WOMAD New Zealand)를 주관하는 타라나키예술축제재단 TAFT(Taranaki Arts Festival Trust)와 뉴질랜드 전문문화예술건설링 회사인 유한회사 티히(Tihi Ltd)가 개최하는 음악 전문 박람회로, 뉴질랜드 음악산업의 발전과 음악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창설되었다. 사운드 아오테아로아(Sounds Aotearoa)라는 명칭은 마오리어로 뉴질랜드를 뜻하는 말이다. 이 행사는 컨퍼런스, 엑스포, 쇼케이스/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박람회 일정 후에는 워매드 뉴질랜드(WOMAD NZ)와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를 비롯, 뉴칼레도니아, 피지 등 남태평양 사람들의 민속 축제인 퍼시피카 페스티벌(Pasifika Festival)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뉴질랜드 및 전세계 음악산업 종사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4년에는 뉴질랜드 뮤직 엑스포와 공연 예술 네트워크 뉴질랜드(PANNZ)가 협력하여 비슷한 목적을 공유하는 두 마켓이 서로의 발전을 돕고, 마켓 기간 동안 NZ 페스티벌과 프린지 또한 개최될 예정이다.

### 프로그램

(2013년 기준)

#### 쇼케이스

선별된 뉴질랜드 공연, 일반 관객에게도 오픈

#### pitch

프리젠티들의 '피치' 세션

#### 컨퍼런스

뉴질랜드 음악 관계자를 위한 패널/포럼/워크숍

### 규모

#### 쇼케이스/부스

13개 뉴질랜드 공연 / 130개 기관 및 단체

#### 컨퍼런스

9개(뉴질랜드 음악, 정체성, 지역투어, 저작권 등)

#### 참가자

총160여명(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 참가방법

#### 개인참가

구분	조기등록	일반등록	비고
개인	NZD \$300	NZD \$350	
추가인등록	NZD \$120	NZD \$150	

#### 참가방법

#### Pitch 참가

#### 등록비

\$100

#### 참가비

\$100 + GST

#### 등록방법

사이버패독(Cyberpaddok) 계정 등록 후 작품 가져



## 뮤직매터스

Music Matters

### 개회지

싱가포르

### 개회시기

매년 5월

### 창설년도

2006년

### 일정

2014년 5월 20일~25일

### 장소

리츠 칼튼 밀레니아 싱가포르

### 주최

Branded Asia

### 후원

싱가포르 관광청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

### 회원사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외

### Contact

BRANDED HQ, 1802, 18F,  
Winsome House,  
73 Wyndham Street,  
Central, Hong Kong  
T. +852-2167-8040  
F. +852-2536-8168  
branded@branded.asia  
http://www.allthatmatters.asia/music/mm/

뮤직매터스(Music Matters)는 2006년에 창설된 아시아 음악 산업 포럼이자 마켓이다. 뮤직매터스 아시아(Music Matters ASIA : Asia Pacific Music Forum)라는 이름으로 2010년까지 개최되었으며, 2011년부터 뮤직 매터스(Music Matters), 디지털 매터스(Digital Matters)로 나누어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음악 산업 기업들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음악 산업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혁신적으로 성공한 음악 산업 관련 기업 및 개인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된다. 초기에는 컨퍼런스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 산업의 담론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09년부터 Music Matters Live라는 축제 행사를 통해 공연행사를 추가하면서 쇼케이스나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Jason Mraz 등의 아티스트가 뮤직 매터스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까지 홍콩에서 개최하였으며, 2011년부터 싱가포르 관광청과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의 후원으로 싱가포르로 장소를 옮겨 개최한다. 크게 아시아 태평양 뮤직 포럼(Music Matters-The Asia Pacific Music Forum)과 뮤직 페스티벌 두 가지 형태로 열리고 활발한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한다.

### 프로그램

#### 컨퍼런스

컨퍼런스 오프닝/키노트스피치\*주제세션

#### 공연행사

쇼케이스(ARTIST PERFORMANCE)

뮤직매터스 라이브(Music Matters Live)

#### 네트워킹

리셉션, 점심 세션 등

#### 워크샵

### 규모

(2012년 기준)

#### 쇼케이스

18개국 40여개 음악단체

#### 참가자

5,000여명(400여명 델리게이트, 100여개 밴드)

### 참가방법

### 개인등록

(2013년 기준)

구분	내용	초기등록할인 (2013.2.28)	일반등록
개인참가	컨퍼런스, 네트워킹 점심 포함	USD850	USD850
컨퍼런스/청소년	컨퍼런스만 포함	-	USD850

\*3명이상 그룹참가는 10% 할인/회원사등록비용별도



## 국제음악마켓 | 유럽

### **위멕스**

WOMEX, World Music Expo

### **바벨 메드 뮤직**

Babel Med Music

### **미데미**

MIDEM, The World's Music Market

### **재즈어헤드!**

Jazzahead!

### **바르셀로나 뮤직마켓**

MMVV, Mercat de Música Viva de Vic

### **에쓰노 스웨덴 월드뮤직 캠프**

Ethno Sweden World Music Camp

### **클래시컬 넥스트**

Classical Next

### **베를린 뮤직위크**

Berlin Music Week

### **메디맥스**

Medimex

## 위멕스

WOMEX(World Music Expo)

### 개최지

유럽 순회 개최

### 개최시기

매년 10월

### 창설년도

1994년

### 일정

2014년 10월 22일~26일

### 장소

스페인 갈리시아  
시다데 다 쿨투라  
(City of Culture)

### 주최

WOMEX

위멕스(WOMEX, World Music Expo)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속음악을 비롯하여 재즈, 포크, 전통음악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세계 최고의 월드뮤직 박람회이다. 유네스코(UNESCO)가 “모든 형태의 월드뮤직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국제 전문가 마켓”이라 평한 위멕스는 1994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시작하여, 브뤼셀(1995), 마르세이유(1997), 스톡홀름(1998), 베를린(1999-2000), 로테르담(2001), 에센(2002,2004), 뉴캐슬(2005), 세비아(2003,2006-8), 코펜하겐(2009-2011) 등 유럽 전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부스 전시와 쇼케이스, 컨퍼런스, 필름마켓을 통해 페스티벌과 국제적인 공연장 프로그래머는 물론 음반사와 배급자,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에게 국제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월드뮤직계의 대표적 행사다. 특히 세자리아 에보라(Cesaria Evora), 마리자(Mariza), 티나리웬(Tinariwen)과 같은 월드뮤직 아이콘들도 위멕스를 통해 국제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오프닝 행사에는 그동안 덴마크의 해랄드 호가드(Herald Haugaard), 스페인 플라멩코의 아이콘 미겔 포베다(Miguel Poveda), 파키스탄의 크발리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파이즈 알리 파이즈(Faiz Ali Faiz), 영국을 대표하는 뮤지션 로버트 플랜트(Robert Plant) 등 국제적인 월드뮤직 뮤지션들이 개막식 무대를 장식해 왔다. 특히, 2010년 제 16회 위멕스 오프닝 행사로 한국특집을 마련하여, 바람꽃(대표 원일), 비빙(대표 장영규), 토리 앙상블(대표 허운정) 3개 단체의 공연이 있었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폐막식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WOMEX AWARD는 음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프로그램

개막공연	위멕스 특별 개막공연
쇼케이스	공식 쇼케이스, 스페셜 포커스, 오프위멕스
컨퍼런스	일대일 멘토링 세션, 마스터클래스, 네트워킹미팅, 컨설팅
월드&재즈	컨퍼런스 세션 두개, 네트워크 미팅 두개와 재즈-쇼 케이스 공연
부스전시	트레이드 페어
필름마켓	음악 소재 다큐멘터리, DVD, 비디오 클럽 등 ※IMZ International Music+Media Centre, Vienna 협력 영화 상연회

**규모** (2013년 기준)

쇼케이스	8개 무대 350여명 아티스트의 61개 쇼케이스
컨퍼런스	20개 이상 회담 세션 30개국 강연자 멘토 70명
부스전시	600여개 단체의 245개 부스 40개국
필름마켓	IMZ(오스트리아 국제음악 +미디어센터) 협력
참가자	총 2,200여명 1,200단체 90개국

**참가방법**      **개인참가** (2013년 기준)

구분	조기등록 6월21일까지	일반등록 8월30일까지	마감후등록 9월27일까지	현장등록 10월23일부터
단체/개인(1인)	225유로	305유로	335유로	365유로
단체(3인)	595유로	715유로	790유로	860유로
단체(4인부터)	205유로	245유로	270유로	295유로
미디어	175유로	215유로	235유로	255유로
부스전시	840유로	840유로	840유로	840유로

**참가방법**      **쇼케이스** (2013년 기준)

**신청방법** 소닉비즈(www.sonicbids.com)가입 후 공식쇼케이스 신청

**제출서류** 작품 및 활동경력서, 음원 5곡(MP3,25MB까지), 음반 목록, 쇼케이스 무대 계획서, 테크니컬 라이더, 악기 구성표, 온라인 콘텐츠 링크(유튜브, 페이스북), 사진, 언론보도자료 및 리뷰, 신청연도(2013년) 유럽공연계획서

(온라인등록) **제출서류(우편접수)** CD 2장, DVD, 비디오 등 영상자료

**접수처** WOMEX, 아티스트명(영어), Bergmannstr. 102, 10961 Berlin, Germany

**공모기간** 2013년 4월 12일 마감

**지원신청비** USD\$20(3월 31일까지), USD\$30(4월1일~12일)

**선정방식** WOMEX 작품선정위원회 선정

**결과발표** 2013년 6월 공지(개별통보)

**Contact**

WOMEX  
 Bergmannstr. 102  
 10961 Berlin, Germany  
 +49-30-318-614-30  
 womex@womex.com  
 www.womex.com

**참가방법**                   **컨퍼런스발제제안**                   (2013년 기준)  
**신청내용**                   사례발표, 이슈제기 등의 컨퍼런스 발제 제안  
**제안분야**                   컨퍼런스 발제 분야(45분), 멘토링 세션 분야(1대1멘토링, 라운드 테이블 멘토링)  
**공모기간**                   2013년 4월 12일 마감

**참가방법**                   **필름마켓**                                   (2013년 기준)  
**신청내용**                   WOMEX 필름마켓(Film Market)에서의 영상 상영  
**신청방법**                   IMZ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작품 정보 등록  
                                   www.imz.at/index.php?id=499  
**제출자료**                   상영용 고품질 DVD(3장), 필름 트레일러(약 2분) 프로  
**(우편접수)**                모션자료, 사진(300dpi이상 jpeg/tiff 제목, 크레딧명기)  
**우편접수처**               Tatiana Petkova, Stiftgasse 29, A-1070 Wien, AUSTRIA  
**공모기간**                   2013년 4월 23일 마감  
**지원신청비**                60유로(IMZ 비회원)  
**신청방식**                   IMZ의 국제음악&미디어센터에서 단독심사  
**결과발표**                   2013년 6월 발표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비고
쇼케이스	2008	공명	OFF 쇼케이스 오프닝
	2009	(사)문화마을 들소리	공식쇼케이스
	2010	바람꽃	2010 WOMEX 오프닝(한국특집)
		비빙	
	2012	토리양상블	공식쇼케이스
		거문고팩토리	
	2013	숨	공식쇼케이스
		잠비나이	

## 바벨 메드 뮤직

Babel Med Music

### 개회지

프랑스 마르세이유

### 개회시기

매년 2월~3월

### 창설년도

2005년

### 일정

2014년 3월 20~22일

### 장소

Dock des Suds 내 3개 무대

### 주최

독 데 쉬드

### 협력

프로방스-알프스

-코트다쥐르 레지옹

프랑스 인스티튜트

ADAMI

문도믹스

위엑스 외

바벨 메드 뮤직(Babel Med Music)은 음악 전문가들과 대중을 위해 재능 있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뮤지션들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월드뮤직 마켓으로 2005년 창설되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지역 월드뮤직을 중심으로 하는 실물공연마켓이며,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예술가, 뮤지션, 축제감독, 배급사, 음반사, 에이전시, 매니저들이 이 행사에 참가해 오고 있다. 매해 프랑스 마르세이유(Marseille)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 레지옹 의회의 협력 하에 독 데 쉬드(Dock des Suds)가 주최·주관한다. 독 데 쉬드는 현대음악과 월드뮤직 중심의 2,500석 규모 공연장이다. 이 외에 SACEM, IRMA, ADAMI, CNV, Culture France 등의 프랑스 문화예술지원기관과 FNAC, Caisse d'Epargne 등의 기업들이 본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지역정부와 음악창작기금(FCM) 등의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프랑스인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공공성을 띄고 있다. 바벨 메드 뮤직은 크게 콘서트(쇼케이스), 부스 전시, 포럼으로 구성되며 매해 공모와 국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30여 개의 단체가 쇼케이스 무대에 오르며, 이 콘서트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되어 축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매회 마켓 기간 중 유럽월드뮤직축제포럼(EFWMF)의 정기총회가 함께 개최된다.

### 프로그램

(2013년 기준)

#### 쇼케이스

미디어 쇼케이스, Live & On Stage 쇼케이스

#### 컨퍼런스

아이디어 포럼, Arts Bursts(5분 프레젠테이션), In the Works(신작소개 및 협업파트너 탐색)

#### 부스전시

매일 오전 10시 경부터 저녁 7시까지(주간)

#### 네트워킹

오리엔테이션,오프닝 BBQ, Late Night Drinks  
축제관계자 점심오찬, Closing Lunch 등

### 규모

(2013년 기준)

#### 쇼케이스

3일간 36개의 콘서트 관객 16,000여명

#### 부스전시

164개(275개 기관/단체 참여)

#### 전문가

참가총 45개국 2,500여명

### 참가방법

#### 개인등록

(2013년 기준)

#### 등록방법

온라인등록 2014년 3월 9일까지

#### 등록비

95유로(세금 미포함)

**Contact**  
 Dock des Suds  
 Latinissimo BP 30025  
 13568 Marseille  
 Cedex 2 - France  
 +33-4-91-99-00-00  
 babelmedmusic@gmail.com  
 www.dock-des-suds.org

**참가방법**      **부스참가**      (2013년 기준)

구분	조기등록 (2014.1.31까지)	일반등록	비고
기본사이즈	320유로	400유로	(+19,6%VAT)
1인추가	95유로	110유로	
(동기관) 2인	160유로	180유로	

**참가방법**      **쇼케이스**      (2013년 기준)

- 제출기한**      2013년 9월 15일
- 제출서류**      CD 2부(데모CD 가능), 이력서, 사진, 홍보자료, 테크 니컬 라이더 1부, 신청서 1부
- 우편접수처**      Babel Med Music. c/o Dock des Suds  
BP 30025 TO 13568 Marseille Cedex 20, France
-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콘서트 참가단체 선발
- 결과발표**      2014년 1월 6일(이메일 통보)
- 지원내역**      공연비 및 교통비 일부  
공연 당일 숙소 제공(트윈룸)  
공연 당일 식식 제공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한 패스(단체 대표1인)  
무대 장비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비고
쇼케이스	2011	김주홍과 노름마치	



## 미뎀

MIDEM(The World's Music Market)

### 개최지

프랑스 칸느

### 개최시기

매년 1월

### 창설년도

1967년

### 일정

2014년 2월 1일~4일

### 주최

ReedMIDEM

미뎀(MIDEM, The World's Music Market)은 상업 음악 중심의 세계 최대 음악 산업 마켓으로, 매회 관련 전문가 및 예술가 10,000명 정도가 참가한다. Pop, Rock, Metal, Jazz, Classic 등 세계 최대 음악 견본시로 음악기획, 제작사, 음악출판사, 음악관련 업체, 단체, 언론사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1월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며, 2014년에 48회를 맞는다. 미뎀(MIDEM)은 음악, 방송, 통신, 영상 분야에서 세계적인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방송영상견본시, 국제음악견본시인 MIPIM, MIPTV, featuring MILIA, MIPCOM, MAPIC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리드미뎀(ReedMIDEM)가 주최 및 주관하고 있다.

### 프로그램

(2013년 기준)

#### 컨퍼런스

Midem Talks : Live Music과 컨퍼런스  
Global Sync. and Brand Summit : 10명의 전문가들의 라이선스에 관한 피치

#### 전시/네트워킹

워킹미뎀 부스, 전시행사

#### 콘서트

Music at Noon : 매일 점심식사 콘서트와 네트워킹  
Night Sessions : 매일 저녁의 국제 콘서트  
※모든 콘서트와 쇼케이스(공식초청공연 포함)는 미뎀 프로그램 팀과 개별 프로그램 주관사가 공동 기획  
※미뎀 사무국의 예술감독이 프로그램 총괄을 맡고 있음

#### 어워드

Midem Hack Day 30여명의 각국의 개발자들이 모여 이를 동안 어플리케이션 등을 기획하는 프로젝트  
Sync Sessions : 미디어 전문가들 앞에서의 음악 발표, 선정

Marketing Competition : 마케팅 경연대회

Midemlab: 스타트업과 어플 개발자 대회 등

#### 학술행사

Legal Summit : 국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협회와 협력하여 음악 산업의 법적 이슈들에 대해 세미나, 마스터 클래스

Continuing Education Programme : 평생 교육 프로그램

Midem Academy : 미뎀 아카데미

**Contact**

+33-1-41-90-44-42  
 customerhelpdesk  
 @reedmidem.com  
 www.midem.com

**규모** (2013년 기준)  
**참가자총** 75개국 참가자 64,00명  
**참가단체** 3,000개, 부스전시 단체 1,350개, 언론 350명, 아티스트 450명, 컨퍼런스 150개  
**참여장르** 분석음악 64%, 기술 18%, 아티스트 11% 브랜드 7%

**참가방법**      **개인참가**      (2013년 기준)

조기등록	일반등록	마감후 등록	현장등록
525유로	700유로	800유로	900유로

※ 시기에 따라 다름. 19.6% VAT 추가

**참가방법**      **부스전시**

구분	사이즈	등록비	비고
스탠드	9m <sup>2</sup>	사이트 참고	※ 각 총별, 사이즈별 가격 다름, 19.6% VAT 추가
스탠드 패키지	m <sup>2</sup> 당	245~490유로	
제작 스탠드	9m <sup>2</sup>	사이트 참고	

## 재즈어헤드!

Jazzahead!

### 개최지

독일 브레멘

### 개최시기

매년 4월

### 창설년도

2006년

### 일정

2014년 4월 24일~27일

### 장소

브레멘 콩그레스센터

브레멘 메세센터

### 주최

메세 브레멘(messe-bremen)

WFB(Wirtschaftsförderung

Bremen)

### 협력

독일 재즈 미팅

슐라흐토프(Schlachthof)

뮤직페스트 브레멘

### 후원

스쿠다 쿨투르

마리팀 호텔 브레멘

야마하 뮤직 유럽

슈파르다 은행 하노버 외

재즈어헤드!(Jazzahead!)는 매년 4월 나흘 동안 독일 브레멘 전역에서 40여개의 콘서트를 포함 컨퍼런스, 심포지엄 부스전시 및 축제가 진행 되는 축제형 전문재즈마켓이다. 2006년 창설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있고 중요한 재즈마켓이자 축제로 급성장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레이블, 매거진, 퍼블리셔, 축제 프로듀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에이전트, 악기 제작사, 오디오장비 제작사, 지원기관 등이 참가하고 있다.

### 프로그램

(2013년 기준)

#### 개막공연

페스티벌해외공연나이트(Overseas Night)

독일재즈나이트(German Jazz Night)

유러피언 재즈 미팅(European Jazz Meeting)

#### 부스전시

재즈음악단체/기관 부스전시

#### 컨퍼런스

재즈산업관련 이슈조망

#### 특별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재즈 LP/CD 마켓 등 스페셜 프로그램

### 규모

(2013년 기준)

#### 쇼케이스

25개 무대들을 걸친 80개 이상 콘서트, 쇼케이스

관객 10,000여명

#### 부스전시

부스전시 33개국 646여개 부스

#### 참가자

부스 참가자 2,500여명

### 참가방법

#### 개인참가

(2013년 기준)

구분	조기등록 (2013.10.14까지)	2014.1.20까지	행사날짜까지
전일등록	115유로	140유로	170유로
목요일 일일 패스	-	-	45유로
금/토 일일 패스	-	-	90유로

\* 19% 세금 추가

**Contact**

WFB Wirtschaftsförderung  
 Bremen GmbH  
 Geschäftsbereich  
 Messe Bremen  
 Findorffstraße 101  
 D-28215 Bremen  
 +49-421-3505-298  
 info@jazzahead.de  
 www.jazzahead.de

**참가방법**

등록기간

등록비

**부스참가**

(2013년 기준)

2014년 3월 20일 마감

Basic(190유로) 2명 패스 포함

전기사용, 벽체, 조명 2개, 판넬, 테이블 1개, 의자 4개,  
 브로셔 스탠드, 2명의 패스, 무선 인터넷 티켓 두 개

**참가방법**

**쇼케이스**

(2013년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howcase.jazzahead.de/registration/>

※쇼케이스 신청을 위해서는 부스신청 필수

제출서류

단체 소개, 사진, 음원(mp3)

공모기간

2013년 10월 31일

등록비

없음

선정방식

작품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발표

2013년 12월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비고
쇼케이스	2010	허브뮤직(재천&미연)	

## 바르셀로나 뮤직마켓

MMVV(Mercat de Música Viva de Vic)

### 개최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 개최시기

매년 9월

### 창설년도

1988년

### 일정

2013년 9월 12일~15일

### 주최

카탈로니아문화산업인스티튜트  
(ICIC)

### 후원

국립무대예술음악인스티튜트  
대중음악포럼의집(FEMP)

### Contact

Mercat de Musica Viva  
de Vic

Historiador Ramon  
d'Abadal i Vinyals 5  
2a planta  
08500 VIC, Spain  
+34-93-883-31-00  
mmvv@vic.cat  
www.mmvv.net

바르셀로나 뮤직마켓(MMVV, Mercat de Música Viva de Vic)은 참여, 라이브공연, 아이디어라는 세가지 컨셉을 표방하는 라이브 음악 마켓이다. 1988년에 창설된 이래로 매년 9월에 개최되며 4일간 바르셀로나에 모여 다양한 음악의 공연, 포럼, 지식과 정보 교환, 작품 판매 및 전시 등을 실시한다. 지중해만 지역과 스페인 남부 카탈로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까지 시장을 형성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011년 행사를 위한 쇼케이스 등록은 600여 단체의 제안서를 접수 받았고, 약 70여개의 단체의 공연이 선정되었다. 2011년 제23회 바르셀로나 뮤직마켓(MMVV)은 유럽월드뮤직축제포럼(EFWMF)과 연계 개최했다.

### 프로그램

#### 콘서트

전막공연(Stage) : 45분 공연, 도시 전역 낮/밤 공연  
쇼케이스(Showcase) : 25분 공연, 페어 쇼케이스 무대  
순회공연(Itinerant) : 순회장소에 따라 약 45분 공연

#### 부스전시

파빌리온물 : 상업페어(commercial fair)

#### 포럼

포럼(Forums)

#### 네트워킹

전문가미팅(Professional meetings)

#### 어워드

Puig Porret Prize

### 규모

(2012년 기준)

#### 참가자

131,198명 참가자, 1,000명 전문가, 330명 아티스트

### 참가방법

#### 쇼케이스

(2013년 기준)

#### 신청분야

전막공연(Stage Format)  
쇼케이스(Showcase Format)  
순회공연(Itinerant Format)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제안서, CD 외

#### 공모기간

2013년 3월 31일

#### 선정방식

MMVV 예술감독에 의해 작품 선정

#### 결과발표

2013년 6월초 선정결과 발표

## 에쓰노 스웨덴 월드뮤직 캠프

Ethno Sweden World Music Camp

### 개최지

스웨덴 래트비크(Rattvik)

### 개최시기

매년 여름

### 창설년도

1990년

### 일정(2013년 기준)

2013년 6월 28일~7월 7일

### 장소

스웨덴 래트비크 전역

### 주최

People's

House of Music

1990년 시작된 최대의 월드뮤직 캠프인 에쓰노 스웨덴(Ethno Sweden)은 매년 15개국에서 100명의 젊은 전통예술 아티스트들이 모인다. 매년 7월 첫주 스톡홀름에서 300km 북서쪽으로 떨어진 래트비크에서 개최되며, 참가자들은 각자가 자국의 전통 음악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서로의 음악을 배운다. 참가자들에게 16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며 프로페셔널 음악 리더가 가르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참가자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가르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에쓰노 스웨덴은 열흘간 다양한 음악 워크숍 외에도 댄스 이브닝, 여행, 콘서트 등이 진행되며 래트비크에서 개최되는 Bingsio folk festival에서와 스톡홀름에서의 콘서트로 마무리 된다. 래트비크의 포크뮤직 하우스(Folkmusikens Hus)에서 진행되며, 매년 스웨덴 참가자 외에도 인도, 모잠비크,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을 포함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참가하고 있다.

Ethno는 해마다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영국,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우간다 등지에서 여름 캠프를, 그리고 보다 작은 규모의 투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인 젊은 전통민속음악 연주자들은 서로 만나 서로의 음악과 문화에 대해 가르침을 주며, 워크숍, 찻 세션, 세미나, 공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여러 음악 스타일을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프로그램** 2014년 세부일정 미공개

**규모** (2012년 기준)

**참가국** 인디아, 모잠비크, 팔레스타인 등 다수 국가 참가

**참가방법** 개인참가

**신청방법** 에쓰노 공식 사이트에서 등록

※세계의 에쓰노 음악 캠프들

호주 에쓰노	프랑스 에쓰노	에스토니아 에쓰노
크로아티아 에쓰노	독일 에쓰노	플랜더스 에쓰노
키프러스 에쓰노	히스투리아 에쓰노	우간다 에쓰노
덴마크 에쓰노	마케도니아 에쓰노	스웨덴 에쓰노
영국 에쓰노	스코틀랜드 에쓰노	탄자니아 에쓰노

### Contact

www.ethno.se

karin.hjertzell@folkmusike

nshus.se

+46-725-12-68-62

+46-725-12-68-60

## 클래시컬 넥스트

Classical Next

### 개최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 개최시기

매년 8월

### 창설년도

2012년

### 일정

2014년 5월 14일~17일

### 주최

월드뮤직엑스포 WOMAX

### 주관

CLASS

2012년에 첫 회를 시작으로 클래식음악과 예술음악을 중심으로 전통, 실험적, 비/주류 음악을 포함하며 성장 중이다. 참가자가 직접 주제와 내용을 제안하고 컨퍼런스 세션을 기획하면 선정단에 의해 심사되는 방식으로 참가자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월드뮤직엑스포인 위멕스(WOMEX)에서 제작하며 독일의 CLASS에서 주관한다.

무엇보다도 클래식 넥스트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전통 음악이 현대 음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클래식에 기반을 두되 실험적인 측면을 살린 공연들이 주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 프로그램

#### 쇼케이스

콘서트, 비디오 상영 등

####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세미나, 토론, 1:1멘토링 등

#### 엑스포

레이블사, 퍼블리셔, 에이전트, 축제 및 연합 전시

#### IMZ

IMZ 인터내셔널 뮤직+미디어 센터(비엔나)의 프로그램

#### 필름 상영

### 규모

(2012년 기준)

#### 쇼케이스

400여개 회사, 74개 엑스포, 전문가 700여명, 연주자 60여명

#### 참가국

41개국 5대륙 참가

### 참가방법

### 개인참가

### 참가신청비

	2013년 2월 1일까지	3월 22일까지	5월 3일까지	현장등록
회사/개인(1인)	255유로	305유로	335유로	365유로
회사/개인(3인)	595유로	715유로	790유로	860유로
회사+추가 (4인부터)	205유로	245유로	270유로	295유로
미디어	175유로	215유로	235유로	255유로
학생	80유로			
엑스포 스탠드	840유로			

※부가세 20% 별도

**Contact**  
 Classical:NEXTc/o  
 piranha  
 womex  
 Bergmannstr.102  
 10961 Berlin Germany  
 T. +49-30-318-614-47  
 F. +49-30-318-614-10  
 www.classicalnext.com

**참가방법**  
**등록기간**  
**등록비**

**쇼케이스 참가** (2013년 기준)  
 2014년 3월 20일 마감  
 Basic(190유로) 2명 패스 포함  
 전기사용, 벽체, 조명 2개, 판넬, 테이블 1개, 의자 4개,  
 브로셔 스탠드, 2명의 패스, 무선 인터넷 티켓 두 개

**참가방법**  
**신청방법**

**쇼케이스** (2013년 기준)  
 CLASSICAL:NEXT 주최 본부에 직접 음악 파일 3개  
 (mp3 포맷, 25MB 이내), 디스코그래피, 바이오그래피,  
 사진, 리뷰 및 단체 정보, 무대 계획서, 테크니컬 라이  
 더 등의 서류를 패키지 겉면에 단체/아티스트의 이름  
 과 "for promotional use only"라고 명시 후 제출

**신청기간**  
**결과발표**

2013년 9월 13일까지  
 추후 공지



## 베를린 뮤직위크

Berlin Music Week

### 개최지

독일 베를린

### 개최시기

매년 9월

### 창설년도

2009년

### 일정

2014년 9월 3일~7일

### 장소

템펠호프 공항

베를린 뮤직위크(BMW, Berlin Music Week)는 베를린을 음악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악 산업 박람회(popkomm), 컨퍼런스(all2gethernow), 음악 페스티벌(Berlin Festival), 장르별 특별 이벤트(Kulturbrauerei) 등이 Kulturprojekte Berlin의 주관으로 베를린 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상업 음악 중심의 음악산업 전문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일반관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베를린 뮤직위크는 문을 닫은 템펠호프 공항에서 열리며 이 곳에서는 베를린 뮤직위크 뿐 아니라 패션위크, 아트위크 및 포럼 또한 열린다.

2009년 창립 후 2010년 9월 베를린에서 첫 회 개최, 2013년에 9월에 4회를 맞게 된다. 2011년에는 Maschinenhaus in the Kulturbrauerei에서 WOMEX stage @ BMW가 개최되었다.

### 주요행사

#### popkomm

B2B 마켓, 프랑스 MIDEM에 이은 세계 제 2의 음악 산업 박람회. 2012년 9월 5~7일(2011년에는 'Meet Berlin' 이란 구호아래 네트워킹과 쇼케이스 중점으로 Flughafen Tempelhof에서 개최됨)

#### all2gethernow

비공식쇼케이스, TPAM 사무국에 의한 선정

#### Berlin Festival

해외단체 초청 쇼케이스, TPAM 사무국 선정

#### 기타

Kulturbrauerei, Club acht, ClubSpreeBerlin, U-TON Projekt, Music award 등

### 규모

(2012년 기준)

#### Word on

20여개국 2,000명의 참가자,

#### sound(a2n)

300명의 저널리스트

#### Club Nacht

50개의 클럽 참가, 18,000명 참가

### 참가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 개인참가

온라인 신청

※등록비 : 시기와 참가 기간에 따라 99~169 유로

#### 부스참가

온라인 신청

※등록비 : 장소별, 사이즈별로 180~9,500유로로 가격 상이(2014년 미공지)

### Contact

management

@berlin-music-week.de

+49-30-247-49-787

www.berlin-music-week.de

# 메디맥스

Medimex

**개최지**

이탈리아 바리

**개최시기**

매년 12월

**창설년도**

1997년

**일정**

2013년 12월 6일~8일

**장소**

피 에라 델 레반테

**주관**

Puglia Sounds  
MEI

**Contact**

MEDIMEX c/o  
PUGLIASOUNDS,  
Via Imbriani, 67-70121  
Bari-Puglia, Italy  
+39-80-5243000  
www.pugliasounds.it

메디맥스(Medimex)는 Puglia Sounds가 주관하고, 이탈리아 음악 시장과 유럽 음악 시장 사이의 관계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열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 페어이다. 예술 교류, 무역 관계를 증진시키고, 음악 업계 전체의 발전을 지원한다. 또한 1997년에 창설된 이탈리아의 독립음악마켓인 MEI를 2011년부터 함께 주관한다.

페어 기간 동안에는 4,000 평방미터 넓이의 전시 공간에서 150여개의 부스와 1,0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3개의 공연장에서 선정된 쇼케이스와 콘서트들이 펼쳐지며, 그 외에도 컨퍼런스, 발제, 워크샵, 미팅 등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주요행사** Medimex Expo, Medimex Live, Medimex Conference, Medimex Professional

**규모** (2012년 기준)

**참가자** 20여개국 1,000여명, 50개의 포커스&회의, 12개의 쇼케이스와 콘서트, 부스 150개

**참가방법**

**신청금액** Operator badge : 50유로+VAT  
Additional badge for exhibitors: 25유로+VAT  
Daily Expo + Showcase ticket : 10유로

**부스참가** 온라인 신청

	~7월 15일 11,12년도 참가자	~10월 7일	~10월 14일
FIRST STAND	480/420유로	540유로	420유로
SECOND STAND	420/360유로	480유로	360유로
THIRD STAND	390/330유로	450유로	330유로

## 리뷰 [집중조명-축제/마켓] 새로운 클래식 전문 마켓 클래식:넥스트 클래식음악의 중심 비엔나에 울려 퍼진 가야금 트리오

'클래식컬:넥스트(Classicat:NEXT)'는 2012년 처음 시작된 클래식 전문 포럼 형식의 아트마켓이다. 2012년 독일의 뮌헨에서 열린 첫 클래식:넥스트에는 전세계 41개국에서 400여 개의 클래식 관련업체와 70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74개의 전시 부스와 24개의 컨퍼런스, 60여 아티스트의 쇼케이스가 진행 되었다. 2회째인 올해는 2013년 5월 29일에서 6월 2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진행되었다.

### 메이저 음반레이블, 기획사, 예술가들이 참여한 클래식 중심 신홍 마켓

기존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관련 아트마켓은 프랑스의 칸에서 열리는 미렘(MIDEM)으로, 국내 클래식 업계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오래된 아트마켓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 미렘은 유로 팝에서부터 월드뮤직, 클래식까지 매우 다양한 장르들을 모두 다루고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국제적인 아트마켓의 특성상 각 전문 장르들의 특수성을 모두 살릴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 음악 장르 중 가장 적은 시장감소율(?)을 보여주는 클래식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클래식 음악을 전문으로 다루는 아트마켓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시작된 아트마켓이 클래식:넥스트다.

클래식컬:넥스트는 다른 아트마켓들과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쇼케이스와 부스 전시, 컨퍼런스 그리고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미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로 각 클래식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실질적인 아트마켓의 활용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다른 마켓과는 다른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클래식컬:넥스트가 생긴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아트마켓 행사 임에도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행사의 진행이 세계적인 월드뮤직 엑스포를 진행하는 WOMEX팀에 의해 조직, 운영되기 때문이다. 클래식컬:넥스트는 공식적으로 WOMEX의 서브 브랜드로 시작이 되었고, 그러기에 세계 여러 많은 클래식 단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었다.

(\*WOMEX 2013은 영국의 웨일즈의 카디프에서 올해 10월 23일~2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클래식컬 넥스트에 '가야금 트리오'의 쇼케이스와 함께 참가 하였다. 참가 팀의 구성과 발표된 공연의 내용도 클래식컬:넥스트 쇼케이스에 맞게 구성하였다. 클래식컬:넥스트 참가의 첫 목표는 단일 아티스트의 소개가 아닌 한국 작곡가를 해외 클래식시장에 제대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오페라 <카르마>, <이쁜이의 혼례>, <천생연분> 등의 대작에서부터 많은 실내악, 가곡까지 왕성한 작곡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국악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온 한예종의 임준희 교수를 중심으로, 정통 클래식 형식을 갖춘 트리오 형식의 작품인 <덴싱 산조>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외에서 제작 가능한 작품으로는 트리오 포맷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작곡가의 주도로 가야금이 주축이 되어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가 결합된 '가야금 트리오'가 구성이 되었다. 쇼케이스에는 100여 팀이 넘는 세계각국의 신청 팀 중 단 8팀이 선정되었는데, 이중 하나가 '가야금 트리오'이다.



오프닝, 제니퍼 다우터만(Jennifer Dautermann) 디렉터 |  
Photo by Eric van Nieuwland



컨퍼런스 '오늘날의 오케스트라(Orchestras Today)' |  
Photo by Eric van Nieuwland

### 쇼케이스, 부스전시, 각종 세션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음악마켓

이번 클래식:넥스트 2013이 진행된 비엔나의 MAK(Austrian Museum of Applied Arts/Contemporary Art; 오스트리아 응용예술/ 현대예술 박물관)은 작은 규모이지만, 도시의 중심 근처에 위치하고, 공간 활용이 좋아 이런 행사를 진행 하기엔 안성 맞춤인 장소였다. 2014년 클래식:넥스트도 이곳에서 다시 진행한다고 한다. 5월 29일 MAK의 메인 홀에서 열린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호프와 벤자민 슈미트의 오프닝 이벤트의 진행으로 공식적인 2013 클래식:넥스트가 시작되었다.

부스전시에는 각국의 음반관련 업체, 공연관계자, 매니지먼트 회사 등 클래식 음악관련 회사들이 자리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음악 관계자들과 아티스트들과 상담을 하거나 각종 판촉물들을 전시했다. 40여 개 국가에서 8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여 대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나 이례적으로 메이저 음반사인 유니버설 오스트리아가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하고 별도로 옐로우 라운지를 연계하여 진행하였는데, 그만큼 이 행사가 메이저 음반사들에게도 좋은 마케팅 도구로 판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스 전시와 함께 다양한 컨퍼런스 세션이 펼쳐졌다. (안타깝게도 롯데아트홀의 김주호 사장의 발표가 그의 갑작스런 타계로 취소되었다는 소식이자 렉처 홀-Lecture Hall-문에 붙어있었다.) 이번 아트마켓에서는 아시아 마켓에 대한 여러 세션이 마련되어, 유럽인들의 아시아 클래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클래식 소비자들을 위한 디지털 개발 전략", "중국의 예술 경영 도구" 등의 세션이 흥미로웠다.

라이브 쇼케이스는 이를 동안 포기와 베스(Porgy and Bess) 클럽에서 진행 되었다. 재즈 클럽으로도 잘 알려진 이곳은 유럽 재즈 거장들의 단골 연주 장소이기도 하지만, 현대적인 클래식 공연들의 초연을 많이 진행하기도 하는 2층 구조의 다목적 홀이다. 어쿠스틱 공연에 최적화된 공연장은 아니었지만, 멋진 피아노와 엔지니어들 덕분에 음향의 질은 여느 공연장 못지 않게 좋았다. 첫날 라이브 쇼케이스의 첫 시작은 프로그램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클라리넷 사중주단으로 거쉬윈의 <랩소디 인 블루> 같은 가벼운 작품들을 가지고 유머스럽고, 여유 있게 진행 되었다. 각 팀의 라이브 쇼케이스는 30분씩 하루에 4팀의 공연이 진행 되었다. 이 라이브 쇼케이스 이외에도 비디오 쇼케이스와 클래식 음악 영화 상영, 그리고 후반부에 추가된 'off C:N' 이 진행되었다.

5월 30일 저녁 10시에 시작된 우리의 라이브 쇼케이스에는 작곡가 임준희 교수가 먼저 무대에 올라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연주할 곡목에 대한 짧은 해설을 하였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가야금에 대한 설명에 관객들은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가야금 트리오 곡 <덴싱 산조>, 가야금 산조인 <혼불>, 세계초연

의 가야금 트리오 곡 〈아리랑 산조〉까지 30분의 연주가 끝나자 150여명의 관객의 열띤 환호가 이어졌다. 가야금 트리오의 쇼케이스 준비 때문에 많은 세션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유럽 클래식 시장의 한 복판에 와있는 것을 실감했다. 이번 행사는 음반가계에서나 보던 레이블들과 유럽의 공연장들의 담당자, 클래식 아티스트들을 쉽게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전에 참가자들과 미팅을 위한 모든 참가자들의 주소록이 사이트에 게재되어있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클래식 음악이 클래식의 본고장인 비엔나, 아니 유럽의 중심에서 이렇게 강한 호소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쇼케이스 중인 '가야금 트리오'

[출처] TheApro(제)예술경영지원센터) (2013년 7월 16일)

〈축제/마켓〉 클래식음악의 중심 비엔나에 울려 퍼진 가야금 트리오 일부발췌

[필자] 박문선 대원문화재단 사무국장



## 국제음악마켓 | 미주(북미/중남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뮤직**  
SXSW Music, South by SouthWest Music

**브라질 뮤직페어**  
Feira Música Brasil

**포르토 뮤지칼**  
Porto Musical

**과달라하라 국제 음악마켓**  
FIM, Feria Internacional de la Música

##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뮤직

SXSW Music(South by SouthWest Music)

### 개최지

미국 텍사스 오스틴

### 개최시기

매년 3월

### 창설년도

1987년

### 일정

2014년 3월 7일~16일

### 연계행사 및 일정

**SXSW Interactive**  
2012년 3월 9일~13일

**SXSW Film**  
2012년 3월 9일~17일

**SXSW Week**

(Music+Interactive+film)  
2012년 3월 9일~18일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뮤직(SXSW Music, South by SouthWest Music)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 음악 컨퍼런스와 축제이다. 1987년 창설되었으며, 1994년부터 영화산업분야 SXSW Film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분야 SXSW interactive Festival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또한 SXSW는 미국의 북동부인 캐나다 토론토에서 봄 시즌에 개최되는 North By Northeast(NXNE)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SXSW는 미국 텍사스 주의 오스틴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음악 산업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포크, 댄스, 클래식 등의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한 음악을 수용하고 있으며,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제3회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전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에 SXSW 사무소를 두고 있다. 1987년 첫 개최시에 700여명의 등록자가 마켓에 참가하였으며, 현재는 13,000여명의 등록자가 컨퍼런스 와 마켓 그리고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타악그룹 공명이 쇼케이스에 참가한 바 있다. 특히, 인터랙티브 페스티벌(SXSW Interactive)은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웹개발자 및 기업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SXSW Interactive를 통해 음악과 기술의 접목을 시도하는 다양한 기술 쇼케이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 프로그램

**컨퍼런스(Talks)** SXSW Keynote(주제세션)

멘토링 세션

직군별 미팅 세션

**쇼케이스(Shows)** Bands(공식쇼케이스)/Shows(공식쇼케이스)

전문가패널토론

**전시(SXSW)** 부스전시,쇼케이스,전문가패널토론

**Trade Show)** ※ SXSW Music, Interactive, Film 통합박람회

Interactive: 2013년 3월 8일~12일

Film: 2013년 3월 8일~16일

Music: 2013년 3월 12일~17일

**연계행사** SXSW Interative, SXSW Film

※ 월드뮤직 분야 위믹스와 협력



**규모**

(2012년 기준)

관계자	19,000명
미디어 관계자	3,200여명
무대	100개 이상
참여 국가	50개국
공연	2,296회
	인터넷내셔널 공연
해외 공연	547회

**참가방법**

개인참가

구분	조기등록	사전등록	일반등록	마감후등록	현장등록
	2013년 9월 6일까지	2013년 10월 18일 까지	2013년 11월 22일까지	2014년 1월 10일까지	-
SXSW Week	\$1295	\$1375	\$1450	\$1525	\$1695
Film+Interactive	\$995	\$1095	\$1195	\$1290	\$1495
SXSW Music	\$625	\$650	\$695	\$725	\$795
SXSW Film	\$495	\$525	\$550	\$595	\$650
SXSW Interactive	\$795	\$895	\$995	\$1095	\$1295

**Contact**

SXSW Inc.  
P.O. Box 685289  
Austin, TX 78765  
+1-512-467-7979  
music@sxsw.com  
www.sxsw.com/music

**참가방법**

쇼케이스

**등록일정**

\$33(2013년 9월 6일까지)/\$45(10월 11일까지)

**등록방법**

소닉비즈 SXSW페이지(sonicbids.com/sxsw)

**제출자료**단체소개, 음반소개, 음원(MP3포맷), 사진  
테크니컬 라이더, 악기 및 인원구성, 프레스키트 등**선정방법**

SXSW 예술감독 및 프로그램별 협력기관과 선정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작품명
쇼케이스	2010	공명	
	2011	그룹아나야	음유시가

## 브라질 뮤직페어

Feira Música Brasil

### 개최지

브라질 순회 개최

### 개최시기

매년 8월

### 창설년도

2007년

### 일정

2013년 5월 시작(교육 활동)

2013년 8월 21~24일

(공연 프로그램)

### 장소

브라질, 포르탈레자

### 주최

브라질 문화교육부

### 주관

브라질 음악센터(Cemus)

### 협력

브라질 음악네트워크

(Rede Muica Brasil)

### Contact

Street Placido Coelho

Junior Engineer, 180

- Vicente Pinzon, Fortaleza

+55-85-3262-5011

secretaria@

feiradamusica.com.br

브라질 뮤직페어는 브라질 음악 네트워크와 브라질 음악 센터 (CEMSUA)에 의해 2007년 창설되었다. 음악분야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및 중개자들의 네트워크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된다. 브라질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2007년과 2009년에 헤시피에서 개최되었고, 2010년에는 12월 벨루오리존치에서 개최되었다. 콘서트, 예술가 워크숍, 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브라질 음악 네트워크는 AMB(브라질 독립음악협회), ABPD(브라질 기록생산협회), AEBR(브라질 출판사협회), ABEM(브라질 음반제작사협회), ABRAFIN(브라질 독립출제협회), ABEA, ARPUB(공개라디오협회), 국립음악포럼(FNM), 브라질연예비즈니스협회, ABM(브라질 음악아카데미) 등의 브라질 음악 네트워크가 함께 협력 개최한다. 그동안 전세계의 800~2000여명의 아티스트가 브라질 음악페어의 공연 프로그램(대중음악분야/클래식분야)에 지원하였으며 각회별 30여팀이 선정되어 공연하고 있으며, 주최기관인 브라질 문화교육부가 아티스트에게 공연료를 지원한다.

### 프로그램

#### 쇼케이스

Independent Music Show

※ 쇼케이스 선정자/브라질 및 전세계에 오픈

#### 부스전시

비즈니스 박람회

#### 네트워크링

국제 음악의 만남, 비즈니스 미팅 등

#### 워크숍

음악제작워크숍, 문화행정워크숍,

사운드 관리 워크숍, 소셜네트워크포럼 등

### 참가방법

#### 쇼케이스

(2012년 기준)

#### 등록부분

대중음악분야(DJ 포함), 클래식 분야

#### 등록일정

2012년 3월 31일까지 연장공모

#### 선정방법

온라인 등록 및 관련 자료 송부

(출연진 및 기술진 40분 공연 개요, 테크니컬 라이더 등)

## 포르토 뮤지컬

Porto Musical

### 개최지

브라질 페르남부쿠주 헤시피

### 개최시기

출수년 2월

### 창설년도

2005년

### 일정

2013년 1월 30일~2월 2일

### 장소

Arsenal da Marinha  
Cine-Teatro Apolo Hermilo

### 주최

Astronave Iniciativas Culturais

Fina Produção

### 협력

WOMEX

Porto Digital

### 후원

헤시피시/페르남부쿠주정부

브라질사회경제개발은행

브라질 문화부

브라질 내셔널 문화펀드

### Contact

www.portomusical.com.br

포르토 뮤지컬(Porto Musical)은 브라질 페르남부쿠주 헤시피에서 개최되는 음악 컨퍼런스이다. 2005년 창설되어 2013년 제 6회를 맞이하였다. 세계 최대 월드뮤직박람회인 워멕스(Womex)와 헤시피에서 활동하는 100여개의 음악단체연합인 포르토 디지털(Porto Digital)의 협력으로 개최되며, 워멕스(Womex)의 오프스프링(Offspring) 컨퍼런스로 지정되어 협력 운영된다. 2013년 프로그램은 Go Brazil!, Go International!, Go Digital! 이라는 3개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컨퍼런스에서 3개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브라질의 음악 시장 동향과 관점, 그리고 음악 제작환경과 전세계의 음악 산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3일간 전세계의 음악 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발제를 중심으로 약 15여개의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그리고 밤시간에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의 16개의 쇼케이스가 개최되면서, 이를 통해 산업적 이슈와 예술적 공유와 정보 소통의 균형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

#### 컨퍼런스

Go Brasil/ Go International!

브라질 및 세계의 음악 시장 동향과 관점, 음악 제작 환경에 대한 이슈 논의

Go Digital! 음반의 디지털기술화 및

산업화와 관련된 이슈와 기술 환경에 대한 논의

#### 쇼케이스

스카(ska), 삼바(samba), 발칸비트(Balkan Beats)

#### 네트워킹

쇼케이스 공연 이후 네트워킹 파티

### 규모

(2013년 기준)

#### 컨퍼런스

3일간 20세션, 9개국 30여명 발제자

#### 쇼케이스

3일간 14개 쇼케이스 프로그램

### 참가방법

#### 개인참가

(2013년 기준)

구분	일정	등록비
조기등록	2013년 1월 27일까지	R\$ 120
일반등록	2013년 1월 28일부터	R\$ 150

## 과달라하라 국제 음악마켓

Feria Internacional de la Musica

### 개최지

멕시코 과달라하라

### 개최시기

매년 5월

### 창설년도

1999년

### 일정

2013년 5월 30일~6월 2일

### Contact

gnacio Ramírez No. 24  
Sector Hidalgo C.P. 44160  
Guadalajara, Jalisco México  
+52-33-38260606  
contacto@  
fimguadalajara.mx  
www.fimguadalajara.mx

라틴 문화를 알리고 예술가와 음악프로듀서들의 전문적인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과달라하라대학에서 주최하는 국제적인 마켓이다. 축제의 목표 중 하나는 전통에서 일렉트로닉 예술의 범위를 넘나들며 남미 예술 현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보다 넓은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외 음악가, 작곡가, 레코드레이블, 매체, 학자 등 음악산업계 전반이 참여한다.

### 프로그램

콘서트&쇼케이스

컨퍼런스 & Round Tables

엑스포

예술가, 프로모터, 음악관련 테크놀로지 전시,  
음향 · 조명업체, 기관 및 음악대학 등

필름상연

비디오 쇼케이스

### 참가방법

개인참가

일반 : \$30

(강의, 공연,

아동, 학생, 노인 등 : \$20

워크샵 포함)

### 부스 참가

구분	요금	지원사항
3x2 stand	16,500 페소	둘레막 설치, 테이블1,의자1, 간판, 조명, 전선연결
3x3 stand	22,000 페소	둘레막 설치, 테이블1,의자2, 간판, 조명, 전선연결
4x4 stand	38,500 페소	둘레막 설치, 테이블1,의자2, 간판, 조명, 전선연결
6x4 stand	55,000 페소	둘레막 설치, 테이블1,의자4, 간판, 조명, 전선연결

## 공연예술네트워크

###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IETM,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 국제공연예술협의회

ISPA,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 전미공연예술네트워크

NPN,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 중남미기획자연합회

La RED, La RED de Promotores Culturales de Latinoamérica y El Caribe

### 유럽월드뮤직축제포럼

EFWMF, The European Forum of Worldwide Music Festival

##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IETM(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 개최지

유럽회원국순회(정기총회)  
전세계회원국순회(위성회의)

### 개최시기

봄 / 가을(정기총회)  
시기별 상이(위성회의)

### 봄 정기총회 2014

#### 개최지

프랑스 몽펠리에

#### 일정

2014년 4월 16일~19일

### 가을 정기총회 2013

#### 개최지

그리스 아테네

#### 일정

2013년 10월 17일~20일

### 아시아 위성회의 2014

#### 개최지

호주 멜버른

#### 일정

2014년 5월 12일~14일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IETM,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는 IETM멤버와 각각의 환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기구로, 유럽을 중심으로 42개국 400여개 공연예술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협의체이다. 회원사간의 혁신적인 컨템포러리 공연 작품의 교류 및 협업을 도모하고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것이 그 기본 역할로, 회원사간의 이동(mobility), 교류(exchange), 협력(collaboration)을 목표로 한다. 멤버간 제안과 토론으로 운영되며, 다른 환경의 파트너와의 인식 공유와 공동 제작, 새로운 관점, 주제, 프로그램 개발, 활발한 접촉과 수용을 지향한다. 유럽과 그 외 지역의 공연예술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로서 공공기관, 예술 재단 등이 협력 회원사(Associate Member)로 가입되어 있으며, 현대연극, 무용, 음악, 시각예술, 설치, 퍼포먼스, 문학, 건축, 영화, 그리고 새로운 예술과 미디어 형식을 포괄한다. 유럽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서유럽, 중남미 유럽, 중앙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IETM의 총회는 연 2회, 모두 유럽지역에서 이뤄지며 개최지역의 문화적 특성, 자산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대공연예술회의(IETM)는 봄과 가을의 정기 총회 이외에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형식의 위성회의를 개최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각 아트마켓과 연계하여, 싱가포르(2005), 베이징/상하이(2006), 서울(2007), 도쿄(2008), 자카르타(2010), 요코하마(2011)에서 IETM 아시아 위성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 프로그램

정보세션	프리젠테이션 형태의 정보제공 세션
워킹그룹세션	지정패널 중심으로 특정 주제별 발제 및 토론
미팅그룹세션	IETM 멤버가 제안하는 특정 주제별 세션
뉴스라운드	5분 스피치로 진행중인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발표 새 멤버나 첫 번째 참가자들이 기관소개/관심사 공유
브레인스토밍	프로젝트 또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15분 동안 발표 참가자간 공개된 브레인스토밍 세션 ※ 참가자는 제안서를 사무국에 사전 제출
공연관람 등	공연관람, 회원국투어, 아티스트 토크 등 ※ 각 총회에 따라서 프로그램 변경/추가됨

**Contact**

IETM aisbl  
 19 Square Sainctelette  
 1000 Brussels – Belgium  
 +32-2-201-09-15  
 ietm@ietm.org  
 www.ietm.org

**규모**

참가자

50여 개국의 500여 해외 회원기관

**참가방법**

등록방법

**개인참가**

(2013년 기준)

온라인신청 <http://register.ietm.org>

구분	조기등록	일반등록	비고
IETM 회원	50유로	100유로	※ 참가자 소속기관 연간소득에 따라 상이
IETM 비회원	100유로	300유로	

## 국제공연예술협의회

ISPA(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 개최지

미국 뉴욕(1월 총회)  
선발된 회원국(6월 총회)

### 개최시기

매년 1월, 4~6월 정기 총회

### 창설년도

1949년

### 뉴욕정기총회

#### 개최지

뉴욕

#### 개최일정

2014년 1월 14일~16일

### 세계정기총회

#### 개최지

콜롬비아 보고타

#### 개최일정

2014년 4월 7일~12일

국제공연예술협의회(ISPA,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는 공연예술 전문가 및 지도자간의 국제 네트워크를 발전, 강화시키고, 회원들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1949년 창설된 비영리조직으로, 50개국 이상 6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네트워크 기관이다. 회원은 공연장, 축제, 공연기획사, 문화관련 정부 및 기관 종사자, 매니저 등의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1월 뉴욕에서 정기총회(New York ISPA Congress)를 진행하며, 매년 4~6월 총회(개최도시명 ISPA Congress)는 선발된 회원국에서 개최된다. 지역별, 직군별, 장르별 유기적 소그룹화가 이루어지는 미국공연기획자협의회 컨퍼런스(APAP Conference, 이하 APAP)와 달리, ISPA는 보다 느슨한 형태의 리더들의 모임이며, 프로그램도 다양한 소그룹의 관심사에 따라 나누기 보다는 매우 포괄적이고 전체적이다. APAP가 'Network of Networks'의 성격을 지닌다면, ISPA 뉴욕정기총회는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는 독립적 개체들이 모여 교류하는 'individual network'의 성향을 띠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세계 정기총회의 개최지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로, 보고타 정기총회(세계정기총회)는 보고타의 각광받는 축제 이베로아메리카노 데 테아트르 축제와 겹치면서 특별한 행사가 될 것이다.

### 프로그램

(2013년 기준)

#### 쇼케이스

피치세션(Pitch session) : 매년 열리는 ISPA(국제공연예술협의회)의 총회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 또는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 단체가 직접 7분간 발표를 하며, ISPA 참가 델리게이트 중에서 공동 창작자, 투자자, 프리젠티 등을 찾는 자리다. ISPA 회원인 35개국의 350명가량의 전문가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 전에 새로운 작품들을 미리 만나 커미셔닝하거나, 프리젠티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부스전시(ProEX)

테이블형 부스전시, 홍보 및 프로모션

#### 아카데미

전문가개발프로그램/워크숍

#### 컨퍼런스

기조연설, 정기총회, 사상식, 미팅 등

#### 캐주얼 네트워킹

### 규모

일반적으로 40여개국 350~400여명의 참가자



### Contact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305 7th Ave, 5th Floor  
New York, NY 10001-6008  
+1-212-206-8490  
info@ispa.org  
www.ispa.org

### 참가방법

등록방법

등록처

조기등록

일반등록

등록비용

### 개인등록

홈페이지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팩스 +1-212-206-8603/이메일 mkim@ispa.org

2014년 1월 31일까지/( 비회원 조기등록 없음)

2014년 3월 26일까지

회원여부, 종류, 등록 시기에 따라 \$50-\$1,300 범위

### 참가방법

공모기간

지원신청비

등록방법

등록처

선정방법

### 피치세션

2014년 1월 말 공지

\$50(ISPA 회원일 경우, 신청료 1회 면제)

홈페이지 참가지원서 다운로드/작성 후 ISPA등록

ISPA 사무국 직접접수(신청서 PDF 전환 후 이메일

info@ispa.org 접수 또는 우편접수

ISPA 선정위원회 및 이사회가 선정

※ 장르, 규모 고려, 복합 또는 다국가 프로젝트 선호

### ▶ 한국공연단체 참가현황

구분	년도	단체명	비고
피치세션 참가	2010	쇼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전략거점지원사업
	2012	김주홍과 노름마치	2012 ISPA 서울총회 참여

## 전미공연예술네트워크

NPN(National Performance Network)

### 개최지

미국 순회 개최

### 개최시기

매년 12월

### 창설년도

1985년

### 개최지(2013년)

미국 뉴 올리언즈

### 일정

2013년 12월 12일~16일

전미공연예술네트워크(NPN, National Performance Network)은 미국 현대 공연예술의 창작과 유통,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이다. 1985년 뉴욕 댄스씨어터워크숍(Dance Theatre Workshop)을 중심으로 한 14개 문화예술기관의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출발하여, 오늘날 미국내 43개 도시의 68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회원사(partners)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국적 규모의 현대예술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공연예술 지원은 예술인에게 직접 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회원사(프린티터)의 프로젝트에 대한 매칭펀드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공연예술 작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투어링, 그리고 보다 심도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기까지 창작기금(Creation Fund), 공연레지던시(Performance Residencies), 커뮤니티 기금(Community Fund), 운송기금(Freight Fund), 포스기금(Forth Fund) 등 단계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12월 NPN의 회원 지역을 순회하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공연예술분야에 중점을 맞춰 온 NPN은 2009년 최초로, 시각예술분야 VAN(Visual Artists Network)을 포함하였다. 2010년에 25주년을 맞이했다.

### 프로그램

#### 쇼케이스

미디어 쇼케이스  
Live & On Stage

#### 컨퍼런스

In the Works(신작 소개 및 협업 파트너 탐색)  
Art Bursts(5분 프레젠테이션)  
아이디어 포럼

#### 미디어

Media Lounge, "sharing the stage"  
※ VPN의 시각예술 전시  
※ 총회 부분 인터넷 생방송 실시

### 규모

#### 참가자수

미국 전지역 300여명 회원 참가  
14개 단체의 초기 스폰서들로 시작해  
현재 61개의 파트너

#### 참가방법

**개인참가** (2013년 기준)

#### 등록일정

정보 기입 후 초대로만 등록 가능(온라인등록)

#### 참가방법

쇼케이스 ※ NPN 회원지역예술가만 가능

### Contact

P.O. Box 56698

New Orleans

LA 70156-6698

+1-504-595-8008

info@nnpweb.org

www.nnpweb.org/

## 중남미기획자연합회

La Red(La RED de Promotores Culturales de Latinoamérica y El Caribe)

### 창설년도

1991년

### Contact

La RED

+55-511-445-4421

presidencia@

redlatinoamericana.com

diva@amauta.rcp.net.pe

www.redlatinoamericana.com

중남미기획자연합회(La Red, La RED de Promotores Culturales de Latinoamérica y El Caribe)는 1991년에 설립된 남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 공연예술 프리젠티 및 프로모터 네트워크로, 축제, 공연장, 기획사 등 31개 회원과 타 권역의 축제, 지원기관이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타 권역에서 남아메리카 공연예술을 소개하거나 회원사 간의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La RED는 브라질의 파라티(Paraty)에서 1991년 5월에 창설되었으며 예술가 교류를 증진시키고, 지역별 문화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창설 이래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문화 교류, 워크숍, 공동제작, 교환 프로그램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아메리카 대륙과 카리브 연안에 걸쳐 대략 15,000명의 예술가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혁신적인 예술 기획과 새로운 재능을 접할 수 있었다. La RED는 문화단체와 기획자, 프리젠티, 프로그래머 등의 구성원이 국가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크게 안드리안 지역(Andean Region), 중앙지역, 남부지역, 카리브 연안 지역 4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네트워크 내부적으로 별도의 축제 간 협력체와 네트워크 간 협력체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 공연장 네트워크(NPN)와 유럽공연예술협회(IETM)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IFACCA(국제예술위원회)와 국제 문화 다양성 네트워크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최근에 북미 프리젠티 연합체인 NPN과 공동으로 북미-남미 공연예술 교류 사업을 진행한바 있고, 콜롬비아의 보고타 마켓(Cultural Market of Bogota), 브라질의 바히아 컬처 마켓(Cultural Market of Bahia), 칠레의 산티아고 FITAM 컬처 마켓(Cultural Market of Santiago FITAM), 페루의 리마 컬처 마켓(Cultural Market of Lima) 등 중남미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관여하고 있다.

## 유럽월드뮤직축제포럼

EFWMF(The European Forum of Worldwide Music Festival)

### 개회지

유럽회원국순회(정기총회)  
전세계회원국순회(위성회의)

### 개회시기

봄 / 가을(정기총회)  
시기별 상이(위성회의)

### 창설년도

1991년

### 2014 정기총회 일정

2014년 미공지

### 연계행사

위믹스

2013년 10월 23~27일

### Contact

Jan Frans Willemsstraat 10  
2530 Boeochout-Antwerp  
Belgium  
info@efwmf.org  
www.efwmf.org

유럽월드뮤직축제포럼(EFWMF, The European Forum of Worldwide Music Festival)은 세계는 다수의 지역적 전통과 음악의 복합체이며 각각 표현의 방식은 다르나 그 가치는 평등하다는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들의 네트워크이다. EFWMF는 1991년 창립되어 1993년 비영리 법인이 되었다. EFWMF는 1995년부터 벨기에 법령에 따른 예술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단체로 등록되었다. EFWMF의 주요 관심사는 예술 및 예술관련 문제이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또는 최소한 초국가적 성격을 띄며 월드뮤직, 민족음악(ethnic), 전통음악, 민속음악 등을 공연하는 전세계 축제 주최자들의 가입을 독려한다. EFWMF는 정보, 경험 및 연락처 공유를 포함한 회원 간의 교류가 주요 활동 내용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FWMF는 지속적으로 유럽 이외 지역의 축제 및 음악계 내의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고리를 촉진 및 강화할 뿐 아니라 이벤트 기획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는 45개의 축제 기획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유럽 및 비유럽 지역의 다양한 음악축제들을 대표한다. 이러한 축제의 다양성은 월드뮤직의 다양성에 견줄 수 있는데, 이탈리아의 소규모 백파이프 축제부터 20만 이상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초대형 축제까지 다양하다. EFWMF 회원들의 축제는 연중 유럽에서 2백만 이상을 유치하고 수백 명의 음악인들을 초대하고 있다. EFWMF는 연합회 회원 뿐 아니라 강력한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 이외 지역과의 연계도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EFWMF는 라이브 월드 뮤직을 위한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음악 엑스포인 WOMEX와 STRICTLY MUNDIAL을 주창하였다.

### 2013년 EFWMF 위원회

일렉산드라 아르체티 스톨렌(Alexandra Archetti Stolen) 노르웨이(의장)  
브라힘 엘 마즈네드(Brahim El Mazned) 이탈리아(서기관)  
패트릭 드 그루트(Patrick De Groot) Stinks Mixed! Festival벨기에(이사)  
요 에히nger(Jo Aichinger) 오스트리아  
마리나 포미어(Marina Pommier) 헝가리

performing  
arts  
market  
guide

# 색인

## 색인

INDEX

아시아/오세아니아권역		
<b>뉴질랜드</b>	<b>뉴질랜드 뮤직 엑스포</b> Sounds Aotearoa NZ Music Expo 매년/2~3월경/음악	<b>94</b>
<b>대만</b>	<b>후아산 리빙 아트 페스티벌</b> Huashan Living Arts Festival 매년/10~11월경/공연	<b>51</b>
<b>대한민국</b>	<b>서울아트마켓</b> 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매년/10월경/공연	<b>40</b>
<b>싱가포르</b>	<b>컨버스아시아스</b> ConversAsians 격년(짝수)/5월경/공연	<b>48</b>
<b>싱가포르</b>	<b>뮤직매터스</b> Music Matters 매년/5월경/음악	<b>95</b>
<b>인도네시아</b>	<b>인도네시아 아트마켓</b> Indonesia Performing Arts Mart 격년(홀수)/11월경/공연	<b>45</b>
<b>일본</b>	<b>요코하마공연예술회의</b> TPAMIY, 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 매년/2월경/공연	<b>46</b>
<b>중국</b>	<b>상하이국제공연예술제</b> SPAF, Shanghai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매년/10월경/공연	<b>44</b>
<b>중국</b>	<b>중국 국제 문화 산업 박람회</b> ICIF, China International Cultural Industry Fair 매년/5월경/공연	<b>50</b>
<b>호주</b>	<b>호주아트마켓</b> APAM, 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 격년(짝수)/2월경/공연	<b>42</b>
<b>호주</b>	<b>호주아시아 월드뮤직엑스포</b> AWME, The Australasian World Music Expo 매년/11월경/음악	<b>92</b>

유럽권역		
네트워크	<b>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b> IETM,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매년2회/봄(4월), 가을(10월)/회원국순회	124
네트워크	<b>유럽월드뮤직축제포럼</b> EFWMF, The European Forum of World wide Music Festival 매년3회/3월, 9월, 10월/음악마켓순회	130
독일	<b>인터내셔널 탄츠메세</b> Internationale Tanzmesse NRW 격년(짝수)/8월경/공연	56
독일	<b>위멕스</b> WOMEX, World Music Expo 매년/10월경/음악	98
독일	<b>재즈어헤드!</b> Jazzahead! 매년/4월경/음악	105
독일	<b>베를린 뮤직 위크</b> Berlin Music Week 매년/9월경/음악	111
루마니아	<b>시비우 국제 연극제</b> Sibiu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매년/6월경/공연	64
스웨덴	<b>에쓰노 스웨덴 월드 뮤직 캠프</b> Ethno Sweden World Music Camp 매년/6~7월경/음악	108
스페인	<b>피라타레가</b> Fira Tàrrrega 매년/9월경/공연	58
스페인	<b>캠앤씨:카탈로니아국제공연예술마켓</b> COME & SEE : Catal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격년(짝수)/7월경/공연	59
스페인	<b>바르셀로나 그렉 축제</b> Grec Festival de Barcelona 매년/7~8월경/공연	60

스페인	<b>바르셀로나 뮤직마켓</b> MMVV, Mercat de Música Viva de Vic 매년/9월경/음악	107
영국	<b>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b>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매년/8월경/공연	62
오스트리아	<b>클래시컬 넥스트</b> Classical Next 매년/5월경/음악	109
이탈리아	<b>메디멕스</b> MEDIMEX 매년/12월경/음악	112
프랑스	<b>바벨 메드 뮤직</b> Babel Med Music 매년/2~3월경/음악	101
프랑스	<b>미뎀</b> Midem, The World's Music Market 매년/1월경/음악	103
프랑스	<b>아비뇽 오프 축제</b> Festival d'Avignon Off 매년/7월경/공연	61
<b>북미권역</b>		
네트워크	<b>국제공연예술협의회</b> ISPA,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매년2회/1월(뉴욕), 6월(회원국순회)/공연	126
네트워크	<b>전미공연예술네트워크</b> NPN,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매년/12월/회원지역순회/공연	128
미국	<b>미국공연기획자협회 총회</b> APAP Conference 매년/1월(뉴욕)/공연	76
미국	<b>청소년국제공연예술 총회</b> IPAY,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or Youth 매년/9월/공연	78
미국	<b>중서부예술연맹 총회</b> Midwest Arts Conference 매년/9월/공연	79



미국	<b>남부예술연맹 총회</b> Performing Arts Exchange 매년/9월/공연	81
미국	<b>서부예술연맹 연례회의</b> WAA, Western Arts Alliance Annual Conference 매년/8월말~9월초/공연	83
미국	<b>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뮤직</b> SXSW Music, South by SouthWest Music 매년/3월/음악	118
캐나다	<b>시나르</b> CINARS,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Arts de la Scène 격년(짝수)/11월/공연	74
<b>중남미권역</b>		
네트워크	<b>중남미기획자연합회</b> La RED, La RED de Promotores Culturales de Latinoamérica y El Caribe 시기별상이	129
멕시코	<b>과달라하라 국제 음악마켓</b> FIM, Feria Internacional de la Música 매년/5월경/음악	122
브라질	<b>브라질 뮤직페어</b> Feira Música Brasil 매년/8월경/음악	120
브라질	<b>포르토 뮤지칼</b> Porto Musical 매년/2월경/음악	121
아르헨티나	<b>아르헨티나 문화 산업 마켓</b> MIKA, Mercado de Industrias Culturales Argentinas 격년(홀수)/4월/공연	89
우루과이	<b>우루과이 국제공연예술축제</b> FIDAE, Festival Internacional de Artes Escénicas 격년(홀수)/10월경/공연	88
콜롬비아	<b>보고타 아트마켓</b> Rueda de Negocios de Musica y Artes Escenicas 매년/11월/공연	87
콜롬비아	<b>비아마켓</b> VIA, Ventana Internacional de Artes Escénicas 격년(짝수년)/4월경/공연	86

기획, 구성 및 편집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임인자, 김옥진

리서치 지원 손승희

# 아트마켓 가이드

발행일 2011년 2월 28일 초판 1쇄  
2013년 12월 27일 증보판 1쇄

발행인 정재알

발행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교육동 12층  
Tel. 02-708-2276 Fax. 02-708-2243  
www.gokams.or.kr www.theapro.kr

인쇄 (주)메인기획

※ 책자의 판매,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